

지역사료 제43집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횡성문화원과 횡성의 역사, 문화 오디세이

현원명



횡성문화원



횡성문화원장
우 광 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횡성문화원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이라는 뜻깊은 지역사료자료 제43집을 발간하며, 지난 60년의 시간 속에 스며든 횡성문화의 숨결을 되새기게 됩니다.

1964년 개원한 횡성문화원은 반세기를 넘어 60년 동안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씬 없이 걸어왔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지역사 연구, 교육과 공연,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온 모든 노력의 흔적이 오늘의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횡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문화는 한 지역의 얼굴이자 정신입니다. 횡성문화원은 지난 세월 동안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문화연구를 통해 지역의 뿌리를 탐구하고, 예술행사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교육과 예술지원 활동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 43집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한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군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문화자치 횡성’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후대가 이 기록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현원명 횡성향교 교육원장님, 그리고 자료 수집과 정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0년의 긴 세월 동안 횡성문화원의 곁을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횡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사람을 잇는 ‘문화의 중심’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60년의 숨결 위에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세우며, 횡성문화의 더 큰 도약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군수
김명기

지역사료자료 제43집 '황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역사사료집을 발간해온 황성문화원에서 올해는 60주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작업을 펼치셨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모아집니다. 황성군민에게 있어 더없이 특별한 자료집을 발간해주신 우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황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원명 황성향교 교육원장님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성의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계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1964년 개원한 황성문화원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사회문화사업, 향토문화교육 및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향토사료 연구조사, 문화학교 운영, 4.1황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항일의병위령제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축제·행사, 작은영화관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지난 시간 소중한 황성문화를 오롯이 지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황성문화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서 군민의 두터운 신뢰와 애정을 쌓아왔습니다.

황성문화원이 걸어온 빛나는 발자취가 이번 자료집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황성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미래를 조망하고 황성문화 발전 방향 또한 설계해보는 소중한 이정표 같은 자료집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우리 군은 '365일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 조성을 근간으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황성·행복황성'을 완성해 나가려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황성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기점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황성문화원의 발걸음을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역사사료 제43집 '황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발간을 축하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이와 함께 나날이 성장해나갈 황성문화의 찬란한 내일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군의회 의장
표 한 상

『황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군의회 의장 표한상입니다.

먼저, 지난 반세기를 넘어 예순 해의 순환을 이어오는 동안 황성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내고 계승해 온 모든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문화의 토대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헌신이 쌓여야만 만들어집니다. 1964년 창립 이래 황성문화원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향토사료의 발굴과 기록, 애향지 발간, 평생학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의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인들의 발자취를 탐구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예술과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한편, 군민 누구나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곧 문화가 지역 사회를 단단히 묶는 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됨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황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은 문화원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황성이 쌓아온 문화적 성취를 집약해낸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한 장 한 장에는 문화원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헌신과, 이를 함께 지켜온 군민들의 애향심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군민에게는 고장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잡이가 되고, 후대에게는 뿌리를 잊지 않는 교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화는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입니다. 횡성문화원이 60년 동안 보여준 꾸준한 노력은 바로 이러한 문화의 힘을 군민의 일상 속에 심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역시 오늘의 발걸음 위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횡성군의회 또한 지역 문화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에 군민과 함께하며, 문화원의 사명을 이어가는 데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보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책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광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이 횡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횡성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간을 축하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군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향교 교육원장
현 원 명

황성문화원이 1964년 11월 8일 창립되어 2024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황성문화원의 60년 역사와 문화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로 제43집으로 '황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이 강원문화유산의 해로 그 당시 심진황 제8, 9대 황성문화원장은 황성지역문화창달을위해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황성문화원은 '어사매'향토문화집(1983년 창간)을 매년마다 발간하였으며, '황성문화'(2007년 창간) 애향지를 현재까지 발간하여 황성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성문화원은 1999년 9월 21일 한국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2025년 문화학교는 19개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교육학습으로 황성 예술문화 전당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은 문화의 날로 국민들에게 문화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황성군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점, 유형문화재 10점, 무형문화재 2점, 문화재자료 3점, 기념물 1점,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2점 등 합계 19점입니다. 필자는 전통예술, 애국운동, 문화재, 문화유산, 효열유적 등이 숨쉬는 황성의 애향 현장을 찾아 사진으로 담고 해설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황성 3.1 운동 기념비는 최종완 강원도지사가 전국 3번째로 1972년 8월 15일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황성의 3.1 운동은 강원도 독립만세운동의 효시이자 진원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미래가 있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황성문화원은 황성에서 국난극복과 애국 활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의 위대한 업적을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황성 일원의 찬란한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 문화유산, 효열(孝烈)유적 등을 발굴, 보존하며 계승하여 왔습니다.

국난극복과 애국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최양옥 애국지사는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신 후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울립니다. “1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 다 쓸 수 없다” 최양옥 애국지사는 1962년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훈격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27일 횡성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다음 장날인 4월 1일과 2일로 3차에 걸쳐 대규모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정신을 드높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피로 얼룩진 국난극복의 대업은 횡성문화원이 결코 잊지말고 우리 후세에 길이 보전 계승해야 할 과제입니다.

횡성문화원은 지역의 빛나는 문화유산과 효열(孝烈)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굴 재조명하고 또한 자주 현장을 탐방하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문화의 뿌리를 되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선인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며, 충절의 고향 횡성의 애항심과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가 한층 문화유산으로 강화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보존해야 합니다. 현대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을 지역적으로 해야 합니다. 애국의 고장 횡성, 문화의 고장 횡성입니다. 횡성의 위대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 및 전통을 선양하는 대열에 군민 모두가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1895년 6월 18일 조선 고종 임금은 지방 구획을 개편하는 칙령 98호 발표로 횡성현(縣)에서 횡성군으로 개편되어 그 날을 기념하여 횡성군민의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자랑스러운 23분께서 군민대상수상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 학자인 미수 허목의 횡성예찬 시(詩)가 시선을 끄니다. “횡성의 산골 때는 이월인데 꽃 피고 새 울고 봄 날씨 화창하네, 봉우리 우뚝우뚝 골짜기는 휘도는데 푸른 솔 하얀 돌 시냇물도 맑구나. 주민들 한가로워 장수한 이 많고 마을 풍속 순박하여 다투는 일 없도다.”

모쪼록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이 쉽게 접근되고 횡성군 홍보자료의 책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우광수 횡성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약 력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졸
전 가곡고, 우천중, 횡성중 교장
현 횡성향교 교육원장 및 장의
현 횡성신문 객원 칼럼위원
현 충효예 강원도연합회 고문 및 횡성회장
현 성균관 및 성균관 유도회 인성교육 강사
현 인성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초중등 강사
현 횡성 노인(실버,은빛,어르신)대학 강사
현 횡성문인협회 작가
전 횡성문화원 이사
전 횡성군 교육발전위원
전 성균관 전학(典學)
전 노인의료나눔재단 횡성지부장
전 강원도 공무원 영어시험 출제위원
전 대입 수능 EBS 영어 평가문항 출제위원

저서 및 수상

플러스 발상전환
조선시대의 생활문화 유산
횡성 향교지(공저)
유학경전의 인성교육
충효예 실천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충효예 실천의 인성교육 ppt 학습지도서
횡성신문 내 마음의 보석상자 칼럼 270편 기고
횡성문화원 횡성문화 소논문 13년 기고
현장연구논문대회 전국 1등급 푸른기장증 수상
교육자료전 전국 1등급 푸른기장증 수상
홍조근정훈장(2013년)
hwmpjs@naver.com

I PART 횡성문화원 60주년의 발자취

- 3 ▶ 2 횡성문화원 60주년의 발자취
- 4 ▶ 3-4 횡성문화원, 횡성문화원 창립 60주년(1964년 11월8일)
- 6 ▶ 5-6 횡성문화원 연혁, 횡성문화원 문화비전선언, 문화사업 활동
- 8 ▶ 7-8 횡성문화원 주요 사업, 역대 횡성문화원장
- 10 ▶ 9-10 초기 횡성문화원장 창간사, 발간사
 횡성문화원장 어사매, 횡성문화 발간사
- 12 ▶ 11-12 역대 횡성문화원장 횡성군민대상 수상
 심진황 제8, 9대 횡성문화원장, 지역문화재 보존사업,
 강원문화유산 발굴 선양
- 14 ▶ 13-14 심진황 제8, 9대 횡성문화원장, 지역문화재 보존사업,
 강원문화유산 발굴 선양
 이일영 제10대 횡성문화원장 횡성군민대상 수상
 제1대 전후반기 횡성군의회의장,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초대위원장
- 16 ▶ 15-16 이일영 제10대 횡성문화원장 문화학교개강식(2006년),
 한우축제, 청소년캠프 운영
 김광수 제11, 12대 횡성문화원장,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단 발대식(2011년)
- 18 ▶ 17-18 김광수 횡성문화원장 횡성 전통 문화 선양
 박순엽 제13, 14대 횡성문화원장 군민대상 수상
 ‘6.25 전쟁 증언’, ‘태기산을 시로 읽는다’ 외 다수 발간
- 20 ▶ 19-20 박순엽 제13, 14대 횡성문화원장 강원도문화상 수상
 횡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횡성문화원 업무협약식 체결
 횡성군지, 화성의 옛터, 화성의 근 현대 교육사 발간
 우광수 제15대 현 횡성문화원장,
 대한민국글로벌브랜드대상수상(2023)
- 22 ▶ 21-22 우광수 제15대 횡성문화원장 횡성 문화관광 포럼 개최
 기관단체간 문화여건개선 업무협약식
 횡성문화원 橫城 金石文大觀 발간(2004년)
- 24 ▶ 23-24 횡성문화원 어사매, 향토자료집, ‘횡성문화’ 애향지 발간
- 26 ▶ 25-26 횡성문화원 국난극복 애국선양 출판물
- 28 ▶ 27-28 횡성문화원 시네마 2018. 02. 14. 개관, 횡성시네마
- 30 ▶ 29-30 횡성문화원 횡성군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 32 ▶ 31-32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

34	▶ 33-34	횡성문화원 횡성 역사 문화 탐방 투어 2023년
36	▶ 35-36	횡성문화원 해외문화탐방(대마도) 2023년 횡성문화원 관외 향토문화비교답사 2017년
38	▶ 37-38	횡성문화원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2023년)
40	▶ 39-40	내고장지역(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 태기(덕고)산성 답사
42	▶ 41-42	횡성문화원 태기산 태기분교 답사 인간상록수 이명순 선생님(태기분교 설립자)
44	▶ 43-44	횡성문화원 횡성군민글짓기대회,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횡성문화원 주관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회(2017년)
46	▶ 45-46	횡성문화원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출연
48	▶ 47-48	횡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50	▶ 49-50	횡성문화원 봉복사 산사음악회
52	▶ 51-52	횡성문화원 강원문화대축전 참석(2022, 2024년)
54	▶ 53-54	횡성문화원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
56	▶ 55-56	횡성문화원 전통혼례(회혼례)
58	▶ 57-58	횡성문화원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60	▶ 58-60	청소년건강가요제,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62	▶ 61-62	횡성문화원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 / 평생학습축제회초대회
64	▶ 63-64	횡성문화원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시상식 2020
66	▶ 65-66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2017,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 서예교실(한글) 2018
68	▶ 67-6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2) 서예교실(한문)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3) 서예교실(문인화) 2018
70	▶ 69-70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4) 동양고전교양교실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5) 어르신풍물교실 2018
72	▶ 71-72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6) 국악(판소리)교실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7) 한국무용교실 2018
74	▶ 73-74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8) 가야금교실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9) 실버에어로빅교실 2018
76	▶ 75-76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0) 우쿠렐레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1) 사물놀이교실(야간) 2018
78	▶ 77-7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2) 색소폰(야간)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3) 합창교실(야간) 2018
80	▶ 79-80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4) 난타교실(야간)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2018
82	▶ 81-82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 서예교실(한글) 2023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2) 서예교실(한문) 2023

- 84 ▶ 83-84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3) 서예교실(문인화)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4) 한국화교실 2023
- 86 ▶ 85-86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5) 시조교실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6) 어르신풍물교실 2023
- 88 ▶ 87-88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7) 판소리교실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8) 한국무용교실(기초중급) 2023
- 90 ▶ 89-90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9) 실버에어로빅교실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0) 가야금교실 2023
- 92 ▶ 91-92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1) 우쿨렐레교실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2) 생활영어교실 2023
- 94 ▶ 93-94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3) 사물놀이교실(야간)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4) 난타교실(야간) 2023
- 96 ▶ 95-96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5) 서각교실(야간)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6) 색소폰교실(야간) 2023
- 98 ▶ 97-98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7) 하모니카교실(야간)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8) 기타교실(야간) 2023
- 100 ▶ 99-100 형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9) 금관악기교실(야간) 2023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19강좌 수료식
- 102 ▶ 101-102 형성문화원 예술단체 문화 선양 활동
 형성문화원, 형성 문화예술(음악 국악),
 전통 춤 공연, 한국무용 공연
- 104 ▶ 103-104 허민영(트롯트 가수) 형성군 홍보대사, 형성문화원 전통 춤 공연
 형성우천(정금문화마을)둔내(석문리) 우밀어러리타령
- 106 ▶ 105-106 형성 정(情과 한(恨)의 소리
 형성문화 창달(문인, 무형문화재, 사진)
- 108 ▶ 107-108 형성 문화예술 단체, 형성 문화예술 단체(형성문화 포럼)
- 110 ▶ 109-110 한국예총 형성지역 5단체, 형성문인협회 / 형성문화회
- 112 ▶ 111-112 형성문인협회 / 형성문화회, 호봉 장승모 도자연구원
- 114 ▶ 113-114 조선왕실 백자 도자기 형성지역의 백토(白土) 재료,
 한얼문예박물관, 형성 봉사단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 116 ▶ 115-116 형성 봉사단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사진(백합영상회, 형성군청 사진동호회)
- 118 ▶ 117-118 형성 연예예술인협회 공연
 형성문화원(시각예술인, 시각예술단체)
- 120 ▶ 119-120 시각예술 문화(회화 서예 공예)
- 122 ▶ 121 청일 신대리 복조리 생활공예, 가천리 짚풀 공예품 (60, 70년대)



- 124 ▶ 122-123 횡성의 역사와 문화 현장
 횡성도읍의 백세성도(百世成都), 횡성군민의 날 6월 18일
- 126 ▶ 124 -125 역대 횡성 군수 현황(郡政 역사 문화)
- 128 ▶ 126-127 조선시대 역대 횡성 현감, 군수. 역대 횡성군의회 의장 현황
- 130 ▶ 128-129 횡성면사무소(1959년), 횡성현감 김지(金漬) 횡성군지 발간사
 일제강점기 횡성장터, 횡성 개칭역사 / 섬강 지명유래 역사
- 132 ▶ 130-131 횡성 구일현감(具縣濫監) 은가람길 조성
 한국 최초 사립학교 설립, 횡성인 정현석
- 134 ▶ 132-133 조선중기 문신, 학자 미수 허목의 횡성예찬
 둔내 문인 한학자 기인 삼교(雪橋) 안석경
- 136 ▶ 134-135 횡성새마을운동 원선자 군새마을부녀회장
 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 138 ▶ 136-137 한국 최초 국가 고조선 유물 횡성 출토
 태기산 지역의 지명유래 역사,
 횡성 회다지소리축제(횡성 역사문화유산)
- 140 ▶ 138-139 횡성댐과 횡성 호수 둘레길 역사
 횡성 역사 (한우+더덕) 축제 문화
- 142 ▶ 140-141 태풍문화제, 안흥편빵축제, 횡성 8대 명품
 둔내토마토축제, 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
- 144 ▶ 142-143 갑천면 싹다리역사, 제1회 횡성군민연날리기대회(1992년)
 횡성 노포(老鋪) 문화 산책
- 146 ▶ 144-145 횡성읍 입석리(立石里) 지명 유래 역사
- 148 ▶ 146-147 갑천면, 강림면 지명 유래 역사
- 150 ▶ 148-149 청일면, 둔내면지명유래역사. 청일 봉명(鳳鳴)폭포, 태기산낙수대폭포
- 152 ▶ 150-151 우천면 우항리(牛項里) 지명 유래 역사
- 154 ▶ 152-153 안흥지명, 안흥편빵, 삼형제 바위 1924년 횡성봉평간도로공사준공
 정우주횡성현감애민선정비건립
- 156 ▶ 154-155 공근면, 서원면 지명유래 역사. 조선시대 역원(驛院): 창봉역
- 158 ▶ 156-157 횡성의 지명 유래 역사
 전국 최대 사방댐 건설 횡성 우천면 오원리(1941년) 조선시대 오원역
- 160 ▶ 158-159 신라시대 왕실 휴양지 갑천면 포동리
 저고리골 지명 역사, 횡성 어수(御水)물, 예수물 역사
- 162 ▶ 160-161 횡성 깎쟁이 역사와 문화 횡성군 심볼마크, 거주역사, 어답산 역사
- 164 ▶ 162-163 횡성한우(우룡승천牛龍昇天) 예찬 진양원, 레포츠공원, 횡성루지체험장
- 166 ▶ 164-165 섬강의 발원지 청일면 봉복산, 횡성 3橫 역사 횡성군민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 168 ▶ 166-167 횡성군민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역대 횡성군민대상 수상자 경력과 공헌도
- 170 ▶ 168-169 이승만 대통령 별장(횡성읍 목계리), 낚시터(청룡리)
- 172 ▶ 170-171 횡성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2017, 2024)
 조선의 횡성 역원, 원주(횡성)공항, ktx 횡성역, 영동, 중앙고속도로
- 174 ▶ 172-173 횡성의 최초 학교설립, 횡성군 유초중고 교육 문화 중심
 송호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횡성인재육성관
- 176 ▶ 174-175 평생학습도시 橫城
- 178 ▶ 176-177 횡성은빛(노인, 실버, 어르신)대학
- 180 ▶ 178-179 횡성의 위대한 자연, 인물 유산(遺産)
 횡성향교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00호
- 182 ▶ 180-181 횡성향교의 전설(구비전승) 추기석전대제(2016, 2018)
 횡성향교교육회관(教育會館) 횡성향교웨딩홀
- 184 ▶ 182-183 다도(茶道)예절교육, 성년의 날 행사(2010년 제38주년)
 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 유림강사 양성 강좌
- 186 ▶ 184-185 학생견학(명륜당, 충효예교육원 개강)
 기로연(耆老宴) 고유례(告由禮)
- 188 ▶ 186-187 횡성의 풍요와 안녕을 주는 토속신앙(土俗信仰)
 강림면 동치악산 수레너미길
- 190 ▶ 188-189 횡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횡성 교통망 확충
 공근 삼마치(三馬峙) 고개 지명유래 역사
- 192 ▶ 190-191 횡성신문, 횡성희망신문, 횡성군정소식지, 횡성의 명산,
 고목(古木)의 역사
- 194 ▶ 192-193 횡성역 송호대학교 보광사문화거리 조성, 횡성 보광사불탑(석탑)
- 196 ▶ 194-195 횡성 봉복사(鳳腹寺)
- 198 ▶ 196-197 서원풍수원성당, 도유형문화재 제69호, 유현문화관광지
- 200 ▶ 198-199 횡성 성당(문화재청등록문화재 제371호)
- 202 ▶ 200-201 서원면 압곡리 백로 / 풍수원성당과 군청뒤 느티나무
 횡성 한강대(寒岡垓)와 청룡(靑龍) 수류암(水流岩)
- 204 ▶ 202-203 공근면 독재봉, 안흥 관말공원
 공근 베이스볼파크 강원주라기랜드, 스포랜드사격장,
 루지체험장, 횡성호국원



III

PART

황성문화원의
군민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

- 208 ▶ 204-205 황성문화원의 군민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 황성참전기념공원
- 210 ▶ 206-207 3·1운동기념비,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황성 3·1운동의 산실 영영포리
- 212 ▶ 208-209 황성 3·1독립운동, 황성군민만세운동, 황성 3·1운동의 동선
- 214 ▶ 210-211 황성3·1운동 애국지사, 황성 3·1운동의 역사적 현장
- 216 ▶ 212-213 일제강점기 때 황성군청, 4·1황성군민만세운동
4·1 황성군민만세운동 토크쇼 삼일공원 애국지사
- 218 ▶ 214-215 4·1 황성군민만세운동 시작과 끝, 황성종교단체의 항일 투쟁 현장
- 220 ▶ 216-217 6·25전쟁 황성인 참전 현황, 황성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수상내역
황성군 제3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 222 ▶ 218-219 유학자(儒學者) 윤재은 재판기록문, 유학지도자 김치정 독립운동
- 224 ▶ 220-221 황성 충훈탑(忠魂塔) 황성군민의 종
- 226 ▶ 222-223 순국 8 용사 충훈비(忠魂碑), 무명용사 위령비
- 228 ▶ 224-225 도곡리 6·25 전몰장병 위령비, 학도병 충훈탑
- 230 ▶ 226-227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경찰 전적비
- 232 ▶ 228-229 엠피 오우덴 중령 현충비
- 234 ▶ 230-231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일제(日帝)의 야만적인 잔재(殘滓)
- 236 ▶ 232-233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
- 238 ▶ 234-235 황성 민공호 의병장
- 240 ▶ 236-237 황성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윤태환(尹泰煥)
- 242 ▶ 238-239 황성 독립운동가 윤동선(尹東先)
- 244 ▶ 240-241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가 장석운(張錫潤)
- 246 ▶ 242-243 김순이 독립운동가 현다례
- 248 ▶ 244-245 세덕사 추향제(음 9월3일)
- 250 ▶ 246-247 강성순(姜聲順) 순국 열사
- 252 ▶ 248-249 탁영재(卓永載) 애국지사
- 254 ▶ 250-251 한상열(韓相烈) 의병장
- 256 ▶ 252-253 최인순(崔仁淳) 의병장
- 258 ▶ 254-255 황성의 고려 충신 이반계(李攀桂)
- 260 ▶ 256-257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헌산(高荊山)
- 262 ▶ 258-259 청백리 명재상 항재 정종영(鄭宗榮)
- 264 ▶ 260-261 공양공 김관(金瓘) 영정, 공양공 김관(金瓘)
- 266 ▶ 262-263 황성군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
- 268 ▶ 264-265 을미의병 을사의병 중심지 황성(橫城), 강림리 의병총
- 270 ▶ 266-267 황성인 이인거(李仁居)의 난의 평가
- 272 ▶ 268-269 황성 원용팔 의병대장, 풍수원성당의 마리아상
황성향교, 서당의 황성 3.1운동 유립/ 애국지사

IV PART
 횡성문화원의
 횡성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 276 ▶ 270-271 횡성문화원의 횡성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 278 ▶ 272-273 횡성문화원 태종대(太宗臺) 문화유적지 답사
- 280 ▶ 274-275 노구사당, 노구소, 노구 할미
- 282 ▶ 276-277 운암정(雲巖亭) 도문화재자료 제17호
- 284 ▶ 278-279 강원문화재 서원 취석정(醉石亭)
- 286 ▶ 280-281 화성정(花城亭) 반구정(伴鳩亭)
- 288 ▶ 282-283 순풍정(淳風亭) 벽옥정(碧玉亭)
- 290 ▶ 284-285 태풍루(泰豐樓) 복성정(福星亭)
- 292 ▶ 286-287 횡성 강림 각림사(覺林寺)
- 294 ▶ 288-289 태종의 강무장(講武場)
 조선 3대 왕 태종의 최초 강무장 횡성
 고려 시대 횡천(橫川)을 횡성(태종 14년)으로 호칭변경
- 296 ▶ 290-291 횡성군 지정 문화재 현황
 중금리 삼층석탑(쌍탑) 도유형문화재 제19호
- 298 ▶ 292-293 상동리 석불좌상 도유형문화재 제20호
- 300 ▶ 294-295 상동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1호
- 302 ▶ 296-297 읍하리 석불좌상 도유형문화재 제22호
- 304 ▶ 298-299 읍하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3호
- 306 ▶ 300-301 신대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60호
- 308 ▶ 302-303 육절려 도유형문화재 제65호, 횡성 부동리 구석기 유적
- 310 ▶ 304-305 둔내, 읍하리, 공근, 갑천 철기시대 주거 유적, 횡성 청동기 유물
 횡성 금동불입상, 범종, 청동잔무늬 거울
- 312 ▶ 306-307 횡성 태기(덕고)산성
- 314 ▶ 308-309 횡성 운무 산성,
- 316 ▶ 310-311 횡성 갈풍리 산성, 조선시대 구화갈풍역
- 318 ▶ 312-313 우천면 추동리 괘채상(郭菜象) 정문(旌門)
- 320 ▶ 314-315 강릉김씨 정려각
- 322 ▶ 316-317 정암리 김복이 열녀문(二美門)
- 324 ▶ 318-319 안광근 효자각
- 326 ▶ 320-321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 328 ▶ 322-323 유봉수 청원각
- 330 ▶ 324-325 박양혁 효자비
- 332 ▶ 326-327 정현구 효자 정려문
- 334 ▶ 328-329 홍순태 효자비
- 336 ▶ 330-331 원주원씨 열녀 정려문
- 338 ▶ 332-333 원주이씨 효부비
- 340 ▶ 334-335 경주김씨 효부 정문

IV PART
황성문화원의
황성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 342 ▶ 336-337 경주이씨 정려각
- 344 ▶ 338-339 경주김씨 효열 비각
- 346 ▶ 340-341 서득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 348 ▶ 342-343 권화 효자각, 최상목(崔相睦) 효자문
- 350 ▶ 344-345 황성군 효자각 효녀각 효부비 정려각
- 352 ▶ 346-347 황성군 孝:효자 효녀 효부 烈: 열녀
문화 유적 지역별 분포 현황

1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2 I PART 횡성문화원 60주년의 발자취

124 II PART 횡성문화원의 횡성 역사와 문화 고찰

204 III PART 횡성문화원의 군민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

270 IV PART 횡성문화원의 횡성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횡성문화원 창립(1964년 11월 8일) 60주년 기념 식수(2024. 11. 8)

I

PART

횡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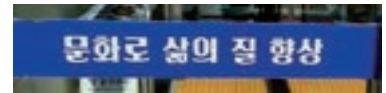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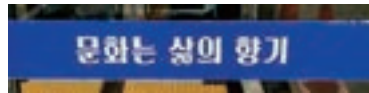
60주년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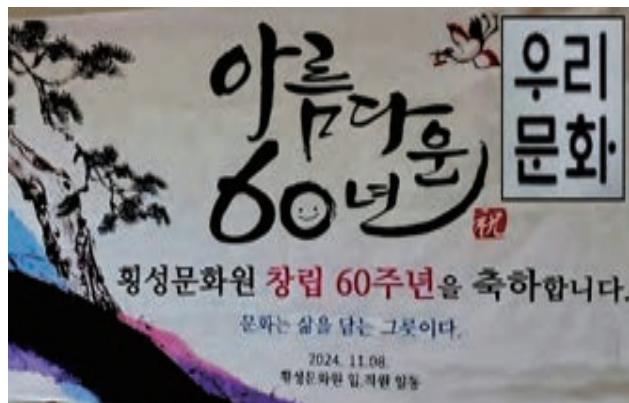


2

횡성문화원 60주년의 발자취



횡성문화원 창립 (1964년 11월 8일)



60주년 기념 식수(2024. 11. 8)

황성문화원



1990년 (구)황성문화원 신축이전 운영



황성문화원 구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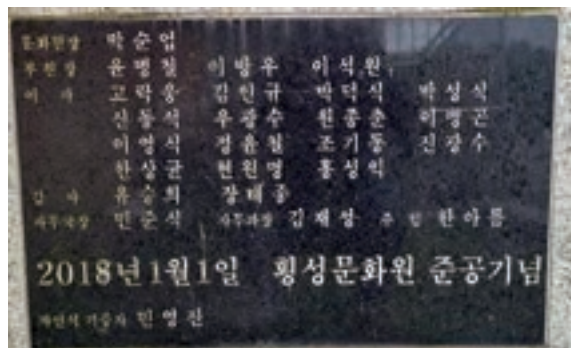
황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황성시네마) 건립공사 기공식
(2016. 7.18)

황성문화원 건립

- 배 경: 청사 노후로 신 청사 신축 필요
- 기 공 식: 2016. 7. 18 (발주: 황성군)
- 위 치: 황성읍 앞들서 3로 6
- 규 모: 대지면적: 3,477평방미터
- 건축면적: 1,080평방미터
- 시 설: 지하(도서열람실) 1층(발표회장) 작은영화관(황성시네마)
2층(사무국, 원장실, 회의실, 문화 교실, 문화사랑방)
- 이 전 연월일: 2018년 1월 2일
- 준 공 식: 2018년 3월



황성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 신 청사



황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준공기념비

횡성문화원 창립 60주년 (1964년 11월 8일)



우광수 문화원장



이병곤 부원장



정윤철 부원장



홍성진 부원장



고광열 이사



김정예 이사



문양환 이사



박덕식 이사



박종균 이사



송세영 이사



신동석 이사



안신명 이사



양재학 이사



원종훈 이사



유승희 이사



이강일 이사



정종심 이사



현원명 이사



이원복 감사



홍용표 감사



민준식 사무국장



김재성 부장



이행복 팀장



정혜은 팀장

횡성문화원 임원진(2024년)



황성문화원 연혁

1964. 10. 05.	설립총회 개최. 제1대 원장 취임(허명구)
1964. 11. 08.	사단법인 황성문화원 설립 등기필
1969. 06. 20.	제2대 원장 취임(윤희철)
1972. 11. 19.	제3대 원장 취임(조철한)
1973. 01. 20.	(구) 황성문화원 신축 건립 이전 운영
1982. 02. 15.	제4대 원장 취임(김인환)
1985. 02. 09.	제5대 원장 취임(한중희)
1991. 12. 16.	제6대 원장 취임(윤재택)
1994. 07. 01.	제7대 원장 취임(황환신)
1995. 03. 25. ~ 2002. 07. 07	제9대 원장 취임(심진황) 중임
2002. 07. 08.	제10대 원장 취임(이일영)
2006. 07. 08.	제11, 12대 원장 취임(김광수) 중임
2014. 07. 08.	제13, 14대 원장 취임(박순업) 중임
2022. 07. 08.	제15대 원장 취임(우광수)



1994. 07. 08.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폐지.
지방문화진흥법(법률4718호)에
의거 황성문화원 개칭

1994. 09. 16.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황성문화원 인가, 정관, 임원
승계 승인

2020. 11. 01.
작은 영화관(황성시네마 위탁 운영)

문화비전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2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횡성문화원 활동



어르신 노래자랑(2022)



황성문화원 주요 사업

황성문화원 사업명

- 1) 과거 국난 극복과 애국 활동 선양
- 2) 황성 및 관외의 문화 유산, 효열 유적지 탐방
- 3) 황성의 유형, 무형 문화재 발굴과 보존
- 4) 황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거점 센터 운영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보존 전승 사업

문화유적지 순례,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강원문화대축전 /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지역문화보존전승사업 / 애향활동전개사업

황성문화(애향지) 발간, 지역 인물 선양, 지역사료집 발간,
황성의 문화유산 발간

지역사료조사사업 / 문화학교운영사업

지역사료수집, 자료집발간, 강원도 지역문화연구논문 발표회,
지역문화비교답사, 지역사료발굴자료조사 /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랑방사업 /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 관외 전통문화현장학습 / 호국영령추모음악회

2025. 09. 30. 현재 정회원수 325명

2025년 문화학교 19개 강좌 300명

문화교실 1, 2 :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문화교실 3 : 생활영어, 서각, 문예창작

문화사랑방1 : 실버에어로빅, 우쿠렐레
색소폰, 한국무용 I, II, 하모니카

문화사랑방2 : 국악, 가야금, 사물놀이
어르신 풍물놀이, 난타, 기타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허명구

1964.10- 1969.06



윤희철

1969. 06- 1972. 11



조철한

1972. 11- 1982. 02



김인환

1982. 02- 1985. 02



한중희

1985. 02- 1991. 12



윤재택

1991.12 - 1994.06



황환신

1994. 07- 1995. 03



심진황

1995. 03- 2002. 07



이일영

2002. 07- 2006. 07



김광수

2006. 07- 2014. 07



박순엽

2014.07- 2022.07



초기 황성문화원장 창간사, 발간사

- 1대 **허명구** 황성문화원장 : 황성교육감(현 교육장)
 2대 **윤희철** 황성문화원장 : 재경 황성군민회장
 3대 **조철한** 황성문화원장 : 신문사 지국장
 4대 **김인환** 황성문화원장 : 황성 제일의원 원장

제4대 김인환 황성문화원장 어사매 창간사 1983년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문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 변화는 비물질적 변화보다 빠른 속도로 변동하기 때문에 문화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전통 역사 문화계승을 저해한다. 어사매는 황성의 고유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1985년도 황성문화원 운영 방향 기고문



갑자년이 저물고 을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황성문화원으로서는 나름대로 보람과 희망이 있었던 한 해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금리의 황성 회다지 소리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했고 태풍문화제도 무난히 치루었으며 여러가지 대회가 규모는 작으나마 뜻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제6대 윤재택 황성문화원장 향토사료집 제11호 발간사



잠재된 향토문화를 찾아 생활문화에 접목하고 미래지향적 문화소재들을 모아 소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본지의 발간을 맞으면서 항상 애독하여 주시는 문화동호인께 감사드립니다. 향토사료집 창간으로 황성 역사, 문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황성의 문화 예술은 황성문화원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4회 황성군 향토문화상을 시상하는 제5대 한중희 황성문화원장

횡성문화원장 어사매, 횡성문화 발간사

어사매 (於斯買)
제11호 (1993년)
심진황 횡성문화원장



지금 우리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각종 외래문화는 홍수같이 밀려든다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제 8, 9대 심진황 횡성문화원장은 문화학교 운영과 많은 학술논문 발표 및 횡성 역사와 문화 발전, 특히 횡성 문화 유산, 효열 유적지 발굴 보존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금년 횡성군민대상자로 선정되어 횡성문화원의 영광이다.

횡성문화예술의
발전 구상
이일영 횡성문화원장



문화의 의미는 용어 자체가 다소 고급스럽고 희소가치가 있어 일 반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나, 근자에는 우리가 보다 생활속에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횡성의 문화예술 발전과 횡성군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하여 횡성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횡성문화
통권 제26호(2011년)
發刊辭
김광수 횡성문화원장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다양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는 장례문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대화로 시작해서 문자로, 문자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논 정보 전달문화로 생활합니다. 저는 금년초 현안사업으로 향토사로 수집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노력하였으나 고작 타자기 몇 점 모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용품들을 수집하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물질보다 가치있는 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황성문화원장 황성군민대상 수상

황성군민의 날(6월 18일)



제8, 9대 심진황
황성문화원장

제3대 군민대상
문화예술부문



제10대 이일영
황성문화원장

제10대 군민대상
문화체육부문



제13, 14대 박순엽
황성문화원장

제21대 군민대상
문화체육부문

황성군민대상 수상자의 자격

- 효행 봉사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 지역 농 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 지역 문화 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 사람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



역대 황성군민대상 수상자 기념 행사(2021년)

심진황 제8, 9대 횡성문화원장
지역문화재 보존사업,
강원문화유산 발굴선양

심진황 횡성문화원장
횡성의 문화유산 발간
1997년 發刊辭



태기산 자락에 삶의 동지를 틀고
孝를 근본으로 하여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살아온 횡성의 효시는 아득히
먼 선사시대부터 그 역사가 유래되었
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산재한
선사유적지에서 부터 부침의 연속이
었던 근대문화 유적에 이르기까지 우
리 조상들의 값진 문화유산들이 소실
되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횡성문화유산 책이 횡성 애향심을 드높이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횡성문화원장
이연승 동시비
제막식 참석(1997년)

횡성문화원은 향토인물 선양, 故 이연승선생 추모 동시비 건립
19주년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의 창의심을 높였
다.(2016년)

1997년 강원문화유산의 해에 심진황 8, 9대 횡성문화원장은 횡성
지역의 유형, 무형 문화재를 발굴 보존, 선양하여 군민의 박수를 받
았다.

군민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자 횡성문화유산 책자를 발간하고 횡
성관내에 보급하여 홍보하였다 횡성문화유산 책이 후손들에게 소중
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심진황 제8, 9대 횡성문화원장 지역문화재 보존사업, 강원문화유산 발굴선양

‘횡성의 지명 유래’
발간사
심진황 횡성문화원장



선인(先人)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문화유산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동리 석불좌상, 3층석탑 과 같은 유형문화재, 그리고 무형문화재인 횡성 회다지소리 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횡성문화원은 이러한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 수집 정리하는 것은 물론 향토사료문화집을 통하여 그 결과물을 꾸준히 제작 발간하여 왔습니다.

향토사료 제17집은 횡성 지명을 조사 정리해 발간하였습니다. 선조들의 문화적 지명 발상이 지혜롭고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횡성의 지명유래 발간과 더불어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가 더 높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문화창달을 위한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문화유산의 날
4월 5일

심진황 횡성문화원장께서는 제3회 강원 문화유산의 날의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강원 문화 유산의 해(1997년)를 맞이하여 강원 문화 유산을 발굴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하였다. 낙산사와 승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를 다함께 가꾸는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낙산사 화재발생일인 4월 5일을 ‘강원문화유산의 날’로 제정하여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심진황 문화원장은 과학발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의 정신적 근원과 진수를 찾아 진정한 우리의 것, 참다운 우리문화 정체성 확립을 확고히 하는 군민의 노력을 특히 강조하였다.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기념식에 심진황 횡성문화원장 참석

이일영 제10대 황성문화원장 황성군민대상 수상

제1대 전, 후반기 황성군의회 의장
황성군민대통합초대위원장

황성군민대통합위원회
발대식



이일영 황성문화원장 황성군민대통합 위원회 발대식 황성군민대상 시상식



이일영
황성문화원장



이일영 황성문화원장 황성군민대상 수상식

황성발전 대토론회
(2004년)

황성발전대토론회(2004년)에 이일영 황성문화원장은 태기산성을 역사관광체험관 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여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화 하느냐에 따라 우리 문화의 질과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다. 황성발전의 바탕은 황성의 역사와 문화 창달이라고 하였다. 이일영 황성문화원장은 초대 황성군의회 의장이고, 황성 군민대통합초대위원장으로 황성의 역사와 문화를 견인한 기수로서 황성의 자랑스러운 인물로서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황성발전대토론회(2004) 이일영
황성문화원장은 태기산성을 역사
관광체험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여 대토론회
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일영 제10대 황성문화원장

문화학교 개강식(2006),
한우축제, 청소년캠프 운영

문화학교 개강식
(2006년)



어사매 19호 (2004년)
발간사(發刊辭)
이일영 황성문화원장



갑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요즈음 우리 황성의 향토문화를 발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어사매 19호의 발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사업을 위해 성원해 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과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성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내 유 무형 문화재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황성 문화를 사랑하는 군민의 애정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성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황성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청소년 캠프 운영



황성문화원의 한우축제공연 2003년

횡성문화원의 목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

횡성문화(2012년)
통권 제27호
발간사(發刊辭)



김광수
횡성문화원장

올 한해는 지구온난화로 가뭄, 폭염, 태풍이 유난히 심했고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된다 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빛나는 것이 국민들의 문화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을수록 슬기롭게 대처하고 서로 배려하는 의식화가 좋다고 하지요.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며 국위를 선양하여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세계에 보급하였습니다. 횡성을 떠난 20여만 출향인사들에게 횡성문화 27호가 고향의 정을 전할 수 있는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보내고 밝아오는 계사년에 군민들이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어르신 나눔 봉사단 발대식과 문화학교 개강식(2011)에 강사진 위촉장 수여 장면이다. 원장님은 문화원 목표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에 두었다.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단 발대식



김광수 횡성문화원장이 2011년 문화학교 개강식에 유관중씨 등 강사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광수 제11, 12대 횡성문화원장

횡성 전통 문화 선양

횡성문화원의 역점 사업

횡성의 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으로 현대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다. 지역문화는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자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체성이자 뿌리이다. 김광수 횡성문화원장은 전통문화인 정월대보름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달집태우기, 떡메치기, 연날리기, 망우리 돌리기, 용줄다리기, 문화공연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6강좌 판소리, 가야금교실, 문인화, 한글서예반, 탭댄스, 에어로빅반 등을 증설하여 호응이 좋았다.

해마다 문화학교 수료식날을 동짓날로 정하여 동지팔죽을 횡성문화원 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밖에 김광수 문화원장은 어르신 노래자랑을 개최하였고 대학수능시험 이후 고교생 대상 교양강자를 실시하여 교육문화를 신장시켰다.

횡성문화(2013년) 발간사



김광수
횡성문화원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橫城은 우리의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할 攄田이자 故郷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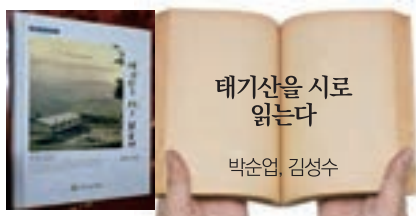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價値의 重要性을 모르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後孫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귀한 史料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귀한 자료를 먼 훗날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모으려 해도 예산도 자료도 우리들을 기다리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우리 문화원의 단독원사, 향토사료관, 향토사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해왔지만 예 산편성권이 없는 현실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며 뒤돌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횡성문화원에서 시급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향토 사료관, 향토사연구소, 학습공간이 조성되도록 횡성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횡성문화원도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업 제13,14대
횡성문화원장,
군민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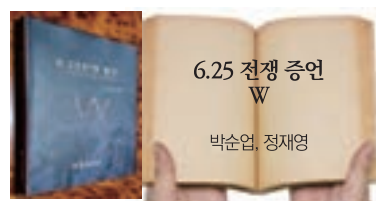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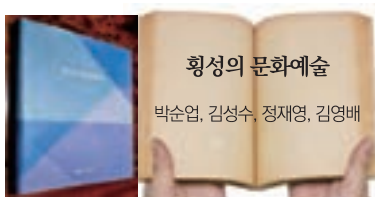
태기산을 시로
읽는다
박순엽, 김성수

박순업
홍성문화원장



박손업 황성문화원장은 ‘6.25 전쟁 증언’ 태기산을 시로 읽는다’, ‘시대의 아픔과 격랑을 헤쳐 나간 황성인’ 외 다수의 국난극복, 애국선양의 책을 저술하여 황성문화원 회원과 수많은 각 기관단체에 보급하여 선열의 국난극복과 애향심을 고취시켰다. 태기산을 시로 읽는다 책은 김성수 시인과 공동 저술이며 황성의 문화예술은 정재영 한국예총 황성지회장 외 3인의 공동 저술이다. 6.25전쟁 증언은 정재영 한국예총 황성지회장과 공동 저술로 심혈을 기울였다. 태기산은 황성의 얼굴이며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된다.

박순업 행정문화원장은 2014년 7월부터 향토사료 책자 발급 사업 추진을 통해 향토인물의 발굴과 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왔고 강원문화창달에 노력한 우수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아 행정문화원장과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6월 18일 군민대상 수상.



홍성문화원과 작은영화관 조감도

형성군은 형성문화원과 작은영화관 기 공식을 2016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최 하였다. 한규호 형성군수, 이대균 군의회의장, 박순업 형성문화원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400명이 참석하였다.

박순업 제13,14대
황성문화원장,
강원도문화상 수상

황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 체결
황성군지, 화성의 옛터, 황성의 근 현대교육사 발간

박순업 황성문화원장
제62회 강원도문화상수상자(향토문화연구부문)



2018년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인사말



박순업
황성문화원장

무술년이 저물고 기해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숨 가쁘게 달려 온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연말,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황성문화원은 2018년에 문화학교 14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제 종강을 맞이하여 그 결산으로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문화원 회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황성문화의 주인공입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황성문화원의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황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 체결



황성문화(2013년) 기고



황성 군지

횡성문화원 제60차
정기총회



횡성문화원 발표회장(2024년 2월 20일)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장인사, 일반 현황, 감사 보고 2023년도 운영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확정의 건

2025년 우리문화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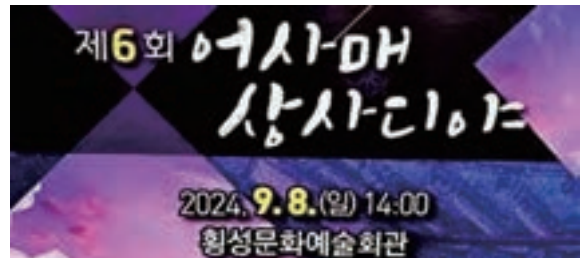
횡성문화원 우광수 원장은 우리문화 8월호를 발행하였다. 횡성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새롭게 쓰고자 노력하는 곳이 횡성문화원 이라고 말씀하셨다. 횡성문화원은 어찌면 횡성한우에 가려서 횡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은 보다 잘 보여 주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제6회 어사매
상사디야

우광수
횡성문화원장



횡성 옛지명 어사매와 판소리 춘향가 중 농부 가의 대목에 모심을 때 소리 상사디야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재현하였다. 우광수 횡성문화원장이 횡성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취지의 행사에 개막 인사말을 하였다. 횡성은 애국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이다. 어사매 상사디야는 횡성의 숨결이다.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울림이 있는 소리이다.



우광수 제15대 횡성문화원장

횡성 문화 관광 포럼 개최 기관단체간 문화여건 개선 업무협약식

횡성문화(2022년) 발간사



우광수
횡성문화원장

이제 마지막의 한장을 남긴 임인년 12월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다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횡성문화원에서도 문화학교 운영, 관내의 문화탐방, 어르신노래자랑, 평생학습축제(민속놀이체험), 한우축제(회혼례), 국악대공연 등 내실있는 행사로 횡성군민 전체의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향토지 횡성문화는 횡성문화원의 자부심입니다.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횡성군 발전을 위한 횡성문화포럼



우광수 원장이 주축이 되어 횡성문화관광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횡성지회와 함께 문화원 발표회에서 문화포럼을 연다.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 문화 이슈를 논의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횡성문화를 발전시킨다.

업무협약식



송호대학교와 횡성문화원간의 업무협약식,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정보교환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



횡성문화원과 횡성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문화적 여건과 자원활용 협약식 체결로 횡성문화원 역량강화

횡성문화원
橫城 金石文大觀 발간
(2004년)

금석문(金石文) → 금속(金屬)이나 석재(石材)에 새긴 글 또는 새김 글이다. 대관(大觀)이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해설을 의미한다.



횡성 금석문대관
(橫城 金石文大觀)



향재 정종영
묘비 새김글



횡성 금석문(金石文)
탁본 전시회(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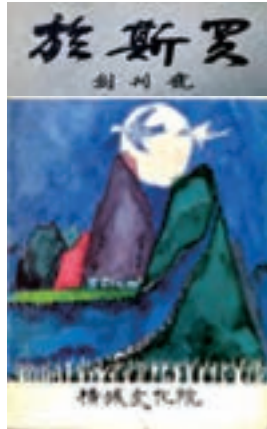
금석문이란 금속이나 석재에 새긴 글, 새김글이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금(金) 쇠붙이에는 청동기 중, 검, 방울 등에 새긴 글자(종명, 제기명)가 있다. 석(石)은 비석, 묘지명, 석등, 탑 등에 새긴 글이다. 횡성금석문대관은 이인재 역음으로 2004년 횡성문화원에서 발행하였다. 횡성지역의 금석문 수집, 해석, 정리된 향토사 자료집으로 횡성 역사, 문화재 비문연구, 향토사 교육자료 및 참고서가 되고있다. 비문, 묘갈명, 신도비, 정려비 등 역사, 인물의 행적, 건립 목적, 사회적 관습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횡성문화원은 지역사회문화사업으로 2004년 횡성금석문 탁본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석, 신도비, 묘비, 기념비, 선정비, 송덕비, 불망비, 암혈을 탁본하여 발굴 선양하였다. 지역사료조사사업으로 지역사료 수집과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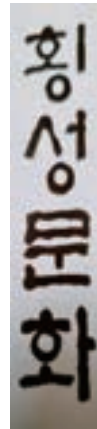
횡성문화원의 향토사 20집에 해당하는 횡성 금석문대관(金石文大觀)은 생동감있게 위대한 역사 인물, 묘비 새김글 등을 한눈에 볼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향재 정종영 묘비 새김글은 석재에 새긴 글로 문헌을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금석문에는 광개토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무구정광대다라니경(무구정경) 등이 있다.

황성문화원
어사매, 향토사료집
태기문화보 창간

황성문화원
어사매(於斯買),
태기문화보
(泰岐文化報)
향토사료집
(鄉土史料集)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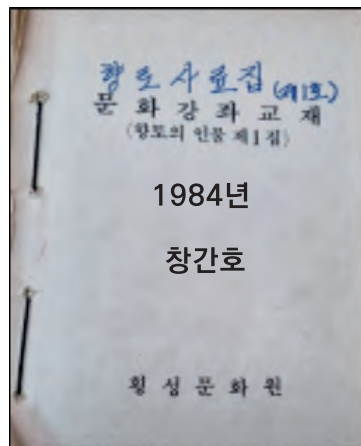


어사매(於斯買) 창간호
(1983년)



태기문화보(泰岐文化報)
창간호 (1986년)

황성 향토자료 탐색 조사 정리를 하여 황성지역의 향토사료를 창간하여 황성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료(資料)가 되고 있다. 황성문화원에서 발간한 어사매(於斯買) 창간호, 태기문화보(泰岐文化報) 창간호, 향토사료집(鄉土史料集) 창간호는 황성문화원의 정체성(正體性)과 황성 문화 창달에 구심점(求心點)이 되고 있다.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책자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 모든 문헌과 잡지 등 창간호는 저술의 동기 목적 방향을 높게 시사하고 있다.



향토사료집(鄉土史料集)
창간호(1984년)



향토사료집 11호 발행
(1994년) 축하 행사
6대 윤재택 황성문화원장

횡성문화원 횡성문화 애향지 발간

애향활동전개사업

횡성문화 애향지
2007년 창간



횡성문화 동권 제28호 편집위원회(2013년)

2013년 횡성문화원장 김광수
사무국장 홍성진
횡성문화 애향지
편집위원장 한상균
편집위원 김광홍 김인규 박순업
박현숙 이병오 진광수 현원명



동권 제32호 2017 횡성문화 결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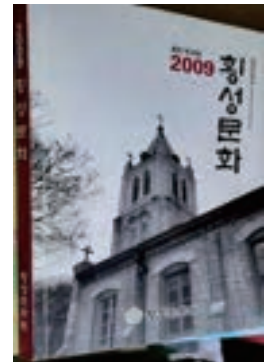
애향지(향토지)
‘횡성문화’ 발간
(2013년)

발행처: 횡성문화원 연간지(年刊誌)

내용: 향토사의 숨결, 문화유산,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문예마당, 문화학교 운영 현황, 전통문화 현장학습,
문화사업실적 등

편집위원: 김광홍, 김인규, 박순업, 박현숙, 이병오, 진광수,
현원명

기대효과: 향토문화 진흥, 지역사회 개발



횡성문화(2009년)

편집 후기

본래 어사매로 시작되어 이제는 ‘횡성문화’라는 그릇
속에 자랑스러운 횡성사람들 삶속에 스며있는 횡성의
문화를 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횡성사람들의 모
습을 담은 횡성문화 동권 제28호를 선보이게 되었습니
다. 그동안 편집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지 출간을
위해 끝까지 힘써주신 관계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대표 한 상 균



‘횡성문화’ 애향지
(2007년 ~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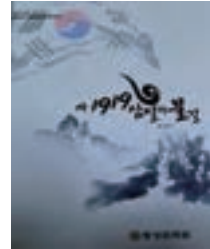
황성문화원
국난극복, 애국선양
출판물

애향활동전개사업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4.1만세운동은 범민족항일운동이다.

황성문화원
출판물

- 황성과 三·一 운동
- 아 1919 삼일의 불길
- 황성 三·一 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
- 황성지역에서의 의병 전투와 독립운동
- 시대의 아픔과 격량을 헤쳐나간 황성인
-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
-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 항재 정종영의 생애와 사상
- 황성인 장석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과 삶
-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 황성 각림사와 태종의 강무행차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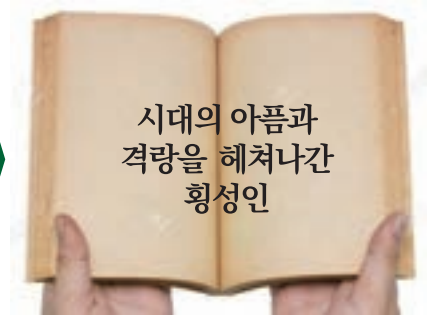


향토사료조사사업

향토사의 숨결



출판물(향토사료
제41집) 2023년



정인영 정탁영 정부영
조덕현 김원한 정위철

형성문화원은 1964년 11월 8일 개원이래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속에 대한민국의 국난극복과 애국심 선양을 위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재조명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기여한 위대한 인물들의 숭고한 업적을 해마다 기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피로 얼룩진 국난극복의 대업은 형성문화원이 결코 잊지말고 우리 후세에 길이 보전 계승해야 할 과제이다. 형성문화원과 형성군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에 지역사료집, 형성문화 등 연간지, 계간지 등을 출판한다. 형성 지역 주민들과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보급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형성은 태기산의 기상과 유유히 흐르는 섬강의 정기를 받은 고장으로 풍요를 구가 하며 인정을 나누면서 자손만대가 살아갈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형성문화원은 선열의 드높은 항일 구국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창의와 예절을 모아 살기좋은 형성을 만들고자 더욱 국난극복과 애국선양의 출판물을 보급할 예정이다.

황성문화원 시네마
2018. 02.14 개관

전국 232 지방문화원 중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은 단 2곳 뿐이다.
그 중 한 곳이 황성문화원이다.

작은 영화관 사업



2018년 2월 14일, 기관단체장 초청 개관식 후 개관 기념작 첫 상영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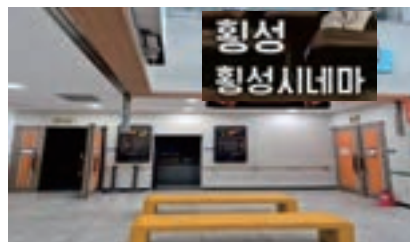
작은 영화관 사업

2018년 2월14일 기관단체장 초청
개관식 후 개관 기념작 첫 상영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상영관 정보 (황성시네마 위탁운영 2020년 11월 1일)

- ① 상영관 1관
일반 85석, 휠체어 2석
- ② 상영관 2관
일반 48석, 휠체어 1석

강원특별자치도 황성 착한 영화관 황성 시네마, 가격도 일반 영화관의 2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화장실과 부대시설이 깨끗하고 북적대지 않아 너무 여유롭고 쾌적하다. 주차도 수월하며 황성을 시내에 위치하여 노지와와의 거리도 1km가 채 안돼 아주 가깝다. 황성지역의 문화 요람인 작은 영화관 황성시네마가 자랑스롭다. 황성 주민들의 문화 증진과 인적교류의 센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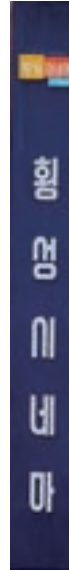


황성 시네마 내부 환경

작은 영화관 사업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여성 문화의 날



영화 '플랜 75' 상영 후 황성문화원 우광수 원장이 진행한 시네마 관객들과의 토크쇼를 통해 지역민과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슈를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황성군에서는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황성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여성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황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2023 황성시네마 황성 여성 무료관람 지원사업은 황성군 황성 여성 문화의 날 사업의 일부로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황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사업이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사업으로 황성군민들의 호응이 좋다. 황성시네마는 1년에 한 번씩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실시하여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아이들은 애니메이션도 보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무료관람 발권은 전화예약 및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 당일 황성시네마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명단작성 후 현장에서 발권이 이루어진다.

황성시네마 033 -343- 1088

황성문화원 033- 343-2271

강원특별자치도 황성군 황성읍 앞들서3로 6. 황성시네마

황성문화원 황성군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2014. 2019

향토문화의 연구



황성성당, 서원 의병총, 풍수원성당 답사

황성문화원은 해마다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황성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 2014년은 학생들 대상으로 향토문화 유적지 교육으로 강림중, 청일중, 둔내고, 황성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이 참가하여 값진 황성 역사 체험을 하여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1차: 2014년 4월 9일(수) 둔내고등학교 38명
- 2차: 2014년 4월 14일(월) 청일중학교 19명
- 3차: 2014년 4월 17일(목) 강림중학교 39명
- 4차: 2014년 10월 29일(수) 황성여자고등학교 38명
- 5차: 2014년 11월 1일(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35명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목적은 향토사 이해, 황성 정체성 확립, 지역 문화유산 보존 의식 고취 등이다.



둔내고등학교



청일중학교

횡성문화원 문화 & 역사 유적지 답사

횡성 답사 대표 유적지

선사 고대유적(상동리 삼층석탑, 읍하리 석불좌상, 중금리 삼층석탑, 태기산성)
불교문화유적(각립사터, 봉복사, 보광사)
조선시대 충효열 유적(효자 권화 비각, 횡성 원주이씨 효부비, 횡성 경주김씨 효열비
각 외 다수)
문화유산(관세불망비, 정려각, 금석문 유적 태기분교 등)

내고장 문화유적지 학생 답사(횡성문화원)

2024 망향의 동산,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태종대
2023 풍수원 성당, 횡성 삼일공원
2022 군민의 종(각) 3.1공원 풍수원 성당
2021 강림리의병충, 민국호의병장전적비 노구소 노구사당
2020 태기산 일원(태기 분교)
2019 독재봉, 고흥산 관련 고씨동굴 붉은고개 막힌고개 종달바위
2018 횡성댐 공원, 망향의 동산 노구사당, 배향산
2017 각립사 사지, 횡지암, 태종대 주필대 풍수원 성당, 최양옥 애국지사 묘,
세덕사 김순이 애국지사 묘, 횡성향교
2016 봉복사, 정금향토사료관
2015 신대리 삼층석탑, 중금리 삼층석탑 장송모도자연구원
2014 횡성참전전우기념공원 상동리 석불 좌상, 상동리 삼층석탑, 태풍루,
횡성 효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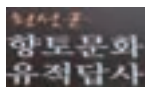


한국전쟁참전기념비 답사 (2019년)



2013년 횡성문화원 향토문화 유적지답사

횡성지역문화 교육 사업 (2013, 2019)



1. 우리 횡성 고장의 문화 유적지 탐방(1차, 2차)
2. 망향의 동산, 화성의 옛터 전시관, 중금리 삼층석탑,
3. 횡성 호수길, 태종대(주필대), 강림리 의병충 보광사
4. 상동리 석불좌상, 장송모 도자연구원, 한얼문예박물관, 한국전쟁참전기념비
5. 국가지정 천연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
관외 문화 유적지 답사 (1차, 2차)
6. 횡성 역사 문화 탐방길 투어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



전통문화체험학습 문화사랑방 운영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2017. 7.25-8.2 /문화사랑방)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기간중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있다. 문화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이론식 수업보다 체험하고 토론하며 우리고장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만드는 부채만들기, 국악 배우기, 부채춤 배우기, 가야금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떡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이 전개된다. 온 몸으로 부딪쳐 체험(體)한 깨달음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仁) 인성을 실천하며 얻어지는 지혜(智) 체인지(體仁智)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체인지(change)할 수 있다.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
(2017. 7.27 ~ 8.2) /
문화사랑방

마을문화사랑방

2017년 여름방학 기간 중 횡성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전통문화 불씨를 살렸다. 2018년 가족과 함께하는 내고장문화유적지 탐방은 횡성거주 가족일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풍수원성당, 3.1공원 등 횡성군 문화 유적지 탐방 행사와 횡성시네마 단채영화 관람을 실시하였다. 문화사랑방을 운영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2018년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을 학생들은 무엇보다 좋아한다.

횡성문화원



횡성문화원은 지역 거점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좌담회(2014년)

황성문화원 황성 역사문화탐방 투어 (2023)

지역 역사 문화 연구는 향토사연구비교답사, 향토문화유적지 조사(갈풍리 산성 등), 전통문화체험학습, 문화사랑방 운영, 향토문화 연구사료대회 참가,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향토문화 기록촬영, 관내 관외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황성 역사 문화탐방 투어를 전개하고 있다.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서 연례적인 행사로서 진행된다. 무엇보다 직접 황성역사문화탐방을 투어하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교육이야말로 현장성있는 산 교육의 모습이 되고 있다.

향토사의 숨결
‘황성문화’
애향지 기고



황성 삼일 공원



황성 풍수원 성당



용문사

황성문화원
황성역사문화탐방

- 2016 태기분교 설립배경과 시대상 고찰
관내 향토사료 발굴 사료조사
- 2017 지리지 사료를 통한 황성의 인문지리
봉복사, 강성순, 한상열
- 2018 서원면 풍수원 성당, 의병총
황성의 금산, 봉산과 시장에 관한 소고
- 2019 황성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3.1운동 100주년 가치정립을 위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생애 고찰
- 2020 조선중기 재상 고형산 위민행정과 그의
가계 고씨동굴 연관성 고찰
향토사료 발굴조사를 다녀와서
황성군 둔내면의 융성한 문화의 힘
역사속에 비춰진 황성의 고귀한 흔적들
운암정의 내력 ‘운암정서’
고장의 새싹들 키워온 화성유치원
- 2021 사진으로 보는 조충장군과 삼원수
역사의 뒀안길 그 묻혀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향교 주변 나무 이야기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 2022 황성의 3.1운동의 산실 황성 영영포리
- 2023 황성의 구비전승(口碑傳承)
- 2024 3.1운동과 황성군민 만세운동

황성문화원 황성 역사 문화 탐방 투어

향토문화교육사업

황성군민의 역사 문화
 탐방 투어 계획표

일 시 : 2023. 11.29 (수)
장 소 : 황성군 국난극복 유적지. 황성문화원 발표회장
 황성 삼일 공원 → 황성 풍수원 성당
 → 용문사

참석인원 : 황성군민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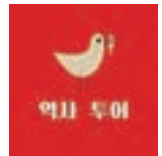
행사내용 : 헌다례, 진혼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황성역사문화 탐방 투어.

공연내용 : 피리, 한국무용(태평무),
 시낭송, 우쿨렐레, 하모니카, 기타,
 색소폰, 국악그룹 휘안, 성악

주최/주관 : 황성문화원

기대효과 :

내 고장의 문화 유적지 탐사로 지역의 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진흥, 문화재의 소
 중한 가치 인식, 내고장 이해와 자긍심 고취, 소속감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
 양한다. 황성 문화탐방은 황성역사 문화유산 자연경관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탐방하는 활동이다. 황성문화원, 황성군청 문화관광과, 학교, 동호회, 향토사학
 회에서 직접 주관하여 진행한다. 전통문화 탐방은 문화유적지 체험이나 답사로
 이루어진다.



황성 삼일공원

황성문화원
해외문화탐방 (대마도)
2023년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

해외문화탐방 (대마도)
2023년



가네이시성

해외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여 시야를 확장하고 우리 향토문화와 비교 연구하며 현지 지역민과의 인적 교류 및 문화적 소양을 함양한다.

대마도 히타카츠
미우다 해변 탐방
(황성문화원)



히타카츠 미우다 해변

해외문화탐방(황성문화원) 자비부담
2025 베트남 사파
2024 베트남 나트랑, 달랏
2023 일본 대마도
2019 대마도 (덕혜공주를 생각하며)
2018 라오스 루앙프라방, 메콩강,
탁발의식

황성문화원은 문화사랑방운영사업으로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역사의 자취를 탐사하기 위하여 문화원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 탐방으로 대마도를 다녀왔다.

수선사, 가네이시성, 덕해옹주 결혼 봉축비, 에보시다케 전망대, 100대 해수욕장에 속하는 대마도 히타카츠 미우다 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황성문화원에서 관내, 관외 해외문화탐방으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교육시간이 되었다. 또한 황성문화원은 일본에 대한 이해와 조상의 일을 찾아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역사의 정통성과 현장성을 기르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대마도의 실제적 역사의 진실을 아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횡성문화원
관외 향토문화비교답사
2017년

강화문화권(강화도, 인천)
향토 문화 답사



횡성문화원 임직원 24명이 강화문화권(인천, 강화도 일원) 방문하여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 강화평화전망대, 석모도보문사 등을 2017년 박순업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함께 1박 2일로 답사하였다.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국난극복과 애국선양을 기리는 효과가 있다. 횡성문화원에서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적지순례로 관내, 관외 향토문화비교답사를 진행하며 횡성문화원 전 회원간이 우의를 다지기도 한다.

횡성문화원 회원간의 긴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충청권(공주 공산성, 부여 낙화암, 정림사지, 온달산성 등) 경상권(경주 불국사 석굴암, 안동 하회마을, 합천 해인사 밀양 영남루) 전라권(전주 경기전, 담양 소쇄원, 순천 낙안읍성) 등이다.

횡성문화원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2023년)

횡성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2023년 문화원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고창군, 김제시 일원을 방문하여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였다. 횡성문화원은 가을 단풍의 정취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사적지를 넓게 접하고 익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관외 향토유적답사로 역사와 문화의 안목을 넓히는 좋은 활동으로 횡성문화원 회원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 지역 향토사 연구, 생생한 지역문화 교육, 타 지역과 문화적 공통점, 차이점 이해, 답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교류 확대라는 큰 의의와 성과가 있다.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고창 응성



고인돌박물관

문화유산답사



횡성문화원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관외 전통문화현장학습 (횡성문화원)

2015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2016 소쇄원, 화엄사, 광한루원, 죽녹원
 2017 남한산성, 다산 생가, 화성행궁
 2018 목포근대역사관, 경기전, 전주사고, 해남 땅끝마을, 낙화암, 전주한옥마을
 2019 진주성, 거제포로수용소,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2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골굴사
 2023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과 선비촌
 2024 공산성, 공주 무열왕릉과 왕릉원



한국민속촌



수원화성

관외문화유적지답사 (횡성문화원)

1차

일 시: 2016. 4. 20(수)

참가대상: 문화원회원, 수강생 126명

답 사 자: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일원

2차

일 시: 2016. 10. 26(수)

참가대상: 문화원 회원, 수강생 120명
 답사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일원
 (수원화성, 화성행궁 등)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 하고자 횡 성 문 화 원 은 연 령 적 으 로 해마다 관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 관외 문화유적지 순례는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효과적인 답사 활동이다.

황성문화원
내고장 지역(향토)사료
발굴 자료조사

지역문화교육사업

문화유산

내고장 지역(향토)사료 발굴 자료조사

2017년, 2018년 황성 관내 향토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사료수집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개발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해마다 내고장 지역사료조사발굴사업을 황성문화원에서 실시한다, 지역사료발굴조사는 황성문화원의 다양한 연중 활동 중 백미로 손꼽힌다.



2017년 관내 향토사료 발굴자료조사
황성문화원
황성문화원의 지역사료조사사업

황성군 향토문화
유적답사

2022년은 황성문화원에서 황성군 청일면과 황성군 갑천면 등 왜둔지, 공근면 육절리, 말구리, 삼군리, 관심산, 종잘바위 등 임진왜란 과 관련하여 문화재 및 지명 유래조사를 진행하였다. 황성관내 많은 지역의 지명유래는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



2018 관내 향토사료 발굴자료조사
황성문화원

태기(덕고)산성 泰岐(德高)山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6백 53척이다. 내부에 우물 하나가 있었고 군창(軍倉)이 있다. 지금은 절 반이나 퇴락되었다.

2011년
태기(덕고)산성 답사
횡성문화원



태기산(泰岐山) = 덕고산(德高山)

향토유적답사

태기산은 횡성군 둔내면과 평창군 봉평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높이 1,261m의 횡성군 최고봉이다. 화전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세워진 태기분교가 있다. 횡성 태기산성은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어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진한(辰韓)의 태기왕이 신라 박혁거세에 쫓겨 태기산에 들어와 성을 쌓고 방어했다고 한다.

태기산의 원래 이름은 덕고산으로 주변 산보다 높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추어 자신을 볼수없게 산세가 완만하여 덕이 높은 덕고산(德高山)이다. 다시말해 태기산은 덕고산이다. 덕고산 봉복사는 횡성 역사상 현존 사찰중 가장 오래된 사찰로 군자의 덕을 지닌 태기산에 위치한다.

횡성문화원 태기산 태기분교 답사

태기분교답사
(횡성문화원)



아빠의 고향 태기산 태기분교 탄생

태기산 일대 화전민 자녀 교육 실시

하늘아래 첫 학교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태기분교 해발 1,261m 옛 학교 교정 역사의 교육 현장이 장엄하다.

1965년부터 1976년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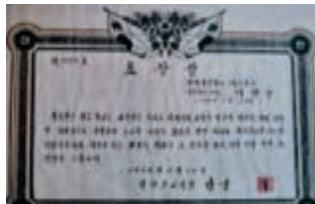
1966년 3월 15일 3학급



4, 5, 6학년 복식학급 72명 전교생 입학식 거행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님의 등장.

1968년 태기분교 기공식 개최.



1976년 개교 8년만에 화전폐지사업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초기 150명에서 폐교 즈음 16명으로 감소하였다.

1968년 횡성교육장 남궁 숙의 이명순의 태기분교장 132명에게 희망의 햇빛을 주는 지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인간 상록수 이명순 태기분교 설립자,
박순업 횡성문화원장 자원 선생님



문닫는 하늘아래 첫 학교 덕성국민학교
태기분교 (1976년)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님
(태기분교 설립자)

이명순 태기분교
설립자



1966년 3월 15일 복식학급 72명 입학식(개교)
8년만에 화전폐지사업으로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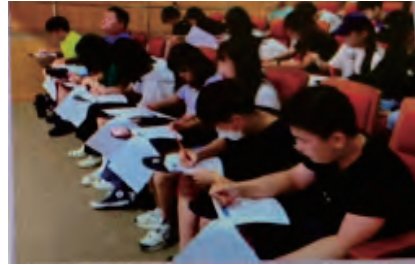
이명순선생님은 태기산 화전민 자녀교육을 위해 둔내면 화동리에 살며 매일 몇 시간 걸어 태기산 1,261미터에 자신의 눈발을 팔아 태기산에 집을 짓고 박경원 강원도 지사를 찾아가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하여 원조단체 '케어(CARE)'와 비용을 투자하여 1966년 하늘아래 첫 학교인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를 개교했다. 이명순선생님은 일평생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 학생들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암흑의 적막을 뚫고 화전민 자녀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바쳐 정열을 쏟았다. 그 당시 중앙일보 는 사나운 맹수라도 나타날 위험한 밤길을 용감하게 출퇴근하여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렸고 한국의 진정한 교육 선각자라고 대서특필하였다. 현재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늘아래 첫학교 태기분교가 50년만에 드디어 돌아왔다. 다시 한번 교육현장으로 돌아간다. 횡성군 둔내면 태기산 일대 탐방 강의, 자연 체험 등 배움의 공간으로 운영된다(2025년).



황성문화원 황성군민글짓기 대회,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2023년 황성 군민
글짓기 대회



지역문화교육사업으로 황성문화원은 아름다운 우리 고장 황성의 역사와 인물을 선양하고 군민들의 정서함양 및 인문학적 소양을 육성하고자 2023년 황성군민글짓기대회를 연다. 훌륭한 글과 직접 찍은 사진이 어우러지는 디카시 부분을 통하여 창의적 시각으로 황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다. 군민의 문학적 소질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글로 표현하며 세대별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모형식은 운문, 산문 기행문 동화 등이 있다. 주제는 대체로 지역문화, 황성의 인물과 역사 등이다.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황성군민의 문학적 역량 발휘의 장이 된다. 황성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한편 황성문화원에서는 향토인물 선양 故 이연승선생 추모 동시비 건립 어린이글짓기대회를 매년마다 실시하여 왔다. 황성군민 글짓기대회 시상식이 열렸다(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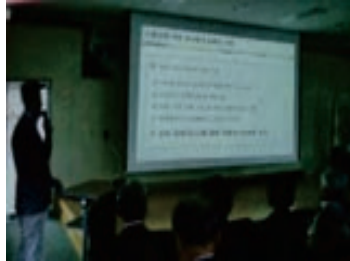
황성문화(애향지) 기고 황성문화원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 2009년 효란 무엇인가(조원섭)
- 2011년 우리고장 옛지명 갈풍역(윤만복)
- 2012년 강림에 각림사가 있었다(임태규)
- 2013년 봉복사 이야기(김광홍)
- 2014년 섬강(蟾江) 이야기(유승희)
- 2015년 황성에서 보이는 딱정벌레 무리(한상균)
- 2016년 황성에는 남산두부도 있다(이영식)
- 2017년 황성담의 어제와 오늘(정재영)
- 2018년 회다지(임청근) 나방이야기(한상균)
- 2019년 황성 평화의 소녀상(박현숙)
- 2020년 황성의 전문예술단체 '농음'(김지희)
- 2021년 황성인 장석운 전 내무부장관 발자취(김동정)
- 2022년 역사속의 유원지 황성 진양원(김영배)
- 2023년 숨겨진 보물 노둣돌(문양환)
- 2024년 갑진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민준식)

횡성문화원 주최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논문발표회 (2017년)

2023년 횡성 군민
글짓기 대회



제27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
(횡성문화원 주관)



2003 제1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횡성문화원 주관)

朝鮮王祖 實錄으로 살펴 본 講武場 橫城

조선 인조 대 40 이인거 난에 관한 소고

조선 인조 대 이인거 난에 대한 소고 (2016년 제26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 발표회(철원군 주관) 진연호 님 최우수상 수상(2016년). 횡성문화원이 주관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 발표자 진연호님께서 우수상을 수상(2017년).



진연호



홍주민 우수상 수상(2014년)

홍주민

‘조선중기 재상 고흥산 위민행정과 그의 가계 고씨동굴 연관성 고찰’ 발표하였다.

횡성문화원 사무국장 민준식
노력상 수상(2020년)



민준식

2014년은 정선문화원 주관으로 횡성문화원에서 홍주민님이 ‘조선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회를 2017년 횡성문화원이 주관해 횡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다. 진연호님께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횡성문화원 민준식 사무국장께서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연구논문발표회횡성문화원 주관
진연호님 2017년 우수상 수상

횡성문화원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출연

2013년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다양한 전통민속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로서 각 지역 고유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2024년 제29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물놀이경연대회는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일반부 10개 팀, 청소년부 6개 팀이 참여하여 동해문화원 빛오름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도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축제이다.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



2021년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송세영 지도강사)의 웃다리 사물놀이는 짹짹이, 늦은타령, 칠채장단, 육채장단, 마당삼채 장단, 휘모리장단을 공연했다. 장려상을 수상했다.

횡성문화원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출연

지역문화보존전승사업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일정

행사: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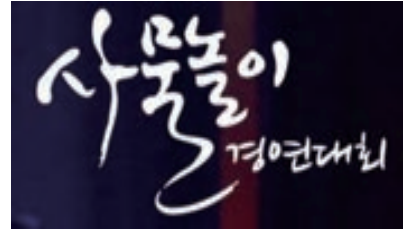
일시: 2022. 09. 07 (수)

장소: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내용: 횡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장려상)

청일면 춘당초등학교 춘당꿈동이

(미래청소년 동상)



제27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평창문화예술회관)



제18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2013년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는 지역문화보존전승사업으로 발전시켜 출연하여 값진 동상을 수상하였다. 2025년 제30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가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식전공연, 개회식, 본 경연, 축하공연, 시상식 등 포함될 예정이다. 대회 현장을 담은 사진들, 사물놀이 팀들의 역동적인 공연 장면들이 다채롭다. 횡성문화원은 연례적인 행사에 지역문화보존전승사업으로 준비하여 참가하여 수상하며 박수를 받는다.

황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황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오색달빛 강릉 야행이란 야간에 문화재를 활용하여 황성문화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야사(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역사기행(강릉대도호부관아 수문장 포토존) 야설(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경(밤에 비춰보는 야경) 등이 있어 이채로운 야경과 지역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은 강릉을 알리는 좋은 역사 문화 체험 행사이다.

오색달빛강릉야행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밤에도 역사는 놓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릉대도호부 관아, 명주동, 임당동 일원에서 열렸다. 강릉부사 부임행차 퍼레이드(개막식)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 드론 공연,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강릉오색달빛야행은 국립문화재청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통 야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았다.

강릉대도호부관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횡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횡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계획표

행사명: 횡성문화원 문화교실 오색달빛강릉야행
일 시: 2017년 8월 3일(금)
장 소: 강릉대도호부관아, 명주동, 임당동 일원
내 용: 전통 공연, 문화재 야간 투어,
강릉 예술인 작품 감상, 강릉 전통
문화 체험 및 이해

개 설:

강릉의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야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각 지역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달빛 야행 행사를 개최하면 그 지역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 야행 10선 및 2025년은 강릉 국가유산야행 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고 운영될 예정이며 전국 우수 사업 선정 축제로 발전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축제의 결합으로 야간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강릉문화재
오색달빛강릉야행



황성문화원 봉복사
산사음악회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

봉복사 산사음악회
(2023년)



황성군 청일면 봉복사에서 항일의병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산사음악회(2023년)

본 문화원은 항일의병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역사인식 제고와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항일의병 위령제, 추모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사음악회는 신라 선덕여왕16년인 647년 창건된 봉복사에서 항일의병 발자취를 찾아보는 추모제, 항일의병 위령제도 함께 진행돼 애국의 고장 황성의 역사 정신을 아우르는 무대로 의미를 더했다.

황성 의병활동에서 민공호는 강원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正校)로 봉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병대장이었다. 주 의병 활동지역은 덕고산(태기산)과 봉복사에 의병진영을 치고 오정묵을 포군대장으로 영입하고 체천 충주 풍기 등지를 습격하며 일본군과 격전하였다. 황성문화원 수강생 중심으로 한국전통무용, 가야금, 우쿨렐레 하모니카 색소폰연주 불교의식 바라춤 단소 연주, 가야금공연 등이 있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전통과 현대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져 항일의병의 역사를 기리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봉복사 산사음악회
개막식



횡성문화원 봉복사 산사음악회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16년(647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구한말인 1907년 9월 23일 약 350여 명의 의병들이 머물며 일제와 맞서 싸우다 50여명이 전사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이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며 여러차례 소실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횡성문화원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일환으로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에서 횡성 군민 300명과 함께 의병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내용은 석탑앞 소원빌기, 바라춤, 음악회가 있었고,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공연으로 진혼무, 시낭송, 피리, 색소폰, 우쿨렐레, 하모니카, 대중가요, 가야금 & 거문고, 기타, 성악 등을 선보여 의병들의 국난극복과 애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다. 오후 2시부터 횡성문화원과 봉복사간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 항일 의병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2023년 횡성군 지역문화 활력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항일의병 추모제 및 산사음악회
일시: 2023년 9월 23일 15:00
장소: 횡성군 청일면 봉복사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909- 88



항일의병 위령제 및 산사음악회
2025년 9월 20일 10:00
항일의병 위령제, 점심 공양 산사음악회
(진혼무, 가야금 대금 첼로 색소폰
우쿨렐레 하모니카 합창 성악 대중가요)



횡성문화원 주최 산사음악회



횡성 봉복사

황성문화원 강원문화대축전 참석 (2022년, 2024년)

지역문화교육사업

강원문화대축전은 전통문화계승과 지역문화교육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문화원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해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공연, 전시 등 기획 행사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강원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여 매년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지역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전통문화 공연과 작품전시, 문화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종합문화 축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 시군 문화원 수강생 작품과 전통공연, 지역 예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문화동아리 공연:
황성문화원
한국무용반
강원문화대축전
기념식



강원문화대축전(2024년) 개최



문화유공자 포상 이사 김정예(2022년)

문화유공자 포상 이사 고광열(2022년)

횡성문화원 강원문화대축전 참석 (2022년, 2024년)

강원문화대축전 횡성문화원 참가

횡성문화원은 도내 문화원간 적극적인 동참과 정보교류, 상생발전을 위한 2022 강원문화대축전 in 홍천에 참가하여 도내 문화원의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문화 동아리의 자부심 고취와 학습 결과의 사회 환원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강원문화대축전은 다양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며 도내 각 문화원과 예술인들이 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지역문화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행사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제문화원이 주관하는 2024년 행사는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축하공연 및 전시 등으로 꾸러졌다.

2022년 강원문화대축전에서는 횡성문화원의 한국무용반 공연과 고광열 이사, 김정예 이사의 문화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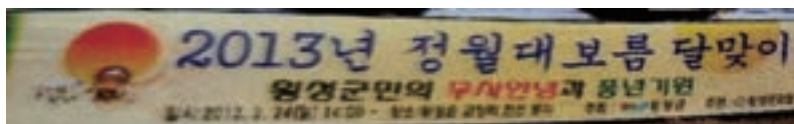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제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축하 공연 및 작품 전시 등으로 꾸러졌다.



인제실내체육관 2024 강원문화대축전 개최

황성문화원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

황성문화원 향토문화보존 전승사업



정월대보름행사는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음력 1월 15일 한 해의 건강과 풍년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전통 행사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한 민속 고유의 행사가 열리는 즐거운 명절이며 행사이다. 황성군은 전천교 위 둔치에서 매년 성황리에 황성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즐거운 황성 대단합 행사를 열고 있다. 황성군 9개 읍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확장했다. 각 면의 노인대학 민속놀이 연날리기 경연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이 연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정월대보름행사를 진행하였다.

달집태우기

황성의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황성 군민 안녕을 기원한다.



떡메치기



용줄다리기(2013년)

줄다리기의 줄은 용을 상징한다. 줄을 당겨 용을 깨우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 현재 용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고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횡성문화원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횡성군민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연례적인 행사로 그리고 명절 행사로 횡성읍 읍상리 전천 둔치에서 개최한다.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민속놀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횡성군민의 단합과 새해 부자 횡성을 기원한다. 참석한 많은 군민들이 소원쓰기 토정비결을 통해 무사 안녕을 빈다.

횡성문화원에서 마련한 먹거리도 풍성하여 행사를 더욱 즐겁게 한다. 한편 2024년 행사에 떡메치기와 인절미는 읍내에서 정미소와 방앗간을 경영하시는 익명의 독지가가 기증해주셔서 행사장에 모인 700 여명이 드시고도 남았다.



달집 태우기 의미

불길이 높을수록 마을에 풍년 이 들고 액운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개인의 소원 성취와 건강을 빌었다. 불의 정화력으로 병과 재앙을 태워 없앤다는 뜻이다.

황성문화원 전통혼례(회혼례)

전통혼례(회혼례)
순서도



정위철 한순임 부부
회혼례

2022년 10월 1일(토) 한우축제장
결혼 69주년을 맞은
신랑 정위철(93세)씨와
신부 한순임(89세)씨의 회혼례



신랑 신부 사진



교배례(交拜禮)



친영(親迎)



신랑 신부 단체 사진

횡성문화원
전통혼례(회혼례)

윤병철 김분남 부부
회혼례

2024년 10월 3일(목) 한우축제장
결혼 60주년을 맞은
신랑 윤병철(82세)씨와
신부 김분남(79세)씨의 회혼례



황성문화원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

기타지원사업

어르신 노래자랑 2013년

제1회 황성 실버 가요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황성관내 65세 이상 대상으로 황성문화관에서 2013년 5월 16일 처음 개최되었다. 매년 어르신 노래자랑은 황성문화원의 큰 행사로 군민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대회는 예선 및 본선 구성으로 본선 진출 8개 팀을 선정하고 오후 본선 경연을 펼친다.



2013년 제1회 황성 실버가요제
(5. 16. / 황성문화관)

어르신 노래자랑 2022년



횡성문화원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2022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2022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시상식

2022년 횡성군 전체 어르신 노래자랑을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예선 15팀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10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부상을 수여하였다. 2013년 시작된 어르신 노래자랑은 해를 거듭할수록 횡성군민 전체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다.

횡성문화원은 기타지원문화사업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래자랑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참석한 모든 군민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많은 경품추첨으로 즐거운 행사와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광수 횡성문화원장은 어르신들이 흥겨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찬 행사라고 말씀하셨다.



2022년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우광수 횡성문화원장 인사말씀)

청소년건전가요제 황성군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청소년건전가요제 (11회)
황성문화관(2007년)



황성문화원에는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으로 1997년 제1회 황성 관내의 청소년건전가요제를 시작하였다. 관련 사진자료는 2007년 11회와 2011년 15회로 개최된 황성 청소년건전가요제이다. 황성문화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우정과 끈끈한 화합을 도모하며 끼를 마음껏 뽐내며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는 황성군 관내 전역의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의 청소년건전가요제를 매년마다 실시한다. 황성군 지역에 황성청소년교향악단이 2014년 11월 창단되어 강원도민체전 및 각종 황성군 주관행사에 연주회를 개최한다. 유행가보다 건전가요는 청소년 정서와 심성 발달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황성군민오케스트라 연주회는 하모니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연대와 단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건전가요제
(제15회) 2011년



황성군민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2022년)



횡성문화원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행사: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및
제1회 정기연주회

일시: 2021. 11. 12(금) / 19시
2022. 3. (금) 오후7시

장소: 횡성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주최: 횡성문화원

후원: 횡성군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 마음에 위로를 주고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횡성군민오케스트라는 음악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모여 2021년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나서며 횡성군민 문화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연주활동 등 폭넓은 음악적 활동을 목표로 한다. 횡성군민들 전체가 음악을 통한 협동심과 문화의 힘이 증진될 것이다.



횡성군민오케스트라

횡성문화원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 평생학습축제회호대회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은 한 때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훼농가들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의 따뜻한 소비의 릴레이 운동이다.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이 지역에서, 직장에서, 친구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확산되어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려줄 것이다. 박순업 횡성문화원장이 횡성청년회의소 강정길 회장님께 꽃 바구니를 전달하여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횡성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는 서예를 통한 문화 체험과 서예 글씨 내용의 심오한 교훈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대간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입상작은 횡성군청 갤러리와 횡성문화원 전시장에 전시된다. 2016년 제9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는 당시 한규호 군수, 박순업 횡성문화원장 등이 참여하여 격려하였다.



제10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



제5회 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2012년)
학생부 횡성초 2학년 김지훈 학생이
초등부 한글 서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횡성문화원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 평생학습축제회호대회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



횡성문화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챌린지 운동에 동참하였다.

횡성문화원은 횡성군 횡성읍 삼일새마을금고 고광열 이사장님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았다. 이에 박순엽 횡성문화원장은 따뜻한 나눔의 봉사로 2020년 2월 27일 횡성청년회의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강정길 회장님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였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횡성관내 직장 마을 학교 친구간 확산되어 더욱 살기좋은 횡성 실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횡성문화원은 지역사회문화사업으로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제10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가 2017년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되었다. 군민들의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서예예술의 저변확대와 신진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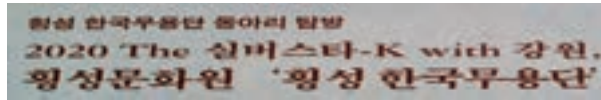
또한 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남녀노소 모두 서예에 정진하고 마음 집중력을 기르며 한문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제10회 평생학습축제 회호대회



황성문화원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시상식 2020년

실버스타-K 강원
시상식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시상식

강원도문화원연합회(회장 류종수)는 2020년 춘천문화원에서 The 실버스타 K with 강원시상식을 열고 총 10개팀에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참가대상은 시군 문화원 문화학교 및 문화원 회원, 문화 동아리이다. 실버세대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장수와 기술은 찰떡 궁합이다. 시니어 세대에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실버스타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황성 관내 모든 어르신들은 실버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황성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실버스타가 될 때 황성군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황성문화학교 서예교실, 어르신풍물 교실, 한국무용, 실버에어로빅 수강생 대부분이 시니어로 청춘을 다시 한번 살고 있는 강인한 실버스타인 셈이다.



횡성문화원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시상식 2020년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애국의 고장 횡성
문화의 고장 횡성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도 시상식

행사 :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도 시상식

일시 : 2020. 11. 09 (월) 11: 30

장소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내용 :

횡성 한국무용단 동상 수상

실버세대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어르신들의 용기와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횡성 한국 무용단 버꾸춤 공연에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상 트로피를 수상하였다.



횡성 한국 무용단
강원 동상 트로피

강원도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The실버스타 with 강원 막이 올랐다. 횡성문화원 횡성 한국무용단은 평소 김영아 강사와 한국무용단 수강생들이 횡성관내 지역축제에 축하공연을 많이 하였다. 횡성 한국무용단은 준비를 꾸준히 하여 호남우도 농악놀이에서 탄생된 버꾸춤을 공연하였다.

버꾸춤은 버꾸놀이를 무대에 맞게 창작무로 만들면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춤이다. 횡성문화원 횡성 한국무용단은 실버스타 k with 강원 경연대회에서 동상 트로피를 받았다.

횡성 한국 무용단
버꾸춤 공연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2017, 2018)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 인사말



박순업
황성문화원장

무술년이 저물고 기해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결산하는 연말에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황성문화원은 2018년에 문화학교 14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제 종강을 맞이하여 발표회 및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활기찬 삶을 엮어가고 행복을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년간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인 훌륭한 작품을 전시해 주신 여러분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능기부로 1년간 봉사해주신 문화학교 강사님들과 황성문화원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발표회 공연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14일(금)
초대일시: 2018년 12월 14일 10시
장 소: 황성문화원 발표회장
주 최: 황성문화원
후 원: 황성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 서예교실(한글) 2018

김해동 지도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강원서예대전 운영위원장(현)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신사임당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제11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최우수 1명, 우수 1명 특선1명
제42회 김생서예대전 입선 3명, 운곡서예문인화대전 특선 6명
제28회 강원서예대전 특선 4명 입선 2명

수강생



곽운규, 김동훈, 김승진,
양해권, 신호균, 박규숙,
윤연호, 원종옥, 유희남,
장근수, 전석희, 최승오



문화학교 학습 효과

- 소질계발, 재능기부 학습
- 집중력 및 고독력 해소
- 문제 해결력 강화
- 의사소통능력 증진
-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
- 인간(대인)관계 증진
- 평생 학습 역량 효과
- 소망하는 꿈의 실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2) 서예교실(한문) 2018

천금용 지도강사

제11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특선 2명 입선 2명 제16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특선 1명, 입선 1명
제8회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한문부문 특선 1명, 입선 1명
제13회 대한민국 남동미술대전 특선
횡성문화원 서예교실 (한문) 지도강사

수강생



고한석, 김정희, 변석조, 송시화, 유정규, 신영순,
원종옥, 윤광한, 이기환, 이영미, 이영용, 연제윤,
이주호, 이태림, 정창면, 최정규, 이덕주, 차병숙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3) 서예교실(문인화) 2018

천금용 지도강사

제11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특선 1명, 입선 1명
 신사임당미술대전 추천작가, 소치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열린서예대전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횡성문화원 서예교실(문인화) 지도강사

수강생



김종인, 유정규, 송시화, 이기환, 정창면, 차병숙
 최인식, 최정규, 최창은, 한영주



지도강사
 천금용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4) 동양고전교양교실 2018

김인규 지도강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사서학과 예절학 수료
동 대학원 삼경과정, 유럽 지도자 과정 이수
전 강원도 향교재단 이사장, 황성향교 전교
황성문화원 동양고전 교양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김승규
류동연
성기순
심상철
이병곤
이종률
전준표
조윤진
조창현
한상윤

동양고전 교양교실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5) 어르신풍물교실 2018

김혜숙 지도강사

전국평생학습사물놀이경연대회 최우수상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최우수상
 중국 린하이시 문화교류 초청 공연
 횡성문화원 어르신 풍물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권정순, 김영애
 박미현, 신원옥
 양순분, 이상선
 유정자, 이명자
 이순옥, 이연옥
 정원영, 정춘남
 최순녀, 최영자

사물놀이 공연은 흥이 나고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까지 이루지는 장단(굿거리, 세마치, 자진모리) 공연예술이 감동적이다.



지도강사 김혜숙

중산층의 기준

한국 : 재산 학력 직업 신분 자동차 배기량 월수입
 유럽 : 실용 능력(악기 연주, 외국어 능력, 요리 자격증, 해외여행 경험, 각종 자격증 취득, 버킷 리스트 달성)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6) 국악(판소리)교실 2018

박양순 지도강사

제3회 세계민속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최우수상
제26회 강원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장려상
2008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횡성문화원 국악(판소리)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김순인
김윤희
김혜림
문영선
박성건
이삼량
이춘화
조영희
조정희
조창현
최병순
한경옥
허 정



지도강사 박양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2008년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8년 학습성과

· 제3회 세계민속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최우수상
· 제26회 강원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장려상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7) 한국무용교실 2018

김영아 지도강사

윈터댄싱카니발대회 금상
 2018 댄싱카니발대회 은상
 2018 대만 타이중 국제댄싱 카니발 초청공연
 강원도 지정 김영아 전통예술단장
 한국건강과학연구재단 우리춤체조 원주 횡성 지부장
 횡성문화원 한국무용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김영미
 김영순
 김채주
 남우자
 오연희
 유성례
 이승자
 장인선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8)
가야금 교실 2018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

현대 중산층의 기준은 악기 연주 능력이다.

이영 지도강사

강원감영국악예술단 예술감독
선화예술고등학교 지도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예술전문사 졸업
황성문화원 가야금 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곽민정
권오순
김영미
김인자
김진미
김채주
남궁숙
박순자
이윤정
최순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9) 실버에어로빅교실 2018

조미경 지도강사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단체 어르신부 1위, 개인 최고령상
2018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 대상
한국에어로빅협회 강원지역 본부장
강원도에어로빅협회 전무이사
에어로빅체조 국제코치, 국제심판
대한에어로빅 협회 이사
횡성문화원 실버에어로빅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강인원
권오송
권혁선
김숙열
김영순
김옥자
나인숙
박종춘
방순자
안문자
엄길자
원희숙
유성례
윤순옥
이숙자
이승자
장영희
진금재
최정아
한기영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0)
우쿨렐레 2018

인생악기 우쿨렐레
현대 중산층의 기준은 악기 연주 능력이다.
악기 연주 능력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을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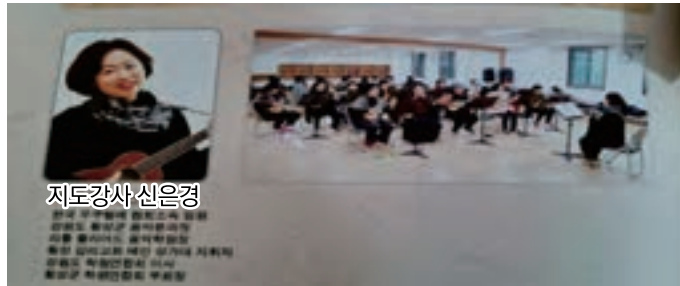
신은경 지도강사

한국 우쿨렐레 협회소속 임원. 강원도 황성군 음악 분과장
리틀 줄리어드 음악 학원장
황성 감리교회 메인 성가대 지휘자
강원도 학원연합회 이사. 황성군 학원연합회 부회장
황성문화원 우쿨렐레 지도강사

수강생



강연숙
강주연
권영숙
김옥선
김정미
김정예
김준섭
노상옥
박경숙
이종은
임란식
홍근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1) 사물놀이교실(야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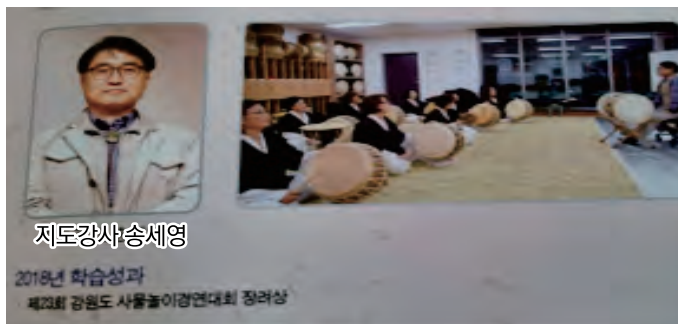
송세영 지도강사

전 횡성 춘당초등학교 교장
 횡성 창림초등학교 교장 역임
 횡성문화원 야간반 사물놀이반 강사
 2018년 학습 성과:
 제23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려상

수강생



김미연
 김정옥
 김혜숙
 유윤희
 이경순
 이말향
 조연옥
 지혜숙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2) 색소폰(야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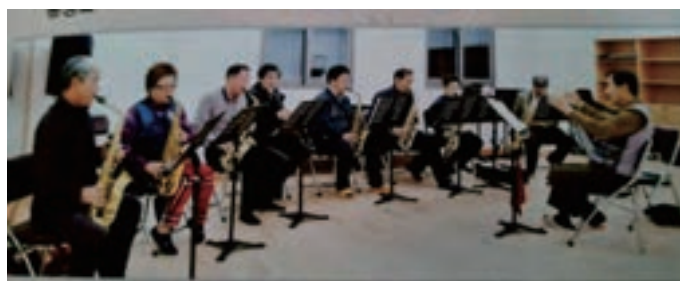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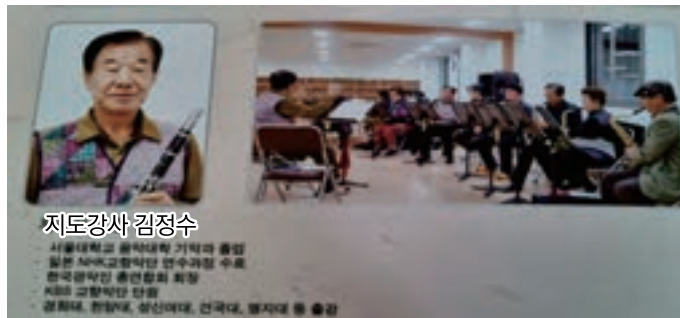
김정수 지도강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일본 NHK 교향악단 연수과정 수료
한국관악인 총연합회 회장. KBS 교향악단 단원
경희대, 한양대, 성신여대, 건국대, 명지대 등 출강
황성문화원 색소폰(야간) 지도강사

현대 중산층의 기준은 악기 연주 능력이다.

수강생

김상호
안형준
윤경석
정학식
홍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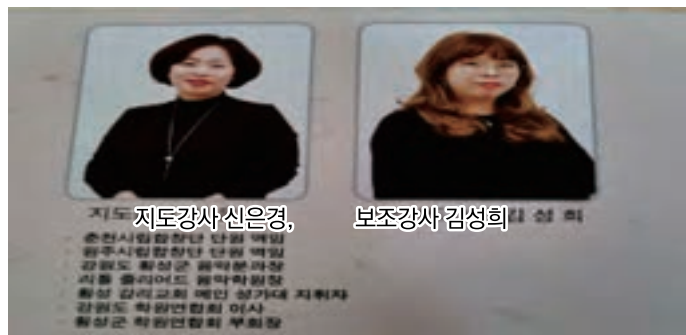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3) 합창교실(야간) 2018

신은경 지도강사

횡성 감리교회 메인 성가대 지휘자
횡성군 학원연합회 부회장.
강원도 학원연합회 이사, 리틀 줄리어드 음악학원장
강원도 횡성군 음악분과장. 원주시립합창단 단원 역임
춘천시립합창단 단원 역임
횡성문화원 합창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강복남
강성귀
곽운주
권향란
김수환
김순남
김순자
김영상
김영옥
김진례
김태순
박군자
박선숙
박순희
송순영
안영민
원정숙
이경희
이명희
이수연
이은희
이현무
채수형
현은자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4) 난타교실(야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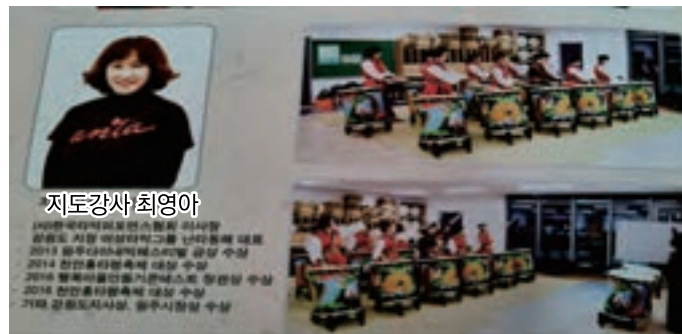
최영아 지도강사

강원도지사상, 원주시장상 수상. 2016 천안흥타령축제 대상 수상,
2016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장관상 수상, 2013
원주다이너믹페스티벌 금상 수상
강원도 지정 여성타악그룹 난타동해 대표
(사)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이사장
황성문화원 난타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김복기
김승례
김정순
박경숙
박경옥
장인선
정숙애
정옥분
한동순
황인자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2018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999년 9월 21일자로 문화예술진흥 및 보급을 위해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2000년 제 1기 문화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로 18번째 문화학교를 맞이하여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횡성문화원의 사업 중 문화학교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횡성문화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은 평생학습 기회의 폭이 넓어 이에 참여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고령화 사회에 의미있는 일이다.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분야에 정진하는 것은 자긍심과 자아실현에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횡성문화원, 평생교육관, 여성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자신의 소질개발 기회가 많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된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수료증 수여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1) 서예교실(한글) 2023

주희금 지도강사

문학박사(문자조형 전공)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공무원미술협회의 초대작가,
한국서가협회 강원지회 초대작가,
한국서예 문인회대표작가협회 회원, 갈물 한글서예회,
늘샘회 회원, 한국서학연구소 회원
제31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서예, 문인화미술대전 입선 1명
제17회 전국서예대전 휘호대전, 특선 1명 장려상 1명



수강생



강남원
곽운규
양해권
윤연호
이성재
이영옥
전석희
정운창
최종식
홍영숙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2) 서예교실(한문) 2023

천금용 지도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열린 서예대전 초대작가,
 소치미술대전 초대작가, 신사임당미술대전 초대 작가.
 제33회 강원서예대전 특별상 1명 특선 2명 입선 10명
 제32회 경기도 서예대전 특선 1명
 횡성문화원 서예교실(한문) 지도강사



수강생



권오철
 김정미
 김현주
 변석조
 서석환
 송시화
 심상철
 오정자
 원종옥
 이기환
 이덕주
 이주호
 임영규
 차병숙
 최정규
 황승수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3) 서예교실(문인화) 2023

김기봉 지도강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심사위원 역임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미술협회문인화 분과 부위원
2023 강원서예대전 입선 1명
사비 서화 전국휘호대회 특선 1명 입선 8명
탄허 대종사 전국 휘호대회 우수1명 장려1명 입선 6명
황성문화원 서예교실(문인화) 지도강사



수강생



김귀화
김영상
김현주
오정자
유정희
이기환
차병숙
홍영숙



문화학교 학습 효과

- 소질계발, 재능기부 학습
- 집중력 및 고독력 해소
- 문제 해결력 강화
- 의사소통능력 증진
-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
- 인간(대인)관계 증진
- 평생 학습 역량 효과
- 소망하는 꿈의 실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4) 한국화 교실 2023

이정자 지도강사

문화체육관광부 위촉 문화예술명예교사
한국미술협회 상임 자문위원,
국내외미술단체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
부장관 표창 외 3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한국석봉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한국우수작가 초대전 48회 국외방문
전시. 횡성군 강림면 노구사당 노구할미 영정 제작
제7회 국제한얼문화예술대전 특별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특선 3명, 입선 7명
제15회 한얼문예박물관 특별전 특별상 2명, 특선 4명, 입선 4명
횡성문화원 한국화 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강종후
김영상
김영섭
임미녀
정숙철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5) 시조 교실 2023

김성수 지도강사

조선일보 신춘문예(1981년) 등단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수정시조 문학회 지도 고문
제8회 백수문학상 수상, 한국예총 문학예술상 대상
한국예총 문화예술상 대상
황성문화원 시조 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박기순
박성건
손 평
조윤진
진광수
구연백
이정례
홍정애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6) 어르신풍물교실 2023

김혜숙 지도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대상
 전국평생학습사물놀이경연대회 최우수상
 중국 린하이시 문화교류 초청공연
 횡성문화원 어르신 풍물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권정순
 신원옥
 안정희
 양순분
 윤혜정
 이광섭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7)

판소리 교실 2023

박양순 지도강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대한명인(홍보가)
횡성문화원 판소리교실 지도강사 역임



수강생



김미자
유명숙
이소영
이영숙
김순인
조창현
김혜림
한경옥
신정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8) 한국무용교실(기초/중급)

김영아 지도강사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한국건강과학연구재단 우리춤체조 원주 횡성 지부장
강원도지정 김영아 전통예술단장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퍼포먼스 재연 출연
2013 평생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함께 성장하는 대회(최우수)
횡성문화원 한국무용교실(기초반/중급반) 지도강사



수강생



강숙자
박정순
안정희
김영미
김영순
유성례
이기숙
이혜숙
최정순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9) 실버에어로빅교실

조미경 지도강사

대한에어로빅협회 강원지역 본부장
강원도 에어로빅협회 전무이사
황성 NAC 에어로빅 학원 원장
에어로빅체조 국제코치, 국제심판
대한에어로빅협회 이사
황성문화원 실버에어로빅 지도강사



수강생



권혁선
김봉순
김영순
김옥선
김옥자
김종화
김홍자
나인숙
엄길자
원희숙
유성례
이상예
이숙자
이연자
이정숙
장영희
조혜자
진태자
한기영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0) 가야금 교실 2023

이 영 지도강사

선화예술고등학교 강사, 강원감영국악예술단 예술감독
국악그룹 휘안 대표,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KBS 국악관현악단 협연 공연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다수 입상 경력
단국대학교 국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횡성문화원 가야금 교실 지도강사



수강생



권영미
김채주
노정현
이경호
이서영
이윤정
태사랑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1) 우쿨렐레 교실 2023

차현정 지도강사

우쿨렐레 1급 지도사
국제음악컨텐츠진흥회 정회원
황성문화원 우쿨렐레 지도강사
우천면 황성마루 작은 음악회 기획 및 연출
2023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함께 성장하는 대회' 본선 진출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

현대 중산층의 기준은 악기 연주 능력이다.

수강생



김홍자
전은수
전경자
권경자
김혜란
박현희
김인순
채경숙
김상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2) 생활영어 교실 2023

송혜영 지도강사

부산남중, 재송중, 백양중 반여중 24년 영어교사,
횡성여성회관 생활영어 강사,
수백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삼척원덕고등학교 2년 영어교사 근무후 퇴직
횡성문화원 생활영어 교실 지도강사

외국어 구사 능력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을 늘린다.



수강생



김재숙
민호기
엄순자
유정규
이현숙
조윤진
최옥섭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3) 사물놀이교실(야간)

김혜숙 지도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대상
전국평생학습사물놀이 경연대회 최우수상
중국 린하이시 문화교류 초청공연
황성문화원 사물놀이 교실(야간) 지도강사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4악기가 사물놀이이다. 농악판의 신명을 무대공연으로 한다. 공연자들 사이의 호흡과 에너지가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리듬 중심의 음악으로 역동적이고 즉흥적인 변주가 가능하다. 사물놀이는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의 연주 형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

사물놀이 공연은 흥이 나고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까지 어우러지는 장단(굿거리, 세마치, 자진모리) 공연예술이 감동적이다.

수강생



김윤정
류안희
박희선
유윤희
이명자
조영숙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4)
난타교실(야간) 2023

최영아 지도강사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이사장
강원도 지정 여성타악그룹 난타동해 대표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 금상 수상
천안 흥타령축제 대상 수상
전국행복만들기경연 농림수산부장관상 수상
강원도지사상, 원주시장상 수상
횡성문화원 난타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김복기
김혜정
박경숙
이유니
이정숙
장희선
정옥분
조순녀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5) 서각교실(야간) 2023

곽현주 지도강사

한국예총 현대서각 명인, 한국예총 영인정책집행위원
한국미술협회 전통공예분과 이사
한국미술작가협회 이사장, 국제평화예술협회 사무국장
강원전통예술협회 서각분과 회장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이사
황성문화원 서각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김대현
박 일
박찬주
서석환
오영경
유상철
이명규
이일환
장미화
조윤복
현택근
유경희
이현수



형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6)
색소폰교실(야간) 2023

김종은 지도강사

비바색소폰 앙상블 지휘자
칸타빌레 앙상블 단장
원주 비바팝스오케스트라 지휘자
형성문화원 색소폰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심성식
조원문
김관용
이광섭
김영상
최영주
문종생
차순옥
이관우
허만봉
주운석
임태숙
장현석
임현광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7) 하모니카교실(야간) 2023

진영준 지도강사

강원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횡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 강사
문체부 강릉문화원 하모니카 예술강사
횡성문화원 하모니카 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구옥자
김은아
박만영
박흥옥
서재원
송민경
원종옥
이기숙
장순옥
최현식
홍정애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8)
기타교실(야간) 2023

김수용 지도강사

기타지도자 1급
갑천 둔내 청일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서원면 청소년 기타밴드 강사
횡성문화원 기타 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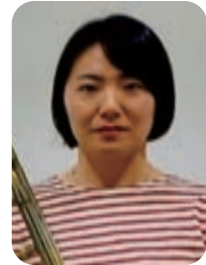
김기원
김은아
박해춘
신덕선
원도현
원배연
윤영우
이주희
정태명
장순옥
황정선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작품전시회(19) 금관악기교실(야간)

강지현 지도강사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음악교육 전문 지도자
황성고등학교 관악부 트럼본 지도강사
성북초등학교 한우리오케스트라 강사
황성문화원 금관악기교실(야간) 지도강사



수강생



박재룡
엄동운
이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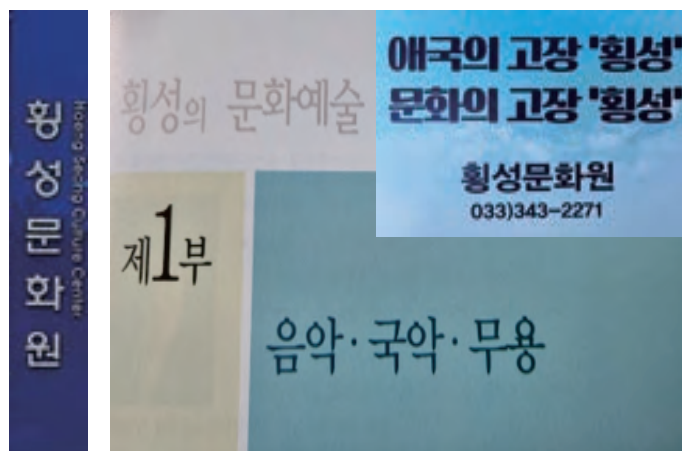
황성문화학교 강좌
학습 효과
지식 확장
창의성 자극
집중력, 기억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세대간 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건강증진, 노화방지
지역문화 계승
사회적 교류

작품전시 및 발표회

2023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서예(한글)	서예 한글 필법	주희금 강사
서예(한문)	서예 한문 필법	천금용 강사
서예(문인화)	문인화 필법	김기봉 강사
시조	창작 기초 및 실기	김성수 강사
한국화	한국화 기초 및 실기	이정자 강사
어르신 풍물, 사물놀이(야간)	장구 북 쟁가리 사물 기능	김혜숙 강사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강사
한국무용(기초반, 중급반)	한국무용 춤사위 실기	김영아 강사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강사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이 영 강사
우쿨렐레	우쿨렐레 연구기법	차현정 강사
생활영어	생활영어, 여행영어기초	송혜영 강사
난타교실(야간)	난타 기초 및 퍼포먼스	최영아 강사
서각교실(야간)	전통(현대)서각, 죽공예	곽현주 강사
섹소폰(야간)	기초 및 연주 기법	김중은 강사
하모니카(야간)	기초 및 연주 기법	진영준 강사
기타(야간)	기초 및 연주 기법	김수용 강사
금관악기(야간)	기초 및 연주 기법	강지현 강사



황성문화원 예술단체
문화 선양활동



황성문화원 사물놀이반 공연



황성문화원 한국무용반 공연

횡성문화원,
횡성 문화 예술(음악 국악)
전통 춤 공연, 한국무용 공연

문화학교
국악(판소리) 교실



횡성문화원 한국무용단



강사 김영아

2018 댄싱카니발대회 은상

2018 대만 타이중 국제댄싱 카니발 초청공연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퍼포먼스 재연 출연

2023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함께
성장하는 대회 최우수상

문화학교 한국무용단



한국무용단 강원도민체전 식전 축하공연,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전국대회 금상,

횡성군민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출연 횡성군농아인복지대회,

횡성 판타지축제 열린문화마당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평생학습축제 횡성문화원 제반 행사 축하공연 외 다수

황성문화원 전통국악예술 대공연

허민영(트롯트 가수)

황성군 홍보 대사

전통국악예술 대공연



황성문화원 가야금반 (지도강사 이영) / 국악(판소리)반 (지도강사 박양순)
사물놀이, 어르신 풍물반(지도강사 김혜숙)

허민영 트롯트가수



황성군 홍보대사
황성군 황성읍 출생
황성 초중고 졸업
원주영서대학교 졸업

황성 출생 가수



이태현(트롯트)
김봉학(향토 가수)
허승희(향토 가수)

횡성, 우천 정금 문화마을 둔내 (석문리) 우밀 어러리타령

횡성 우천면 우밀
어러리타령
(우천, 둔내)



우밀 어러리타령



횡성 우천면 우밀 어러리타령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전참가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어러리타령

산석은 마두진이요
두만강수는 우마물아
남아이십 미평국이요
후세수청은 대장부라
아마도 이글 지은이 남이장군이 분명하지
물결은 출러덩 뱃머리는 일러덩
이내 당신은 어두루 갈라구 이배에 올랐소
새끼 백발은 꺾아 놓으면 끈으나 씨지
인간 백발은 늙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횡성 어러리 타령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얼었다가 녹아지니 봄철이로구나

우밀은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횡성 우천면 정금마을에 만경드레(두레) 품앗이 제도가 있다. 마을의 70여 명 농사꾼들이 모여 함께 논을 맨다. 일이 끝나면 농악을 치고 부인들이 장만한 음식을 내놓는데 이때 흥얼거리고 구성지게 부르던 노래가 어러리 타령이다. 우밀 어러리타령은 논과 밭에서 두레일을 하면서, 나물을 뜯으며 애창되었던 노래이다. 겨울철은 나무꾼들이 산에 올라 부르기도 하고 마을 행사 때 술 한잔 하며 젓가락 장단으로 한 가락씩 뽐기도 했다. 한편 우밀 어러리는 나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우천면 농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리가 우밀 어러리타령이며 정금리에서 전래된 민요이다. 횡성은 아라리를 어러리라 부른다. 둔내면 단허리 소리(논매는 소리) 우천면 목도소리(별목하면서 내는 소리). 횡성 어러리타령, 우천면 풀써는 소리 종달이 노래, 시집살이 노래, 달풀이 노래가 있다.

아라리 **→** 횡성 **→** 어러리

횡성

정(情)과 한(恨)의 소리

팔자 타령

세살 먹어 어머니 잃고 다섯살 먹어 아버지 잃고 삼오십오 열다섯에 시집이라고 갔더니만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총각과부가 웬말이나 얼씨고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꽃은 피어 화산되고 잎은 피어 청산되어 꽃꺾어 귀에 걸고 잎 뜯어서 입에 물고 산에 올라 들구경하니 질 가는 처녀가 질 못간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횡성의 신세 한탄하는 소리가 많다. 한탄요(恨歎謠)는 시집살이 노래였다. 서원면 옥계리 토박이 서기만님의 구성진 한맺힌 팔자 타령이 인상적이다.

우천면 목도 소리

내리막길 나온다. 이영차 어이 앞머리를 허이 이영차 허이 슬슬돌려 허이 이영차 허이 허영차 하자 이영차 허이 만수갑산 봉황새 이영차 허이 새소리 들리네 이영차 허이 발이 빠진다 허이 이영차 허이 허영차 하여 이영차 하여 허영차 하여 이영차 하여---
-횡성 산판의 별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오야지 목상의 움막에서 추위, 허기를 이겨내며 목도소리를 흥얼거리는 구슬픈 한(恨)의 노동요 소리였다.



논메는 소리

어화 열신 단휘리야 기러기떼 나르듯이 어화 열신 단휘리야 질머리를 따라가며 어화 열신 단휘리야 옆의 사람 눈치보며 어화 열신 단휘리야 한 칸닫고 한칸 찍고 어화열신 단휘리야 횡성 둔내의 노동요이다.



종달이 노래

아침씨가 깨놓고 날보고 깎다고 지글지글 노글노글
아침씨가 깨놓고 날보고 깎다고 지글지글 노글 노글
---황금빛 종달이는 푸근 5월 청아한 목소리를 뽑아 올린다. 종달새 노래 끝나자 목청좋은 쟁기꾼 횡성 서원면 박춘자씨는 소몰이 소리를 뽑아 올린다. 경쾌하고 따뜻한 정감이 흐르는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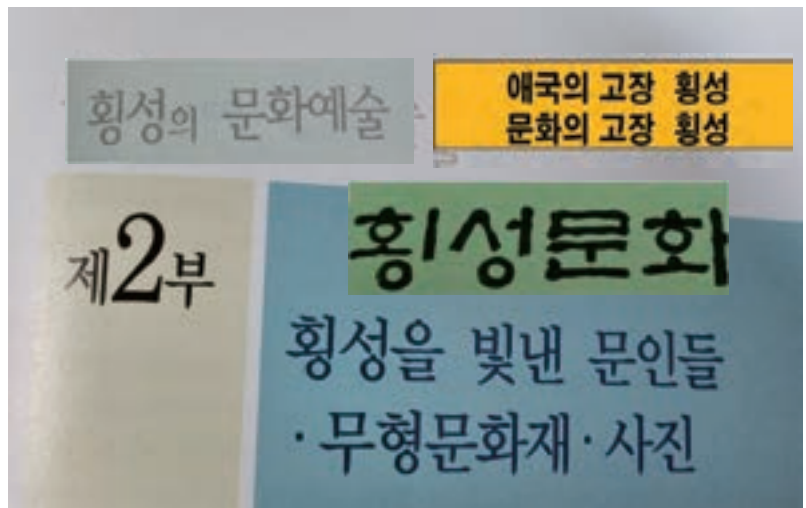
시집살이 노래

시아버지 죽었다고 엉덩이춤을 쳤더니 왕골자리 다 떨어지니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었다고 좋다구나 했더니 보리방아 물 쥐놓고 선 생각이 나네 임보러 간다고 빗었던 머리 돈 한 푼 바람에 사슬이 뒀네---횡성군 우천면에서 13세에 초원리로 시집온 권춘옥 할머니 노래소리가 끝이 없다. 소리가 아니라 지나온 한 평생 애환의 편린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횡성문화 창달

(문인, 무형문화재, 사진)

문화가 국력이다 문화 강국, 문화 대국
문화 강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횡성문화원은 지역 거점 문화공간, 사랑방이다



횡성 도자기 장인 호봉 장송모



한얼문예박물관 관장 이양형

황성 문화 예술 단체

황성문화예술

행복 담은 **황성**

황성문화원 / 황성문화관광재단 / 한국예총 황성지회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 황성문학회 / 황성 시 낭송 예술원

문화와 예술의 도시 황성이다.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황성이다.
고착화되지 않는 황성의 정체성 실현이다.



황성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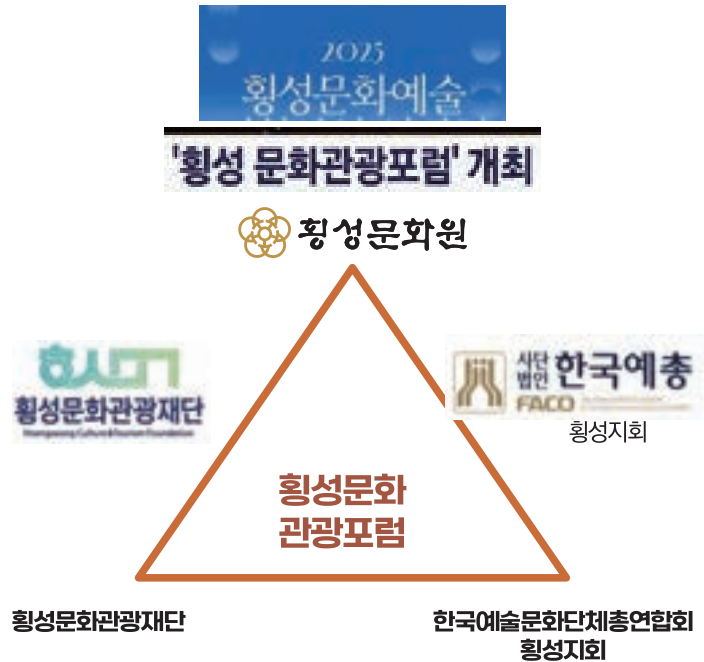


황성아트센터



황성문화체육공원

횡성 문화 예술 단체 (횡성문화 포럼)



군정 목표: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횡성문화원, 횡성문화관광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횡성지회는 문화포럼을 연다.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의 문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횡성문화를 발전시킨다.



(사)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횡성지회(횡성예총)는 2021년 8월 30일 한국문인협회 횡성지부, 한국국악협회 횡성지부, 한국미술협회 횡성지부 등3개 지부가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하였다. 2022년 6월 한국음악 협회 횡성지부(지부장 이택성), 2023년 3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횡성지회(지회장 김현수)가 회원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횡성예총은 모두 5개 회원단체에 회원수 약 500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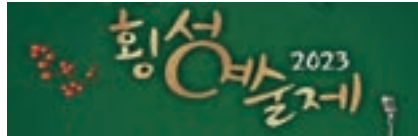
한국예총 황성지회 5단체

황성예총

황성국악협회
황성문인협회
황성미술협회
황성연예협회
황성음악협회



정재영 소설가
한국예총 황성지회장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황성국악협회



황성문인협회



황성미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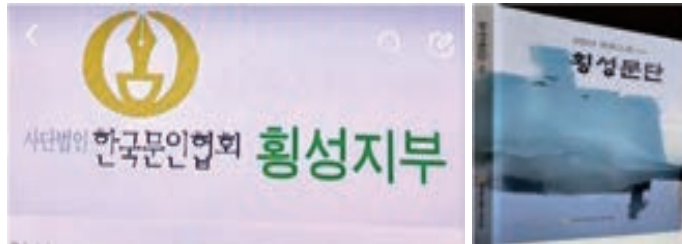
황성연예인협회



황성음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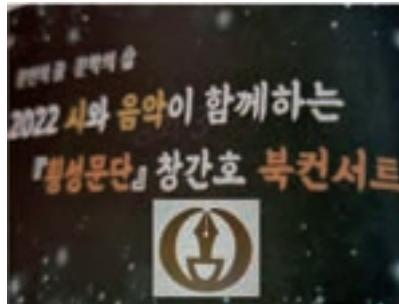
횡성문인협회

문학은 인문정신이다. 인문정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사랑 <후마니타스>이다. 즉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정신에서 구현된다.



횡성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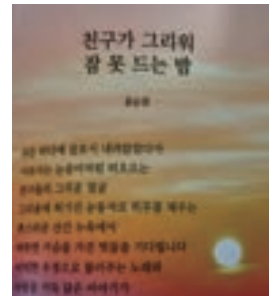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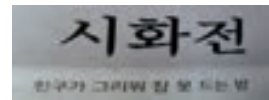
횡성문단 창간호
북콘서트



2022년 7-11
인문학 강좌 수필, 소설
2023. 5. 10
횡성문인협회 문학기행
2023. 4-11
횡성문인협회 명사초대
인문학 강연
2023. 11.23
횡성문인협회 북 콘서트
시와 인생(삶 그 고귀함)
횡성문단 2호 발간



횡성문학



황성문인협회 / 황성문학회

황성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황성문단



문학을 하는 회원들의 상호간의 문학 콘텐츠 공유와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황성 지역의 작가들에 의해 2009년 한국문인협회 인준을 받아 황성지부가 설립되었다.

황성문학회



황성문학의 밤(2024. 6. 13)

호봉 장송모의
작품 활동

장송모 도자연구원은 호성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빙열 백자 완성, 조선 왕실 도자기 재현, 도자기 약 2,000점 직접 체험, 전통 도자기, 청자, 백자 등 다양한 작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명소.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기능보유자
호봉 장송모 전시관, 실습실, 과거 연간 수천명의 도자기 연수 교육장

고려청자 조선백자 맥을 오늘에
되살려서 우리생활 속 조상의 숨
결을 뿌리내리고 전통공예 맥을
잇는다.

역대 이승만,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다.
공근면 창봉리 옛 창봉초등학교
터이다.



조선왕실 백자 도자기
황성 지역의 백토(白土)
재료

보이지 않고 새롭게 흐르는
황성 문화의 창출이 위대하다.



빙열백자(氷裂白瓷), 진사운용품 백자대호
조선 왕실의 백자 도자기 재료가 황성 백토(白土)였다.

과거 조선시대 왕실의 화려한 도자기 공급 관청인 사옹원(司饔院)에서 조선의 백자 제작에 사용한 도자기 재료는 우리 자랑스러운 황성(橫城)의 백토(白土)였다. 공근면 도곡리에 도자기 굽는 터가 있었고 장송모도자연구원에서 조선왕실 백자를 재현하여 제작한 바 전국 방문객들이 몰렸다.

최근 황성군민과 함께하는 조선백자 만들기 체험 행사가 황성군 강원도자문화연구회에서 열렸다. 물레 체험, 초벌 페인팅, 조선백자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장송모도자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빙열백자는 황성 백토와 시목(柴木)으로 구워낸 호 봉 장송모 선생의 숨결과 혼을 불어넣은 백자로 조선시대 사옹원에 상납되어 왕실 어기의 백자를 재현하였다.

황성의 백토(白土)



황성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조선 백자

한얼문예박물관은 한국화 거장 남농 허건 선생님의 제자인 부부 예술가 동현 이양형 관장과 설매 이정자 부관장이 설립하였다. 그들의 작품과 다양한 유명 화가들의 훌륭한 작품을 전시하는 횡성의 숨은 박물관으로 한국화, 문인화 고 문서, 고서화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문예 유물 중심의 예술 공간이다.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폐교된 용둔초교를 이용하여 부부 예술가 동현 이양형 선생과 설매 이정자 선생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과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전문 1층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폐교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전시실 모든 작품들의 예술성이 높아 방문객들의 찬사가 쏟아진다.

총 6개 전시실(부채, 고서화, 고문서, 서양화, 유화, 북한 작품, 석조각상, 예술작품) 교육부의 교육 기부 우수인증 기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얼문예박물관은 예술 작가들 사이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예술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횡성 한얼문예박물관



작품 전시실



현장 문화체험학습



횡성 한얼문예박물관
제10회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 수상자

횡성 봉사단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횡성에는 봉사단체가 많다. 봉사의 왕은 자원봉사자이다. 자원봉사는 횡성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의 샘터가 된다. 나는 자원봉사자라서 행복하다. 한편 횡성군과 중국 린하이 양 도시는 2025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여 20년 교류와 우정 및 우호증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동반과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한중 문화교류를 하며 새로운 행복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



사진 (백합영상회,
횡성군청 사진동호회)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이다.

1983년 2월 백합영상회
창립(초대 회장 조경택)

백합영상회는 1983년 창립하였으며 40년동안 횡성 사진동호인들의 모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단체로 사진작가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기술 및 실력배양을 통한 각종 연수와 세 미나를 개최하여 횡성 사진 발전에 애쓰고 있다.



2005년 9월 횡성군청
사진동호회 창립
(초대 회장 이창진)

횡성군청 사진동호회 흐름 은 사진을 좋아하는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수 동호회로 활동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 출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횡성 연예예술인협회 공연

문화가 국력이다 문화 강국, 문화 대국
문화 강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청춘밴드
윈드오케스트라 팬텀
위낭소리밴드
비바색소폰 앙상블
네줄 사랑
홍반장밴드
시골베짱이
색종이밴드
선사인밴드
지역가수 (김현수 외)



(사)한국예총 횡성지회 주최

횡성한우축제
청춘밴드
공연



섬강으로 가요,
뮤직 페스티벌
(2023.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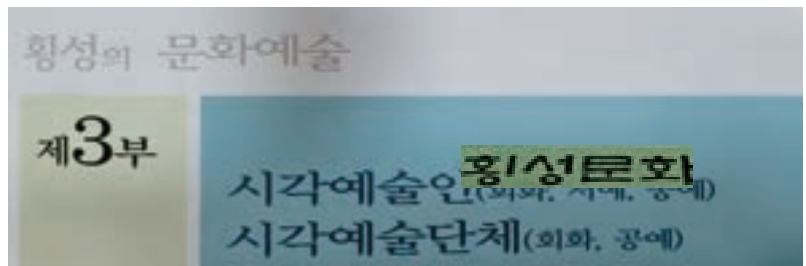


횡성문화원
(시각예술인, 시각예술단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백범 김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백범 일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白凡 金九)



횡성문화원은 지역 거점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보이지 않고 새롭게 흐르는 횡성문화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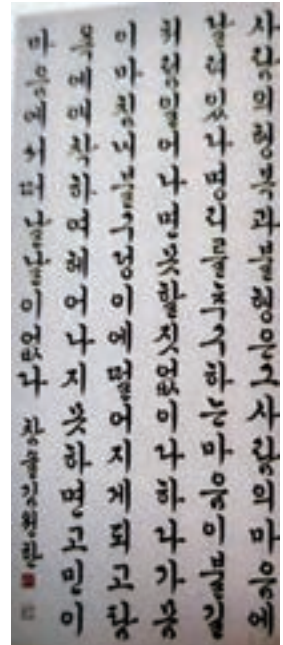
오후빛 횡성호 -진미숙



생활공예품 복조리



故 김원한 작가 채근담 글
제6회 강원서예대전 특선



시각예술 문화
(회화, 서예, 공예)

시각예술인(회화)

시각예술인(공예)

시각예술단체(공예)

시각예술인(서예)

시각예술단체(회화)

사진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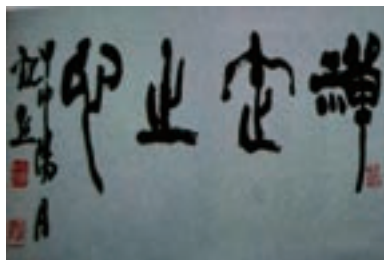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김영숙 신대리 가을, 2021



조동선 드리워지다, 2018



관목 김현중 선정지심(禪正止心), 2002



최미자 혼돈의 시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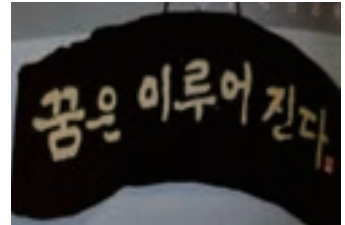


황성 가천리 짚물 공예품



진광수 겨릿소, 2024

시각예술 문화
(회화, 서예, 공예)



박완규 회원 사진 1, 2



박완규 회원 사진 3, 4

- 시각예술인(회화) 권대영 외 26명
- 시각예술인(서예) 와산 김기봉 외 12명
- 시각예술인(공예) 미목 김태기 외 8명
- 시각예술인단체(회화) (사)한국미술협회
황성지부 외 7단체
- 시각예술단체(공예) 한국시각예술협회
황성지부 외 1단체



정대교 시간을 걷다



정대교 울림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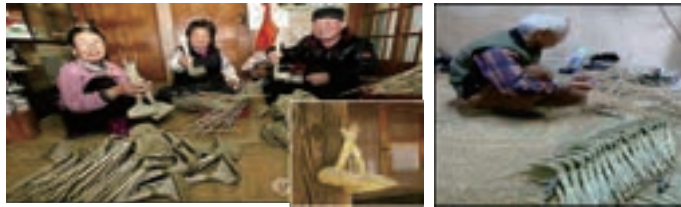
정대교 사랑 2022

청일 신대리 복조리 생활 공예 가천리 짚풀 공예품(60, 70년대)

황성 복조리 및
조릿대 생활
공예품 생산

강원도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60~80년대초 최고의 마을소득사업. 복조리 만들며 이웃사촌간 정을 나눔. 신우대 복조리 장인 솜씨가 뛰어나다.

1970년대 청일면 신대리에서 조릿대로 만드는 복조리는 매주 5톤 정도가 강원도 전역으로 팔려 나가 새해 모든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었고 복조리는 살림 밑천이 되었다.



현재 복조리 아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삼삼오오 모여
추억의 웃음꽃을
피고 있다.



가천리 짚풀 공예품
(60, 70년대)

황성말은 강림리가 한때 원주시와 영월군에 속해있던 까닭에 이들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라 그 이름이 붙여졌다. 강림리에 살고싶은 가천리의 가천리노인회에서 1960년대부터 짚풀공예품을 만들어 농가에 제공하고 선조 생활의 지혜를 황성군민과 관광객에게 일깨워준다.



멍(부리망)



코뚜레



또바리(따리)



짚신

II

PART

황성문화원의 황성 역사와 문화 고찰



횡성 역사와 문화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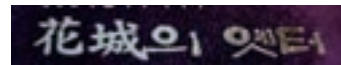
횡성(橫城) = 화성(花城)

인조5년 횡성지역 이인거가 난을 일으켜 횡성현(橫城縣)이 철폐되고 횡성을 화전, 화성으로 불렀다. 횡성 앞들을 '화성들' 이라 칭하였다.

횡성군민의 날:
6월 18일

〈학교 교가〉

횡성초등학교
화성 벌 푸른 숲은
우리의 자랑 성북초등학교
섬강 물 흘러 흘러
화성벌 살찐 곳 화성초등학교
어답산 정기받은 화성 옛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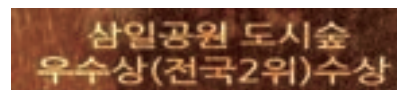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횡성을 화전(花田), 화성(花城)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횡성 구 읍지는 갑천면 화전리(花田里)였고 앞 벌판이 화성이었다. 따라서 횡성 구 읍지는 화성이다. 횡성 앞들, 화전리 앞들을 횡성이라 했다. 화성(화전리)에 횡성군 동헌(東軒) 향교 망복산(적군을 감시하는 초소), 감사 고개(감사는 관찰사, 현 도지사로 이 고개를 넘어 방문했었다), 부동리에 옥담(감옥 터) 중금리에 군량 창고가 있었다.

현재 화성유치원 화성초등학교 화성택시 화성목욕탕 화성로(도로 지명) 화성상회 화성식당 등이 있다. 화성의 옛터가 그림다.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는 골은골이 있다.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갑천면 화전리 출생인 독립운동가 최양옥 애국지사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화전리가 동헌 터라고 하면 갑천면 화전리는 과거 횡성군의 행정 정치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화전리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청정한 지역임을 자랑한다.



횡성의 현대 전경과 횡성 3.1 공원.
'가장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지정



횡성도읍의 백세성도(百世成都)

횡성군민의 날:
6월 18일

1895년 6월 18일 조선시대 고종 임금 때 우리나라 지방 개편 칙령으로 전국을 23부로 나누어 횡성현(橫城縣)에서 횡성군(橫城郡)으로 개편되었던 6월 18일을 해마다 횡성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횡성군의 건치연혁(建置沿革)에 옛 이름이 횡천(橫川) 어사매(於斯買) 황천(潢川) 화전(花田)이었다. 횡성의 풍속(風俗)을 바르게 세워 어른을 공경하며 농사에 힘쓰고 송사(訟事)가 없었다.

읍지(邑誌) 학문을 장려하고 실용적인 것에 힘썼다. 한규호 제41 43 44대 군수는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스스로 실행하는 운동 '미래청정 법인(橫城)'을 실천하였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형물 '몽초'는 다양한 생각이나 힘을 하나로 뭉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즐거운 게임 메시지를 담고 있어 횡성 군민 전체의 생활 원동력이 되었다. 민선8기 제46대 김명기 군수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에 군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횡성군청



한규호 군수의 군민단합
미래청정법인 횡성 건설



몽초



제25대
현영환군수

횡성군수의 군정목표(슬로건)

장신상 45대 군수 :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김명기 현 군수 :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

이 고장의 오랜 숙원인 橫城都郡 현대화를 애향하는 군민의 열망과 의지로 새롭게 정비 확충하고 백세번성을 기원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이 탑을 세우다.

1980년 12월 20일 횡성군수 현영환

역대횡성 군수현황 (郡政 역사 문화)

횡성현(橫城縣) 수령은 횡성현감(橫城縣監), 횡성현령(橫城縣令)이다. 횡성현은 1895년(고종32년) 횡성군으로 변경되었다. 읍선생(邑先生)은 관동지 권6에 역대 횡성 수령을 지낸 인물을 수록하였다. 16세기 중종대의 현감부터 기록되어 있다. 첫째 인물은 1529년(중종24년) 횡성현감으로 부임한 정구년(鄭龜年)이고, 마지막 인물은 1897년(광무1) 군수(郡守)로 부임하여 1899년(광무3) 체임된 유성원(劉聖元)이다.



1대 방흥범



2대 김동선



4대 이영배



5대 양기수



6대 함기성



9대 장봉후



10대 이종호



11대 방희석



12대 김병규



13대 김재기



14대 박석권



15대 김원희



16대 김승길



17대 김형기



18대 유은재



19대 정기훈



20대 주우영



21대 정기훈



22대 전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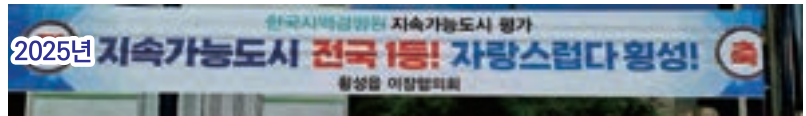
23대 김오영



24대 김운기



역대횡성 군수현황
(郡政 역사 문화)



제25대 현영환



제26대 이형준



제31대 조원혁



제32대 김세기



제33대 권혁신



제34대 김세기



제35대 유재규



제36대 김남성



제37대 장순일



제38-40대
조태진



제41, 43, 44대
한규호



제42대 고석용



제45대 장신상



횡성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조선시대 역대 횡성 현감, 군수

횡성군읍지(橫城郡邑誌) 읍선생(邑先生) 항목은 역대 횡성 수령을 지낸 분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모두 197분의 횡성 현감, 군수가 역임하였다. 첫번째 인물은 1529년(중종24) 횡성 현감으로 부임한 정구년(鄭龜年)이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분은 1897년(광무1) 군수(郡守)로 부임하여 1899년(광무3) 체임된 유성원(劉聖元)이다. 횡성현은 1895년(고종32)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횡성군으로 바뀌었고 횡성 현감 또한 횡성 군수로 바뀐 바 있다.

정구년(鄭龜年) 기축년(중종24 1529)에 부임하고 임기를 채웠다. 유성원(劉聖元) 정유년(고종34, 1897)에 부임하고 기해년(고종황제 3, 1899)에 체직되었다.

송광순(宋光洵) 경술년(현종11, 1670)에 부임하고 신해년(현종12, 1671)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큰 송사(訟事)가 있으면 늘 송광순에게 맡겼는데 그 판결이 공명정대하여 지는 사람도 원한이 없었다고 한다. 횡성에서 현감으로 임기중에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사람됨이 엄정했다고 전하며 맡은 일에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한다.

최광순(崔光淳) 계미년(고종20, 1883)에 부임하고 같은 해 해미(海美)로 옮겼다. 횡성 현감으로 임기중에 만인산(萬人傘)을 받았다. 만인산이란 고을 백성들이 선정을 베풀 현감에게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바치던 물건으로 비단으로 만들었고 모양은 일산(日傘)과 비슷하며 가장자리에 현감과 유지들의 이름을 적었다.

조선시대 현감, 현령 수령 복식과 비단에 오색실로 수놓은 만인산이다. 수놓아진 이름 수의 규모에 따라 만인산 또는 천인산이라고도 한다. 최광순 횡성 현감에게 임금의 하사한 선물이다. 사무당(使無堂)은 현감이 권위없이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의미로 동헌이나 동헌 별채를 가리킨다.



만인산(萬人傘)

역대 횡성군의회의장 현황



제1대(전) 의장 이일영
1991. 4.15-1993. 4.14



제1대(후) 의장 이일영
1993. 4.15-1995. 7.6



제2대(전) 의장 정우화
1995. 7.7-1996. 12.31



제2대(후) 의장 원용식
1997. 1.1-1998. 6.30



제3대(전) 의장 이인원
1998. 7.1-2000. 6.30



제3대(후) 의장 함종국
2000. 7.1-2002. 6.30



제4대(전) 의장 박명서
2002. 7.1-2004. 6.30



제4대(후) 의장 조창호
2004. 7.1-2002. 6.30



제5대(전) 의장 김춘환
2006. 7.1.-2008. 6.30



제5대(후) 의장 윤세종
2008. 7.1-2010. 6.30



제6대(전) 의장 정명철
2010. 7.1-2012. 6.30



제6대(후) 의장 이대균
2012. 7.1-2014. 6.30



제7대(전) 의장 한창수
2014. 7.1-2016. 6.30



제7대(후) 의장 이대균
2016. 7.1-2018. 6.30



제8대(전) 의장 변기섭
2018. 7.1-2020.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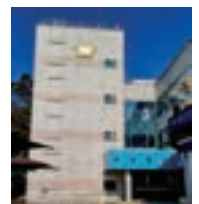
제8대(후) 의장 권순근
2020. 7.1-2022. 6.30



제9대(전) 의장 김영숙
2022. 7.1-2024. 6.30



제9대(후) 의장 표한상
2024. 7.1-2026. 6.30



횡성면사무소(1959년) 횡성현감 김지(金漬)

횡성군지 발간사 / 일제강점기 횡성장터

횡성현감 김지(金漬)

횡성 현감 김지 선정비
(橫城 縣監 金漬 善政碑)



공주 목사를 지낸 횡성 김지 현감으로 1540~미상) 횡성 군민을 위한 군정과 따뜻한 봉사를 행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횡성군지 발간사



“잊혀진 過去 再照明”

豊饒한 未來가 約束된 땅 우리고장 횡성의 人文과 地理를 3년여의 編纂作業을 거쳐 한권의 책으로 集大成한 郡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고을 고을마다 훌륭한 郷土史와 빛나는 傳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관심 속에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多幸스럽게도 郡誌編纂作業을 통하여 歷史의 그늘에 잊혀졌던 우리의 과거를 發掘하여 재조명하고 우리 郡이 현재를 整理하여 변모하는 橫城 참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198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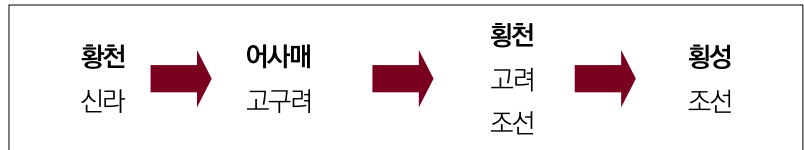
橫城郡守

柳在珪

일제강점기 횡성장터

횡성 5일장은 250년전 향시(鄕市)였다. 전통시장으로 동대문 밖에서 제일가는 장으로 전국적인 민속장이었다. 1919년 4월 1일 강원도 최대 만세운동 장소이며 일제강점기에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형성하려 했으나 횡성 상인들이 단합해 불매운동을 벌여 물리치고 횡성 상권을 차지하며 전통시장으로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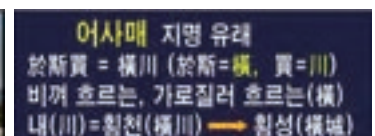
갑천면 화전현(花田縣)에 동헌이 있어 횡성군 중심의 고을

횡성은 섬강이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가로 횡 횡천(橫川)에서 횡성(橫城) 지명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 때 횡천 또는 어사매, 신라 때 황천, 고려 때 횡천이 되었다. 조선 태종 14년 횡천과 흥천의 발음이 비슷하여 횡성으로 최종 개칭되었다. 횡성 강 상류에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어 두꺼비 섬(蟾)자를 써서 섬강(蟾江)이 되었다.



두꺼비 바위

횡성을 북천리 고네이베루 입구의 산 중턱 바위틈에 위치한 약수이다. 고네이 베루는 횡성을 읍하리 구리고개를 넘어 춘천국도에 접해 있는 뒷내다리에서 북쪽으로 올라다 보면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흐르는 횡성천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고양이가 사투리인 고네라는 말을 쓴다.



횡성 섬강 줄기

황성구일현감(具湓縣監) **은가람길 조성**

황성 은가람길

조선시대 1658년(효종 9년) 황성 현감으로 부임한 구일(具湓, 1620-1695)의 주도로 읍하리-마산리 간 관개(灌漑)사업을 벌였다. 이에 구일은 1659년 황성보와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지역 가뭄과 홍수문제를 해결한 큰 공을 세워 1661년(현종 2년) 6품에서 4품의 벼슬에 올랐다.



섬강과 합류하는 전천(前川)은 안내로 '우리 원님(구일 현감)의 앞뜰 자랑' 이란 말로 언제나 회자되어 왔다.

황성읍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인 황성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까지 보전돼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후 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다. 2022. 4. 26.

관개이민물세불망비

관개이민물세불망비(灌漑移民沒世不忘碑)

조선 시대 효종(17대) 임금 때 구일 현감(縣監)이 부임하여 황성군 황성읍에 은가람길(은은히 흐르는 강) 관개 수로 13km 를 조성하여 수량이 풍부해지자 황성읍 전역에 풍년농사가 되었다. 효종과 숙종시대 문장가이며 좌의정을 지낸 이단하(李端夏)에게서 관개이민물세불망비 비문을 받았다. 가람은 강의 옛말이고 강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황성읍 은가람길을 조성한 후 황성군 9개 읍면 모두 관개수로를 조성하는 지시로 갑천 우천 북천 현천 지명이 생겨나고 황성군 전역이 풍년 황성이 되었다. 황성군은 은가람길 조성에 힘입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황성군은 은가람길 조성 기념으로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는 동화로 엮어 제작한 “황성 은가람길 이야기”를 초등학교 및 아동관련시설 87개소에 배부하였다.

한국 최초 사립학교 설립 횡성인 정현석

정현석

횡성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립학교이자 근대 민간 중등학교를 조선 고종 1883년 8월 28일 조정에 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덕원부사 박원 정현석이 설립하였다. 다시말해 한국 최초 근대적 교육기관이다.

원산학사는 1883년 8월 개항장 원산에서 화파 관료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개량서당을 확대해 설립한 학교이고 횡성인 정현석이 그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원산학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로서 한국 교육의 시발점이 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함경남도 원산에 세워져 있어 원산학사이다. 이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배재학당보다 2년 앞선 학교로서 초창기에 문예반 50명, 무예반 50명을 교육하여 산 현장 교육인 동시에 실용교육의 요람이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하였으며 성적 우수자들은 조정에 보고하여 혜택을 부여하였다. 한국 최초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가 다름아닌 횡성인 정현석에 의해 설립된 것이 자랑스롭다.

조선 중기문신, 학자 미수 허목의 황성 예찬

미수 허목 황성 도중에서 - 미수 허목

황성의 산골 때는 이월인데
꽃 피고 새 울고 봄 날씨 화창한데
봉우리 우뚝우뚝 골짜기는 휘도는데
푸른 솔 하얀 돌 시냇물도 맑구나
주민들 한가로워 장수하는 이 많고
마을 풍속 순박하여 다투는 일 없도다

본시 산중은 옛 뜻이 많은 것이라
시끄럽게 떠드는 서울 거리 같을라구
부생이란 바쁜 것 어느 때 쉬랴
이 곳 이르니 느끼는 정 더욱 많구려
언제나 시냇가에 논밭을 마련하여
장저 걸닉 생각하며 한평생 살아보랴



미수(眉叟)

눈썹이 길어 눈을 덮었으므로
스스로 호를 미수라고 함
허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할 수 있는 인물로 성리학자,
역사가, 시인, 화가로 다양한
그림과 붓글씨, 시를 남겼다.

조선 중기 문신, 학자
미수 허목(眉叟 許穆)의
황성예찬 글 중에서

안석경 삽교 호(號)에서
둔내면 삽교리 지명 유래

조선 숙종 임금 시절 문인이자 한학자였다. 축지법을 써서 횡성군 둔내에서 서울을 하루에 왕복하였다.

삽교 도력으로 침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변소에서 호랑이를 때려 잡아버린 엄청난 괴력이 있었다.

순흥안씨인 삽교 안석경은 1718년 충주 기흥의 쌍오곡에서 숙종, 영조대의 문인인 안중관과 고령 박씨 회년의 딸 사이에서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안석경은 축지법을 써서 하루만에 서울을 가서 점심을 먹고 서울 육의전에서 아내 비단 신발을 사서 선물했다.

하루는 청일 봉복사에 들러 주지스님과 대화 중 갑자기 경남 함천 해인사 불당에 큰 불이 났다고 벌떡 일어나 봉복사 뒷뜰 물 한동이를 주문을 외우더니 획 뿌렸다. 천리안으로 세상 일을 처리했다.

변소에 용변을 보다가 호랑이가 그의 엉덩이를 훑아 호랑이를 잡아 무릎에 끼고 용변을 끝냈을 때 호랑이는 질식을 했다.

그의 아버지가 눈동자에 핏줄이 심해 호랑이 눈썹을 태워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즉시 깊고 높은 산으로가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기인이었다.

주요 저술

삽교만록
삽교예학록
삽교지문
시경론
산수유기

황성새마을운동 **원선자 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운동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사업으로 1970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국가 주도의 지역 개발 및 근대화 운동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 하였으며 황성군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원선자씨는 황성군 새마을부녀회장으로 15년간 봉사하여 새마을 대통령 포장을 받아 귀감이 된다.



원 선 자
황성군새마을부녀회장

15년간 봉사
대통령 새마을 포장
공군면 새마을운동
최우수상

황성 새마을운동 **활동 현장** **(1971년)**



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횡성 IC 관광 안내소



횡성 문화관광해설사 기념 촬영

횡성군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횡성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 해설가이다.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횡성 지역의 역사적 장소나 유적지에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명실공히 횡성의 빛나는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홍보대사로 솔선수범하시는 횡성군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훌륭한 분들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이 인상깊다. 지역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고 향토애와 횡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태종대, 의병충, 풍수원성당, 3.1공원, 횡성댐 망향의 동산 등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곳곳을 안내하고 설명한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모교가 위치한 횡성 문화와 역사를 돌아보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기행문을 보며 감격하였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찬란한 횡성 문화를 빛내주는 위대한 분들이다.



윤병철, 신동석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횡성군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2019년)

한국 최초 국가 고조선 유물 횡성 출토/ 태기산 지역의 지명유래 역사

횡성 강림리 초기
철기 유적지 출토
잔 줄무늬 거울,
세형 동검(銅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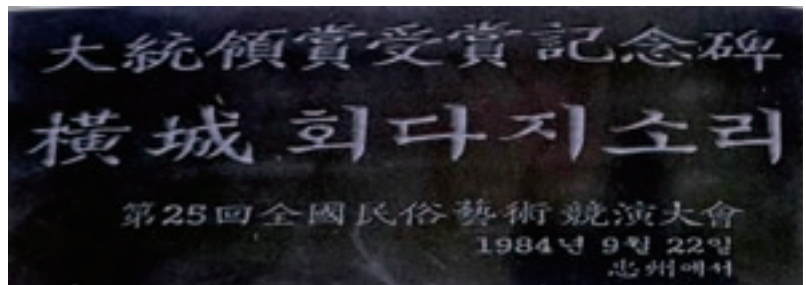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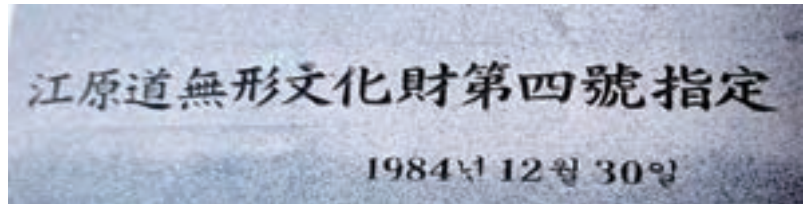
횡성에서 고조선 후기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횡성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4258년전)역사, 문화를 반영한다. 횡성에서 출토된 세형동검과 거울은 보존상태가 좋고 특히 잔 줄무늬 거울은 문양이 정교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아서 고조선 청동 제조 기술 수준이라고 극찬한다. 세형동검은 고조선 중후기에 제작되는 동검의 형태로 초기의 비파형 동검보다 폭이 좁고 가늘다는 특징이 있다.

태기산에 태기산성비가 있다. 군사들이 피 묻은 갑옷을 씻었다는 갑천, 태기왕이 옥새를 잃어버린 옥산대, 왕의 몸이 세 동강 난 삼둥거리, 병사들을 훈련시킨 병지방, 귀족이 낚시하던 낙수대와 왕의 간이 침대 어탐을 놓고 쉬었다는 어탐산, 적군에 쫓겨 말 안장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도망간 고개 질매재. 둔내면 화동리는 군 식량이 부족하자 골짜기에서 뱀씨를 구해 농사를 짓도록 해주어 화동리 마을 이름에 벼 '화(禾)'자를 쓴다. 지명 하나 하나가 모두 역사적 문화적 유래가 있어 교훈을 준다.

횡성 회다지소리 축제 (횡성 역사문화유산)

강원도 횡성
지역기록문화재

문화체험관, 장례문화 전승 보존회



횡성군 우천면 정금문화마을 주민들의 횡성회다지소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4호 횡성회다지소리는 양중하 단장 중심으로 89명 회원들이 강원도대표로 출연하여 1984년 충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매년마다 횡성군에서 횡성 회다지소리 축제를 실시하여 장례문화 전승 보존에 크게 이바지한다.

1984년 횡성회다지소리가 대통령상 수상 이후 1987년 태풍문화제가 시작되었다. 횡성을 정암리에 상여 보관하는 곳인 상여집, 굿집이 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경되며 장례가 많이 변했다.



횡성댐과 횡성 호수 둘레길 역사

횡성 호수 둘레길

2000년 횡성댐이 완공되면서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리 수물민 256 세대 938명이 오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다. 그간 수물민들은 향우회 모임을 갖고 고향 마을을 반추했다. 그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함께 살갑게 살았던 망향의 동산에 모여 망향제를 올리고 정들었던 이웃들과 서로 만나 눈물겹게 그리운 정들을 쌓는 시간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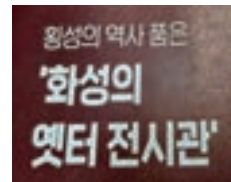
횡성 호수길 5구간은 여유로운 호수 풍경과 건기 좋은 둘레길이다. 총 31.5 km 길이의 둘레길로 아름다운 횡성호와 주변 산세를 따라 6개의 테마코스, 순환형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횡성 호수 둘레길은 전국 10대 호수 둘레길 명소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연중 찾아온다. 화성의 옛터 전시관에는 사진자료(수몰되기 전 풍경, 화성초등학교, 주민생활 모습) 생활물품, 농업 도구 등이 있고 마을 모형을 재현하였다.



횡성 호수길

둘레길 31.5km 6 코스 구간 조성 전국 10대 호수 둘레길 명소 지정

망향의 동산



횡성역사
(애국 + 한우 + 더덕)
축제 문화

1981년 태풍문화제 시작 → 1984년 횡성 회다지소리 대통령상 수상
→ 1987년 태기문화제 시작 → 2004년 횡성한우 축제 시작

애국의 고장
횡성(橫城)



대한민국 최초
명품인정 한우



횡성한우, 18년 연속 대한민국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횡성 명품
일품 더덕



태풍(태기)문화제, 안흥찐빵축제 횡성 8대 명품



제 11회 태풍문화제(1991년)



제23회 태기문화제(2009년)

2004년 횡성한우축제 이전의 태풍문화제는 횡성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통축제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횡성주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태풍문화제 명칭도 태풍루의 누각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국태민안 시화연풍(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며 계절과 기후가 조화로워 풍년이 된다)에서 태풍루가 유래되었다. 횡성군의 전통과 문화를 기리는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통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안흥찐빵축제는 매년 10월 열린다. 횡성 8대 명품은 횡성한우, 횡성절임배추, 안흥찐빵, 어사진미, 횡성잡곡, 횡성더덕, 횡성토마토, 횡성사과 등이다. 횡성 8대명품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웰리힐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 유소년 야구대회는 공근 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된다.

횡성 7대 명품 + 사과 = 횡성 8대 명품



둔내토마토축제, 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

둔내토마토축제



고원지대 둔내면에서 재배되는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는 매년 8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만끽한다. 둔내 토마토는 해발 700m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가장 효과적인 건강을 위해 신선함을 유지하며 최고의 토마토로 인정된다. 횡성호수길축제는 횡성호 망향의 동산에서 출발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9 km 횡성호수길 5구간 둘레길에서 매년 9월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각종 이벤트와 공연이 열린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횡성더덕축제는 청일면에서 개최된다. 오래 묵은 더덕은 산삼보다 낫다는 말처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덕은 전국 최고의 명품 더덕 품질을 자랑한다. 둔내토마토축제는 여름축제로, 더덕축제와 횡성호수길축제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준다. 둔내 토마토와 횡성 더덕은 횡성 8대 명품에 들어간다.

횡성 호수길축제와
횡성 더덕 축제



갑천면 쉼다리 역사 제1회 황성군민 연날리기 대회(1992년)



갑천면에 가을 걷이가 끝나는 10월 하순이면 안매일과 장거리를 잇는 쉼다리가 설치된다. 옛날은 쉼다리로 오가며 사람도 만나고 장사도 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는 마을 청년들이 이삿짐을 지게에 잔뜩 싣고 쉼다리를 건너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다. 매년 섬강 끄트머리 갑천 고네이베루에 쉼다리가 놓여지면 한바탕 마을 잔치를 벌였다. 제1회 황성군민연날리기대회가 1992년 개최되었다. 전통연 만들기 체험, 연싸움, 높이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군민의 화합과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고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연날리기대회는 현재 황성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각 면 노인대학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이 직접 연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행사로 진행하여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연날리기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이다.



제1회 황성군민 연날리기 대회 (1992년 황성문화원 주최)

내 마음속의 백년 가게, 내 마음속의 기억 공간



횡성읍 일성당 약국

일성당 약국은 1939년 22세의 이창덕 씨가 약종상(藥種商) 강원도 제1호 허가를 받아 개업했다. 80년 전통의 일성당 약국으로 한 집안에 약사가 4명, 시아버지 대를 잇고 있다. 가화만사성이다.



청일 철물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터줏대감 청일철물점은 이경랑씨가 64년전 국숫집하다 철물점을 경영하며 동네사랑방이 되었다. 그때 그 시절 정겨운 추억이 샘솟는 소중한 점포이다. 남다른 내력을 지닌다.



청용 한과

전통 맛의 고집스런 3대 청용 한과는 최순덕씨가 40년 전에 시작한 전국 유명 한과이다. 전통의 맛을 잇는 3대(代) 한과(韓菓)이다. 횡성의 과거와 현재를 재래적인 맛으로 잇고 있다.



서원면 고향산천

횡성군 서원의 고향 맛을 지키는 고향산천은 허성옥씨의 유명한 청정 전통식당이다. 오랜 세월 횡성의 시간을 지켜온 노포이다. 내 마음속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내 마음속의 백년가게이다.



횡성읍 강원쌀농협동조합RPC

강원쌀농협동조합(횡성읍)은 200년의 오랜 역사와 3500평의 넓은 면적의 방앗간이다. 전국 최고시설의 정미소로 고객의 성공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농업을 선도하는 전통적인 조합으로 대한민국 명품 쌀을 생산한다

주) 박재경 작가의 횡성노포기행 사진, 글을 인용함

횡성읍 입석리(立石里) 지명 유래 역사

입석리 입석(立石)



본래 횡성군 청룡면의 지역으로 선돌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입석(立石)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버팀말, 장안리를 병합하여 입석리(立石里)라 칭하였다.

선돌바위는 앞말(입석리 4, 5반에 속하는 앞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돌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입석(立石)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바위에는 갓이 씌워 있었고 앞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 입석리 지하보도, 보행자 터널, 보행자 언더패스라고 하여 지하 차도 옆에 선돌문화공간을 설치하여 미술작품, 포토 에세이 전시, 휴식용 책상과 각종 서적을 구비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횡성읍 입석리(立石里) 지명 유래 역사

입석리(立石里) 선돌

횡성읍 입석리(立石里)는 횡성 현(縣)의 남쪽 6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석(大石)이 무려 3 겹이고 높이가 9장(丈)이나 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옛날에 부자(富者)였던 박수인이 그 마을 아래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 며느리 고민이 많았다. 어느날 낫선 스님이 찾아오자 며느리는 손님이 적게 오는 방도를 부탁했다.

스님은 망설이다 며느리가 하도 졸라대어 마을앞에 있는 선돌에 갓을 쥘우면 된다고 했다. 그말을 듣고 갓을 쥘우자 말 그대로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재산도 없어져서 부자가 망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선돌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그 유래가 되고 있다.

또 유사한 유래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에 부자집에 손님의 방문이 많자 며느리가 귀찮아졌다. 하루는 탁발 온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 마을에 바위에 갓이 쥘워져 있는데 그 갓을 떨어트리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바로 그 갓을 떨어트리려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 바위에서 피가 솟아 나오고 그 집 손님이 끊기며 화재가 나서 집이 망하였다고 한다. 어느 마을이나 고통스러운 유물 유적이 있으면 잘 보존해야 한다.



선돌, 선 바위. 횡성군 입석리(立石里)

횡성읍(橫城邑)

PART

II

횡성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지명 유래 역사와 문화 고찰

갑천면, 강림면 지명 유래 역사

갑천면(甲川面)

병지방리는 원래 청일면 지역으로 1973년 갑천면으로 편입되었다. 진한 태기왕이 신라군에 쫓겨 어답산에 피난할 때 북방 방어를 위하여 병사를 모아 방비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학동 샘골 장승골 공세동 홍문터 당거리 등 지역을 병합하여 병지방리(兵之坊里)이라 하였다.

강림면(講林面)은 통일신라 시대 각림사(覺林寺) 절로 인하여 각림(覺林)이라 불리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강림면(講林面)이라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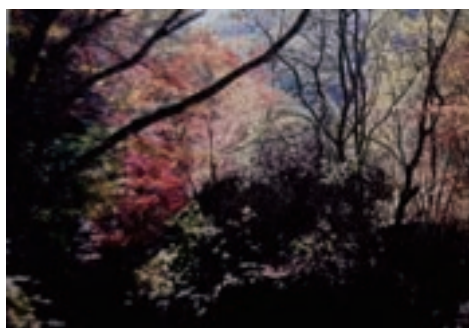
황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횡지암 앞에서 기념하는 황성문화원 이사 일행

강림면(講林面)

부곡리 횡지암(橫指岩)에서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으나 스승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 태종이 돌아갔다. 운곡이 횡지암에 앉아 태종을 빗가르쳤다고 한탄했다고 하여 횡지암(橫指岩)이다. 또한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빗겨 가리켰다고 하여 횡지암이라고도 한다.



횡지암 전면 모습



횡지암 후면 모습

갑천면, 강림면 지명 유래 역사

지명 유래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다.
어디서나 지명을 보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갑천면(甲川面), 강림면(講林面)

갑천면, 강림면 지도



갑천면(甲川面)

옛날 진한(辰韓)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겨 병지방에서 군사를 훈련하다가 태기왕이 갑옷을 낚싯대 낚아 올렸다는 갑천(甲川)의 이름을 따서 갑천면(甲川面)이라 하였다. 진한(辰韓)이 패하고 신라 시대가 시작되었다. 갑천면은 동쪽으로 청일면과 둔내면, 서쪽으로 공근면, 남쪽으로 우천면과 횡성읍, 북쪽으로 홍천군 동면과 각각 접해있다

강림면(講林面)

통일신라 시대의 각림사(覺林寺) 절로 인하여 각림(覺林)이라 불렸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강림(講林)이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원래 원주군 수주면 지역으로 고종 32년(1895년) 영월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횡성군 안흥면 강림출장소로 있다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림면으로 승격되었다.

청일면, 둔내면 지명유래 역사

맑고 깨끗하고 푸른 청일면(淸日面)이 되었다.
청(맑을 淸) 청(깨끗할 淸) 청(푸를 靑)이다. 둔내면에는 둔고(屯庫),
곡물 저장소가 있어서 둔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청일면(淸日面)



청일 개나리굴

조선시대: 개나리
조선후기: 청일면



청일 청정 캐릭터 가재 (1급수에서만 자라는 가재)
청일면 냇가(맑고 깨끗하고 푸른 청일 자연경관)

둔내면(屯內面)



둔내면 둔고(屯庫), 곡물 저장소
둔내 대여 양곡 저장 창고



둔내면 청태산자연휴양림 잣나무숲
둔내 11경 풍광

청일면, 둔내면지명 유래역사
청일 봉명(鳳鳴) 폭포,
태기산 낙수대 폭포

청일면(晴日面)

평창 대화굴로 들어간 큰 개가 청일 대관대리에 있는 개나리굴(狗出窟)로 나왔다고 한다. 조선후기 처음에 개나리로 호칭을 하다가 그 음이 좋지 못하므로 개나리의 준말 '개날' 즉 맑고 깨끗하고 푸른 청일면(晴日)이 되었다. 청일면은 동쪽으로 둔내면, 서쪽으로 갑천면, 북쪽으로 홍천군 서석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3청 청일 청정 캐릭터 가재 서식지: 봉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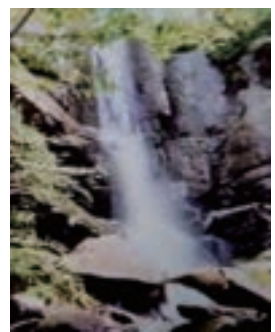


청일
봉명(鳳鳴)폭포(瀑布)

떨어지는
물소리가 봉황
울음소리와
같다고 하여서
봉명폭포라고
한다

둔내면(屯內面)

조선시대 횡성군 둔방내(屯坊內)에 대여 양곡저장 창고 둔고(屯庫)가 설치되어 둔창내(屯倉內)였다가 지명이 1937년 둔내면으로 개칭되었다. 두원리 둔방내리 마암리 삽교리 석문리 영랑리 우용리 자포곡리 조항리 현천리 화동리 등 11개 리를 관할하였고 1973년 안흥면 궁중리가 둔내면으로 편입되었다.



태기왕 전설이 있는
태기산 중턱
낙수대폭포(10m)

우천면 우항리(牛項里) 지명유래 역사

우천면 우항리(牛項里)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목, 우항(牛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수재를 물언지 모란 새말을 병합하여 무네미 위쪽이 되므로 상수남리라 하다가 1940년 우항리라 고쳤다. 소세바우는 서낭당 밑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의 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쇠목 지역은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다.

진고개는 우항리와 양적리 경계의 고개로 예전에 진을 쳤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봉은 마을 뒷산으로 산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구용골은 백달리 골짜기로 골 형태가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부시책으로 현대화된 우천면 문화마을이 있다.

마을 지형(地形)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목,
우항(牛項)이라 하였다. 우(牛 소우) 항(項 독덜미 항)



성황당



우항1리 소세 바위



성황당 아래 큰 바위

우천면 우항리(牛項里) 지명유래 역사

우천면 우항리(牛項里)

비가 많이와서 늘 냇물이 흘러 우넷면이었는데 태종때 횡천이 횡성이 되며 우천면 지명이 되었다. 우천면의 산 성황당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씨 성을 가진 선비 한 사람이 인심이 후하여 오가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 복적였다.

집안 식구들 고충이 대단히 컸다. 어느날 한 스님이 이 집에 시주차 들렀다. 며느리는 손님들 때문에 겪는 고통을 말했다. 스님은 성황당 밑 바위를 깨버리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시키는대로 하인을 시켜 바위를 깨버렸다. 바위를 내리치니 바위가 갈라지며 시뻘건 피가 나왔다. 많던 손님 수가 줄고 식구들이 병이나 쓰러지며 집이 흉가로 변했다.

산이 구부러진 황소의 목 같았고 깨어진 바위는 소의 혀 부분이 된다. 소 혀를 잘랐으니 그 집이 잘 될리가 없었다. 바위는 붉은 색을 띠 그 동네 지명이 쇠목이 되었다.

소의 우(牛)와 목(項) 자를 써서 우항 지명이 되었다. 우항(牛項) 소 우 목덜미 항으로 쇠목이라고도 불리운다. 둔내면 조항리(鳥項里)의 큰 언덕 모양이 새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조항리(鳥새조 項목덜미 항)라 불리우는 것과 유사하다.

안흥 지명, 안흥찐빵, 삼형제 바위 1924년 횡성 봉평간 도로공사 준공

안흥 지명

횡성의 조선시대 교통 통신 물류 중심의 역원(驛院)

안흥역: 기마 1필, 복마 1필, 역노 30명, 역비 10명, 현 동쪽 50리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삼형제 바위



1924년 횡성 봉평간 도로공사 준공

어성훈기념횡성봉평간도로공사준공비 (御成婚紀念橫城蓬坪間道路工事竣工碑)

1924년 일본 황태자 유인 친왕전하와 양자 여왕전하 성혼식이 거행되어 조선총독부와 강원도청은 기념사업으로 횡성 봉평간 도로개착사업 논의가 일어났다. 3월 답사, 5월 강원도 인가가 나고 측량을 마치고 부역 인원수 47,500명, 28,500원 소요되고 10월 드디어 준공되었다.



횡성 봉평간 도로공사 준공식(1924년)



태기산 터널 관통식(2018년)

안흥 지명, 안흥 찌빵, 삼형제 바위 정우주 황성 현감 애민선정비, 건립

안흥 지명

안흥면은 동쪽으로 평창군, 서쪽으로 우천면, 남쪽으로 강림면, 북쪽으로 둔내면과 접하고 있다.

안흥지역에 도깨비 3형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밤에 도깨비 불로 길을 잃게 하였다. 이 고을 현감이 매화산 신선에게 방법을 묻자 술떡에 팥을 넣어 도깨비에게 주라고 하여 만들어 주니 도깨비가 먹고 바위가 되었다. 그 이후에 그 지방은 편안함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안흥(安興) 지명 유래가 되었다. 술떡에 팥을 넣어 찌 빵은 날로 인기를 더해 오늘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흥찌빵이 되었으며 도깨비가 변한 3개 바위는 삼형제 바위가 되었다. 그 지역에 도깨비 도로가 생겨나서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신비함을 준다.

숙종 임금 때 갑신년 1704년 37세에 황성현감(종6품)으로 팔계군 신도비를 세웠다. 공의 이름은 우주이고 호는 삼구당이다. 소사리에 현감 정우주의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를 세우고 그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소사비리(所思碑里)라고 하였다가 소사리(所思里)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가을철마다 세곡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일 철이면 세곡으로 보리를 마련하려고 사람들이 농사를 팽개치고 보리농사가 잘되는 경기도 여주나 이천 고을에 가서 품을 팔았다. 황성 현감 정우주가 지나가다 논밭에 청년은 없고 노약자, 아녀자만 있어 현감이 보리를 보내지 않게 했고 그 사실이 고마워 고을 사람들이 안흥면 소사리에 애민선정비를 세웠다.



황성 현감 정우주(鄭宇柱)
묘소와 비문

정우주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공근면, 서원면 지명 유래 역사

지명 유래

칠봉서원



중도(中道)
가운데 길이
아닌 바른길



公字形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공평한 형태)

창조적 공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의 좋은 점을
모두 수용하는
화합의 길

공근면(公根面)

정종영은 일평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삶을 살아 후손들도 묘의 모양을 공자형, 즉 공평한 형국으로 조성해 공근 지명이 탄생되었다. 불교에서의 중도(中道)도 가운데 길이 아니라 가장 알맞고 적당하며 온당한 길이다



정종영묘, 공자형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형태)

서원면(書院面)

조선시대 원주군에서 1914년 황성군에 편입되어 1937년 산현리 칠봉서원의 이름을 따서 서원면이라 불렀다. 칠봉서원은 서원면 교육기관으로 많은 유학자 및 대학자들을 양성하였다.

공근면, 서원면 지명유래 역사 조선시대 역원(驛院) : 창봉역

공근면(公根面)

조선중기 문신인 항재 정종영은 평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삶을 살았으며 묘자리의 묘 형국이 공 자형(公字形)이고, 영명한 자리 즉 영원히 뿌리박은 자리라 하여 공근 지명이 되었다. 한편 순우리말인 곰굴에서 공근 지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곰은 몸집이 크다는 뜻이고 굴은 깊은 골짜기로 공근면은 큰 골짜기이다. 공근면은 서쪽으로 서원면, 동쪽으로 갑천면, 남쪽으로 황성읍, 북쪽으로 홍천군 동면과 인접해 있다.

서원면(書院面)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인데 고종 32년 지방관제 개편으로 황성군에 편입되었. 조선 시대 1624년 강원도 황성군 서원면 산현리에 칠봉서원(七峯書院)이 세워져 이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며 많은 유생을 배출시켰다.

칠봉서원으로 인하여 서원면의 명칭이 유래되었다. 서원면은 서쪽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동쪽으로 공근면, 남쪽으로 원주시 지정면, 북쪽으로 홍천군 남면과 각각 접해 있다.

황성의 조선시대 교통 통신 물류 중심의 역원(驛院)

창봉역: 북마 3필, 역노 32명, 역비 10명. 현 북쪽 30리에 있다.



서원면 어르신 효잔치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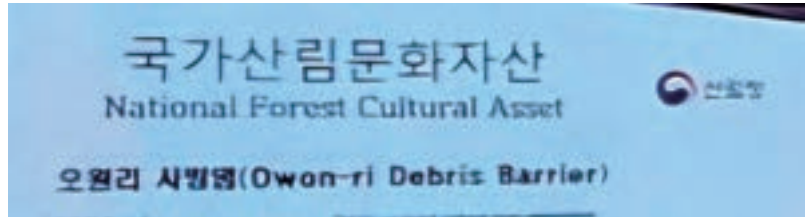
공근면행정복지센터

황성의 지명 유래 역사

지명	지명 유래(地名 由來)
갈풍리	갈풍리葛豐里(葛畵 갈) 참이 많이 자라서 갈풍리이다.
교항리	전천(前川앞내) 橋(다리교) 項(목덜미 항) 전천 다리가 있어 교항리이다.
궁천리	궁(활 궁) 川(내 천) 흐르는 내가 활처럼 휘어 굽이쳐 흐른다.
마산리	馬(말 마) 山(되 산) 마을에 말 무덤이 있어 마산이라 한다.
마옥리	옥동리에서 생산된 옥을 가공한 곳이라서 마옥리이다.
반구정	조선 인조 때 반구 이당이 자신의 호를 따서 반구정 정자를 지었다.
묵계리	墨(먹 묵) 溪(시내 계) 한림 이당이 후진을 가르칠 때 먹을 갈고 붓을 씻어서 흐르는 물이 검어져 묵계리라 하였다.
밤두둑	반곡리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울동리(栗밤나무 울)도 밤나무가 많아 울동리라 하였다.
칠우고개	반곡리 무리개에서 원주 호저면 광격리로 가려면 고개에 도적이 많아 7명이 모여 고개를 넘었다 하여 칠우고개이다.
영영포리	永(길 영) 浦(물가 포) 전천(앞내)가 길어서 영영포리이다.
조곡리	鳥(새 조) 새가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룡리	靑(푸를 청) 龍(용 룡) 청룡이 이 마을서 승천하여 청룡리이며 청룡리 저수지에서 이승만대통령이 낚시를 하였다.
학곡리, 학담리	鶴(학 학) 지형이 학처럼 된 큰 골짜기 마을이다.
캐개소	갑천면 병지방리 승지굴 웅덩이에 한 여인이 빠져 죽었는데 비가 오는날 어둠이 깔리자 바위에 한 여인이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있었다. 그 때 담력이 큰 사람이 큰 기침을 하고 침을 뱉자 그 여인이 사라졌다. 그 기침소리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 캐개소이다.
도곡리	도(陶질그릇 도) 도곡리에서 도자기를 구웠다고 도곡리이다. 사가점굴, 점말도 웅기점이 있었으며 장승모 도자연구원과 관계가 깊다. 갑천면 전촌리는 웅기점이 있어 점촌이고 전촌으로 고쳤다. 황성은 도자기 고장이다.
저고리골	갑천면 울동1리에 옛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 놓았다고 하여 저고리골이다.
감사고개	갑천면 화전리에 옛 동헌터가 있고 감사가 고개를 넘어서 감사고개이다.
횡지암	조선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으나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빗가리켰다고 하여 횡지암이다.
둔방내리	조선시대 둔내면에 둔창(屯倉)이 있어 둔방내이다.
소사리	안흥면 소사리는 현감 정우주의 애민선정비를 세우고 그를 사모하는 뜻으로 소사비를 세워 소사리가 되었다

전국 최대 사방댐 건설
우천면 오원리 (1941년)
조선시대 오원역

국가산림문화자산



우천면 오원리 사방댐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 유목 및 쓰레기 차단, 계곡침식 방지이다. 홍수 시 물을 저장하여 하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가뭄에 농업 용수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석사방댐으로 돌을 쌓아 만든 구조이다. 황성군 오원리 사방댐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사방댐



(황성군 우천면 오원리 산 181번지, 322번지)



치산치수지비
(治山治水之碑)

토사유출의 수해 및 자연재해 예방

사방댐의 주요기능은 주로 산사태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석이 하류로 흘러 내리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콘크리트 사방댐보다 전석사방댐은 친환경 댐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의 조선시대 교통 통신 물류 중심의 역원(驛院)

오원역: 복마 3필, 역노 21명,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

신라 시대 왕실 휴양지
갑천면 포동리
저고리골 지명 역사

신라시대 삼층 석탑 석인상
횡성군 갑천면 저고리골에 건립, 1500년전 추정

횡성댐 건설로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는 골짜기로 태기왕이 휴양터로 이용한 전설이 있고 태기왕을 멸한 신라에서 왕실 휴양지로 사용한 자리에 축조한 삼층석탑이 있다. 신라시대의 토기도 출토되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포동리 저고리골은 현재 횡성자연휴양림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풍광을 자랑한다. 신라시대 왕실휴양지가 원거리의 우리 고장인 횡성군 갑천면에 세워진 것은 대단히 횡성의 영광이고 주목할만한 점이다.



저고리골

신라시대 토기, 둔내면과 공근면에 토기와 철기 출토, 청동기 유적, 유물 출토는 비대한 관심을 가진다.



삼층석탑 석인상 (갑천면 포동리)



신라시대 토기 출토

신라시대 왕실 휴양지:
저고리골 호명산,
산기슭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놓은 곳.

횡성 어수(御水)물 예수물 역사

횡성 물맛이 최고야!! 조선 3대 태종 임금님이 드셨던 물이라 하여 어수물이라 한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방아다리약수터 가기전 먼저 횡성 어수물을 드시고 가셨다고 한다.



태종 임금



세종대왕



세조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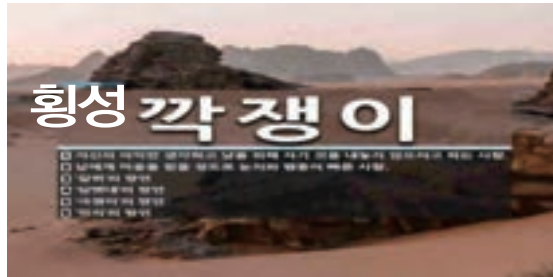
횡성읍의 깊은 암반에서 나오는 샘물로 조선 3대 태종임금, 4대 세종대왕, 7대 세조 임금께서 강무 군사훈련차 횡성을 방문하여 샘물을 드셨다. 세조임금은 피부병으로 고생하셨는데 평창 방아다리 약수터를 가시다가 횡성 샘물을 마시고 피부병이 나셨다고 한다. 조선시대 임금님 3분께서 마셔서 어수물이라고 불렀고 전국 유명한 샘물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오씨, 육씨 성을 가진 사람이 물 장수를 하여 집집마다 배달하고 돈을 받았다 하여 어수물 거리, 예수물 거리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물맛이 좋다고 전해진다. 횡성은 물의 도시이다. 북천 우천 갑천 현천 모두 내천(川)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이다. 횡성은 물길에 동에서 서로 가로 질러 흘러가 가로 횡(橫)자를 쓴다. 조선시대에 구일현감이 관개수로로 개설하여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목계리 대통령 별장에 휴양오셔서 청룡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셨다.



횡성 어수물(예수물) 안내문

횡성 깍쟁이 역사와 문화



횡성사람과 개성사람이 누가 더 깍쟁인가 내기를 했다. 횡성인과 개성인이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횡성인은 문에 창호지를 발라 바람을 막고, 개성인은 촛불을 켜 방을 밝히면서 밤을 보냈다. 날이 밝자 횡성인은 문에 바른 창호지에 물을 묻혀 떼어 가지고 집에 갔고, 개성인은 초가 다 타서 가지고 갈 것이 없게 되어 횡성 깍쟁이가 이겼다.

횡성가서 잘난 체 하지마라,

일본 상권은 조선팔도를 유린했지만 횡성과 개성은 일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상권을 곳곳이 지켜냈다.

횡성놈들 천하에 상종 못할 종자들이여, 헤이 횡성가서 잘난체 하지마라. 쌍코피난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말했었다. 1923년 간행된 개벽지에 전국 청년회는 일본 어용단체로 활동했지만 횡성군의 청년회만은 끈질긴 항일투쟁의 중심지였고 오직 횡성의 소년회만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되었다. 횡성의 3.1운동은 강원도 독립만세운동의 효시이자 진원지이다. 애국의 고장 횡성이다. 횡성이 명실공히 강원도의 대표적인 범민족항일운동 중심지가 된 것도 횡성깍쟁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횡성의 불굴의 의지를 담은 횡성깍쟁이 정신이 면면히 군민들 가슴속에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



횡성인은 문에
창호지를 발라
바람을 막았다



일제강점기 횡성장터의 모습

횡성군 심볼마크, 거주역사, 어답산 역사

횡성군 심볼마크



횡성군기(郡旗)



군화꽃 함박꽃



마스코트 한우리

횡성군 심볼마크의 상징 의미는 자연친화, 인간중심, 미래지향의 횡성군 생존전략이다. 횡성은 구석기뿐 아니라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구석기 이후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 횡성군 갑천면의 어답산은 ‘임금이 친히 밟아본 산’이라는 뜻을 가지며 굽이굽이 흐르는 병지방과 함께 사시사철 언제 찾아도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산이다. 횡성자연관광지는 캠핑장, 휴양림, 걷는 길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별빛마을캠핑장을 비롯하여 횡성에는 총 35 장소의 캠핑장이 있다



횡성한우 (우룡승천牛龍昇天) 예찬



소(牛)와 메기, 용(龍)의 만남



한우체험관 미끄럼틀 우룡승천 조형물

슬기롭고 부지런한 횡성 한우 산을 옮길 큰 힘을 가졌도다

메기는 활력의 상징이다. 우리도 한우의 근면 성실성과 활기찬 메기같은 생활을 하면 풍요로운 삶을 가져온다. 소(牛)와 메기, 용(龍)의 만남이 범상치 않다. 횡성은 한우의 고장이다.

용바위에 소(牛)와 용(龍)이 있다. 성실한 소와 꿈을 지닌 용이 용바위에서 하늘로 오른다. 하늘을 오르는 모습을 통해 도약과 발전을 의미한다. 조형물은 횡성의 문화적 자산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한편 비가 오지 않는 횡성에 은가람 용은 승천을 위해 한번 콧김을 불자 빗물이 범람하고 최근 부임한 횡성 구일현감 꿈속에 나타나 독과 수로를 만들라고 하여 구일현감은 잠에서 깨어나 은가람길을 즉시 만들어 횡성이 기름진 풍년 농사 옥토가 되었고 은가람 용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였다.



우룡승천도
(牛龍昇天圖)

진양원, 레포츠공원,
횡성루지체험장

진양원(1970년대
횡성 최고 유원지)



횡성공립농업학교
(1945년 5월 10일 개교)



진달래 농원



진양원



대화제약

1945년 횡성공립농업학교를 개교해서 1959년 학교는 교항리로 이전하고 내무부장관을 지낸 장석운 씨가 3만평에 100여 종의 나무 수만 주를 심고 진달래 농원을 운영하였다. 당시 청담스님이 기증한 백송(白松)과 이승만 대통령이 등나무를 기증하여 식재(청일면 출신 장석운 제7대 내무부장관이 가장 소중하게 아꼈다)하였다.

진달래 농원은 1975년 원주에서 최약방을 운영하는 최진구씨에게 넘어가 진양원이 된다. 진양사 절, 생약 식물 표본원, 실내 및 실외 연회장, 매점, 다실, 식당, 양묘장, 종묘 문의처, 숙소, 잉꼬하우스 등이 있었다. 1982년 한국셀제약회사로 넘어 갔다가 2002년 대화제약으로 인수되었다. 정암 레포츠 공원은 1994년 준공하여 레저, 스포츠 중심지였다. 횡성루지체험장은 세계최장 2.4km 체험장 코스로 스릴 만점의 놀이 시설이다.



섬강의 발원지 청일면 봉복산, 횡성 3橫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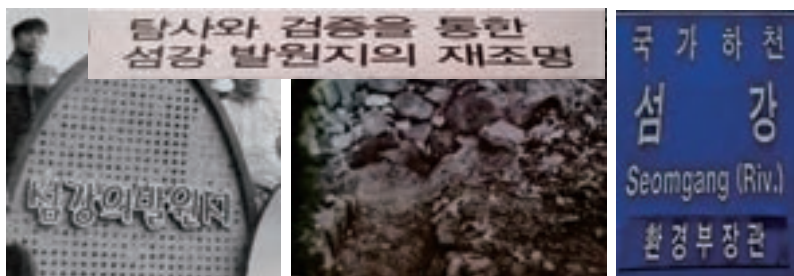
섬강의 발원지

섬강은 조선 중기 1580년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별곡을 지었는데 관동팔경과 지역 명승지를 두루 감상하였다 특히 횡성 섬강과 태기산 그리고 치악산의 자연 예찬으로 풍광의 아름다움 극치를 표현하였다.



송강 정철

강의 발원지는 일반적으로 강의 하구부터 가장 먼곳으로 본다. 섬강의 발원지는 태기산, 발교산 수리봉, 속실리 원골 등 다양하다. 탐사 결과 섬강의 길어도 73km에서 103.5km로 증가하였다. 탐사와 검증으로 최종 청일면 속실리 봉복산 북서쪽 능선 90% 지점인 '돼지우물'로 밝혀졌다. 돼지우물은 멧돼지가 물을 마시기 위해 파놓은 우물이다. 돼지우물은 봉명리 수리봉, 태기산보다 섬강의 길이가 더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기산이 발원지라 회자된다.



청일면 속실리 봉복산에 위치한 섬강 발원지 돼지 우물

횡성에 사는 사람도 가로로 삐딱하여 **인(人)횡**이다. 사람이 가로로 삐딱하다는 뜻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없이 남들처럼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갈 때 횡성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해 자기 길을 가고 아닌 것은 가로질러 빗금으로 간다.

횡성은 섬강이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가로 횡 횡천(橫川)에서 횡성(橫城) 지명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 때 횡천 또는 여사매, 신라 때 황천, 고려 때 횡천이 되었다. 조선 태종 14년 횡천과 홍천의 발음이 비슷하여 횡성으로 최종 개칭되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기질이 예로부터 강했다. 1919년 강원도 만세운동을 촉발시킨곳이 바로 횡성이고, 일제강점기에 유독 횡성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 횡성의 산은 동서남북으로 뻗은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가로질러 펼쳐 있어 가로로 놓인 산(山)횡이다. 물길은 산을 따라 흐르니 천(川)횡이다. 홍인희 작가 글 중에서

횡성군민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횡성군민의 날:
6월 18일

횡성군민대상 명예의 전당



제1대 이종호
화예술부문



제2대 안병성
농축산부문



제3대 심진황
문화예술부문



제4대 박병일
선행부문



제5대 이종훈
문화체육부문



제6대 심순녀
소득부문



제7대 채순례
선행부문



제8대 이규삼
농축산부문



제9대 신형철
선행부문



제10대 이일영
문화체육부문



제11대 박애자
선행부문



제12대 서석규
선행문화체육부문

황성군민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황성군민의 날:
6월 18일



제13대 곽승영
선행부문



제14대 윤순길
선행부문



제15대 백영선
선행부문



제16대 도호근
선행부문



제17대 이방우
선행부문



제18대 정명철
문화체육부문



제19대 이석원
선행부문



제20대 전병수
선행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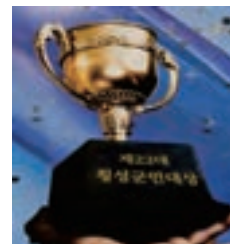
제21대 박순엽
문화체육부문



제22대 조창진
선행소득증진부문



제23대 박명서
체육진흥부문



황성군민대상 수상자 경력과 공헌도

(포상년도) 부문	수상자	주소	경력
1 (1999) 문화예술	이종호 남	우천면	정금민속관 지도위원
2 (2000) 농축산	안병성 남	둔내면	전 둔내농협장
	(2001 = 2002) 수해 피해로 미 실시		
3 (2003) 문화예술	심잔황 남	황성읍	전 황성문화원장
4 (2004) 선행	채순례 여	황성읍	전 군부녀회장
5 (2005) 농축산	이규삼 남	서원면	전 서원농협장
6 (2006) 선행	신형철 남	황성읍	대성병원장
7 (2007) 선행	박병일 남	황성읍	전 반곡리 노인회장
8 (2008) 문화체육	이종훈 남	원주시	전 우천초교장
9 (2009) 소득	심순녀 여	안흥면	심순녀안흥찐빵 대표
10 (2010) 문화체육	이일영 남	황성읍	전 황성문화원장
11 (2011) 선행	박애자 여	원주시	이화루식당 대표
12 (2012) 문화체육	서석규 남	황성읍	운동장해장국 대표
13 (2013) 선행	곽승영 남	황성읍	취성동농장 대표
14 (2014) 선행	윤순길 남	황성읍	선돌막국수식당 대표
15 (2015) 선행	백영선 여	황성읍	장애인종합복지관장
16 (2016) 선행	도호근 남	황성읍	정암 2리 이장
17 (2017) 선행	이방우 남	공근면	전 공근면 노인회장
18 (2018) 문화체육	정명철 남	공근면	전 황성군의회 의장
19 (2019) 선행	이석원 남	황성읍	사회복지협의회장
20 (2020) 선행	전병수 남	우천면	대한노인회 황성군지회장
21 (2021) 문화예술	박순엽 남	황성읍	전 황성문화원장
22 (2024) 군정발전	조창진 남	원주시	황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23 (2025) 체육진흥	박명서 남	둔내면	황성군체육회장

황성을 빛낸 황성의 얼굴

황성군은 1999년부터 어진 덕망과 인품을 갖추고 황성군 발전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군민을 〈황성군민대상〉으로 선정하여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횡성읍 묵계리)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 횡성군 묵계리 방문



이승만 대통령께서 횡성군 묵계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지금부터 70년전인 1955년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횡성군 묵계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 오셨을 때 횡성군 묵계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강원도내 고성 이승만 대통령 별장과 횡성 묵계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횡성 묵계리 대통령 별장을 매년 3차례 정도 방문하셨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횡성에 별장을 만들고 방문하시어 횡성이 청정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횡성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은 횡성의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유산이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안내석



이승만 대통령 별장터

이승만 대통령 별장 (황성읍 묵계리)

청룡승천
(靑龍昇天)



청룡(靑龍)이 승천(昇天)한 황성군 청룡리 청룡저수지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낚시를 즐겼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터와
청룡리 낚시터

황성인 독립운동가, 국회의원, 내무부장관인 장석윤과 장기영 체 신부장관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여름철 휴양을 청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강원도 황성군 묵계리가 참 좋겠군' 하고 말씀하셔서 매년 2~3차례 황성군 황성읍 묵계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방 문하셨다. 황성군이 청룡의 줄기가 된다 하여 청룡이라 한다. 청룡 리의 마을에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청룡리(靑龍里)가 되었다. 70년 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하절기에 묵계리 별장에 오셔서 청룡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셨다고 한다.

1914년 청룡리는 황성군에 편입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낚시터는 명경저수이다.



황성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017,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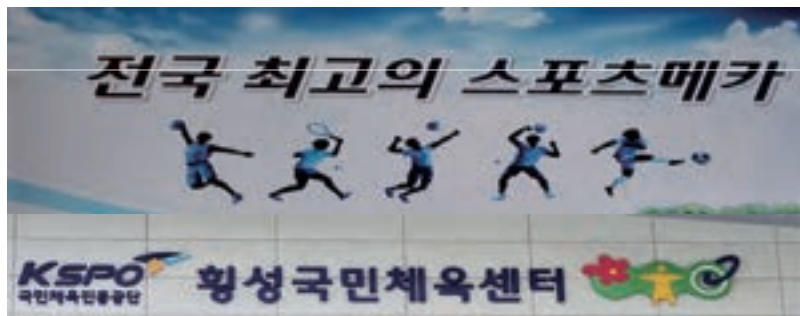
황성 강원도민체육대회(2017년)는 강원도 군 단위로는 최초로 개최되었다. 2024년 황성에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강원도민체전 황성군의 선수단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황성 강원도민체육대회(2017년)는 강원도 군 단위로는 최초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황성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2024년)



강원도민체전황성군선수단 종합우승(2023년)
 한국야구위원회 KBO 야구센터

조선의 횡성 역원(驛院)
원주(횡성)공항, ktx 횡성역
영동, 중앙고속도로

횡성의 조선시대 교통 통신 물류 중심의 역원(驛院)

역(驛): 말을 바꾸고 관리, 서신전달

원(院): 여관, 물자보관소, 휴식

구화갈풍리역(仇火葛豐驛): 대마(大馬) 1필, 복마(卜馬) 1필, 역노(驛奴) 41명,
역비(驛婢) 10명을 두었으며 현(縣) 서쪽 10리 거리.

창봉역: 복마 3필, 역노 32명, 역비 10명. 현 북쪽 30리에 있다.

오원역: 복마 3필, 역노 21명,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

안흥역: 기마 1필, 복마 1필, 역노 30명, 역비 10명, 현 동쪽 50리,

대비원(大悲院) 우천면 상대리 일대,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

실미원(實美院) 안흥면 안흥리 일대,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홍안원(弘安院) 공근면 초원리 일대,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원주(횡성) 공항

횡성군은 사통팔달인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방향을 뻗어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의 중심지이다. KTX 횡성역과 영동, 중앙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다. 횡성에서 서울 강릉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원주로 거미줄 도로망 구축을 하여 이동이 대단히 편리한 살기좋은 횡성을 이루고 있다.



KTX 횡성역

횡성의 최초 학교 설립 유, 초, 중, 고 교육 문화 중심

1908년 심흥택 횡성군수가 설립한 화성학교, 1910년 풍수원성당 제2대 정규하 신부에 의해 설립된 삼위학당, 1913년 횡성감리교회 미국 기독교 모리스 부처에 의해 설립된 매일학교(정화여학교), 1914년 안국선이 설립한 둔내사립학원, 1916년 횡성감리교회 조근영 목사에 의하여 설립된 화성유치원이 있었다. 공립학교 횡성보통학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 200호에 의거 4년제로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교명을 개칭해 개교하였다. 광복 때까지 횡성중학교, 공립국민학교 21개교, 광동국민학교(사립초)가 설립 운영되었다.

조선후기 개화기(1890 ~1900년대) 초(소학교), 일제강점기(보통학교), 1941~1995년(국민학교) 1996년 이후 초등학교이다. 비정규학교로는 화성고등공민학교, 시온중학교, 재건중학교가 있었다.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지역 초중등 연계교육 환경의 클러스터 조성



횡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횡성초등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황성인재육성관



송호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세계를 선도하는 능력중심 직업교육 명품대학! 송호대학교는 관광리조트 종사 전문인력 양성, 실무능력 중심교육, 국가공인 관리자(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보장이 훌륭하다 스마트팜융합학부 뷰티케어과 이모빌리티과 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융합과 간호학과 등이 있다.

국내 유일한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로 골프경기지도학과과가 있다. 과학적 전문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실무중심교육을 통해 골프분야를 선도할 프로골퍼와 골프지도 관련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황성 인재육성관 운영

방과후 학습지원을 통한

황성 지역인재 육성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150명(중등부75명, 고등부75명)

상하반기 연중 2회 선발고사 실시

학원 위탁 90명

(재)황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신청일 현재 본인, 부모가 1년이상 현재까지 황성에 주소를 둔자.

인재육성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열정키움장학금,

SOS희망장학금, 예체능미래인재장학금

평생학습도시 횡성(橫城)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2022년 재지정으로 2024년까지 지위를 이어왔다. 2025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 심층 평가로 2027년까지 재지정 지위가 유지되었다.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2007년)

횡성군

평생학습문화의 정착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도시 횡성(橫城)



횡성아트센터

제6회 강원특별 자치도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제13회 횡성 평생학습축제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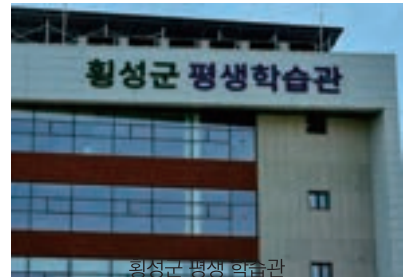


제13회 횡성평생학습축제(2023년)

평생학습도시
횡성(橫城)



평생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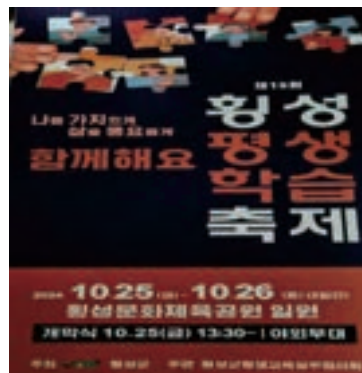


횡성군 평생 학습관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지정(2007년),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2022년)

횡성군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평가를 통과하여 재지정되었다.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교육부총리)를 수상하였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은 2023년 개관한 횡성군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군민 모두가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며, 보다 체계적인 사업운영과 협력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평생학습이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은 평생학습문화의 정착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행하고 있다.

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365채움관(평생학습관) 준공 개관을 통한 전용공간 확충, 군비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평생교육전문인력 확대로 전문성 강화, 지역 대학평생학습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로 남녀노소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의 만들어보는 체험학습과정은 창의성 계발로 진로와 연결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성은빛 (노인, 실버, 어르신) 대학

황성은빛대학 운영 계획: 지식보다 지혜이다.

황성은빛대학 개강식(2024년 3월15일)

운영장소: 황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 2층 대강당

운영방법: 주1회(금) 대면 진행

참여인원: 150명

운영기관: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용:

노래교실, 국학기공, 스마트폰, 바둑 등 진행.

작품공모전, 실버생활의 지혜 강의, 문화탐방(나들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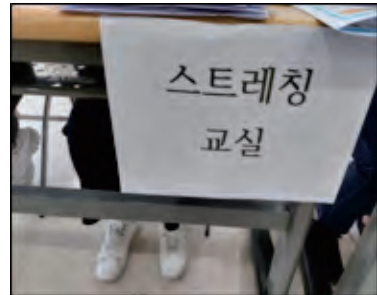
배워서 남준다. 좋은 기술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남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누이 좋고
나도 좋은 상생이다.

함께 하면 함께 행복하다. 공존보다 상생이다.

평생 교육으로 노래와 춤 다양한 프로그램 학습은 실버생활의 지혜이다.



황성은빛대학 개강식



스트레칭 교실



2022년 황성은빛대학 개강식
해월무용단 축하공연



2024년 청일은빛대학 개강식

형성은빛 (노인, 실버, 어르신) 대학

형성은빛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갑천은빛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남촌어르신대학
 서원은빛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형성제일감리교회)
 우천실버대학 (대한노인회형성군지회) 우천실버대학
 강림실버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형성군지회)
 공근은빛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안흥은빛대학
 청일은빛대학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안흥성결교회)
 형성군노인대학 (대한노인회형성군지회)
 둔내은빛대학 (형성노인복지센터)



2011년 서원면 은빛대학 개강식

형성은빛(노인, 실버, 어르신) 대학



관내 노인대학
비만예방교육(보건소)



관내 은빛대학
실버생활의 지혜 강의

횡성의 위대한 자연, 인물 유산(遺産)

매화산 신선봉

안흥면과 우천면 경계의 매화산에 옛날 가난한 농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며 살았다. 하루는 나무를 하러 매화산에 갔다가 이상한 새를 만나서 쫓아 다니다 날이 어두어져 산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은 곳을 ‘봉담’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상한 새가 필경 봉황일 것이라는 뜻에서 봉담(鳳潭)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 다음 날에 그 새가 다시 나타나서 자꾸 쫓아가다 한 곳에 이르니 꽃이 활짝 핀 매화나무밭에 이르렀다. 이에 이곳을 매화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가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따라가니 새가 안 보이고 신선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자리를 신선봉이라고 한다.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신선들이 없어지자 자신도 집에 가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자루가 썩었다고 한다. 집에 와 보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삼 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식구들을 이해시키고 곰곰이 생각하니 새 덕이라는 별판을 지나 매화산을 거쳐서 신선봉을 갔다 온 것이었다. 새덕은 새의 덕(德)으로 신선을 만나 삼 년을 굶었어도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봉은 매화산 정상으로 넓직한 바위가 두 개가 있는데 장기판과 바둑판을 그려놓고 신선들이 건너 뛰어 다니며 바둑과 장기를 번갈아 두었다고 한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 해서 신선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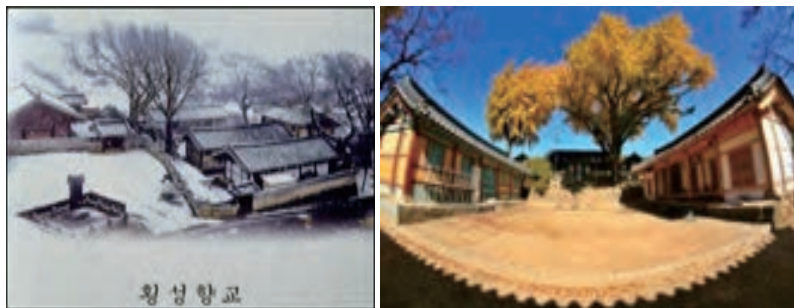
조선의 명재상 횡성인 고형산 설화와 유적

횡성읍 조곡리 새골 안마을에 고판서 할머니 묘가 있는데 고형산이 과거에 합격 승승장구하다 판서가 되어 금의환향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봉분이 솟아올랐다. 그후부터 사람들이 그 묘를 솟을묘라 불렀다. 고형산 할머니는 내 손자가 판서가 되면 춤을 추겠다고 했고 죽어서라도 무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하였다. 하루는 고형산 아버지가 사신이 출타 중 밤길을 걷는데 도깨비가 그를 등에 업고 어느 산자락에 내려놓고 이곳이 명당이라 말하고 사라졌다. 얼마후 고형산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 사신(思信)은 모친의 묘를 그곳에 모셨는데 전설속의 솟을 묘가 된 것이다.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 사이의 높이 832m 길이 13km가 된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조선 초기는 길이 좁아 한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였다.

조선 중종 때 강원 관찰사인 고형산이 사재를 털어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다고 안내판이 말해준다.



1398년(태조 7년) 창건하였다고 한다. 횡성군 갑천면과 횡성읍 북천리에도 향교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퇴락하여 1971년 대성전을 복원할 때 영력1년 순치4년(1647년)이라는 연대가 기록된 대성전 상량문이 발견되어 횡성향교가 인조25년(1647년) 현 위치에 건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현재 성현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 학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 기숙하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 관리자 공부자묘정비, 향교 약수, 향교 웨딩홀 등이 있다. 관리단체는 향교재단이다. 횡성향교 은행나무 2그루가 있다. 한 그루는 300년 수령 강원횡성 33호 보호수 지정(2003년 기준)이 있고, 또 한 그루는 170년 수령 18호 보호수(1982년 기준)가 있다. 공자께서 행단(杏壇)으로 은행나무 아래 학교 연단을 만들고 제자 교육을 하였다. 횡성을 마산리 (현 대화제약) 소재 횡성중고등학교가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은행나무 아래서 공부하였다. 횡성읍 남산리 남산절에 수령 300년된 은행나무가 있었으나 90여 년전 화재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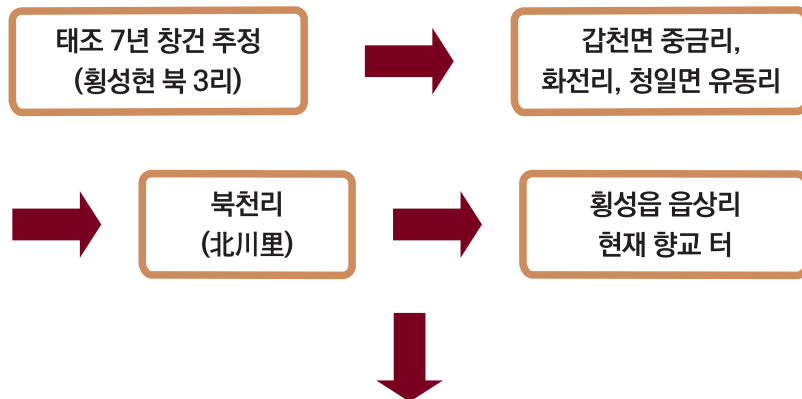


태조 7년 1398년 창건추정, 북천리에서 375년전 현위치 이전

5성위, 동국 18현, 송조 2현 등 25위 위패 (돌아가신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새긴 나무) 대성전에 봉안. 공자의 유학과 道는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주자로 이어졌다. 32대 김인규 전 전교님 유학 경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원명(교육원장)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인성교육을 매년마다 실시하여 바른 심성을 심어준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정자 주자와 우리나라 설총을 비롯하여 최치원 정몽주 송시열 등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새로운 서구식 교육제도를 수용하였지만 횡성향교는 유학 기능을 존속하며 성현을 존중하는 석전대제를 실시한다.

춘기, 추기석전 대제, 다도교실, 문화유적 탐방. 세덕사 추향제, 기로연(경로효친 행사), 고유례, 김순이 여사 헌다례, 분향례, 전통혼례식 거행 등. 지역 문화, 한국 전통예절, 정신문화 계승에 횡성문화원과 함께 진행하며 횡성군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횡성향교의 전설 (구비전승)



횡성향교(橫城郷校)를 지을 도목수(都木手)는 지을 재목이 횡성에 없어 평창(平昌)의 오대산(五臺山)까지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충분히 베어 놓았다. 그러나 그 목재를 운반할 수 없어 도목수(都木手)는 큰근심을 하며 횡성(橫城)에 다시 돌아왔다.

며칠동안 밤잠을 못자고 걱정을 하였는데 어느 날 아침 오대산 재목들이 모두 마당에 쌓여 있었다. 도목수는 헛것을 보았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횡성에 있는 모든 소들이 외양간에서 한결같이 온 몸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다. 도목수(都木手)가 애쓰는 모습이 안스러워 하늘에서 횡성의 모든 소들의 힘을 빌어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

추기석전대제 (2016, 2018)

횡성 향교교육회관, 횡성향교웨딩홀

추기석전대제

추기석전대제
제관일동(2016)

석전대제는 춘기 추기로 공자와 제자, 유교 성현들에게 지내는 제례이다.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본받는 의미도 있다. 전통문화계승, 예절교육, 공동체 정신 함양이 된다.

추기석전대제
제관서립(2018)횡성 향교교육회관,
횡성향교웨딩홀

현 횡성군 횡성읍 향교웨딩홀은 과거 향교(鄕校) 교육회관(教育會館) 웨딩홀로 운영되었다. 명륜당(明倫堂)과 더불어 경전교육, 인성교육, 충효예(忠孝禮)교육을 횡성향교 유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횡성군 관내의 다양한 행사와 회의장 역할을 하였다. 향교(鄕校)의 주요 역할은 제례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 초창기에 향교(鄕校) 교육회관(教育會館)이었다.

향교 교육회관



횡성향교 웨딩홀



횡성교육회관

횡성향교 정기총회
횡성향교웨딩홀(2020)

다도(茶道) 예절 교육

다도(茶道) 예절 교육

차(茶)를 중심으로 한 전통예절과 마음가짐을 배우는 교육이다. 주요내용으로 차의 종류와 이해, 다구(茶具) 사용법, 차 우리는 실습, 예절교육(손님 맞이 예절, 다례(茶禮)의 순서, 공손한 몸가짐, 말씨, 차를 주고받는 자세, 마음수양과 집중력 향상) 등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 명상 효과, 스트레스 해소에 다도예절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

횡성향교는 매년마다 다도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래 읍상 5리에 위치한 횡성향교는 충효 예절의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횡성향교 다도 전통예절 교육(최명규 강사, 차를 권하거나 마실 때 예법)

성년의 날 행사
(2010년 제38주년)

성년(成年)의 날 행사가 횡성향교(橫城鄉校)에서 2010년 열렸다. 횡성(橫城) 관내 19세가 된 성인을 축하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우는 전통(傳統)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행사이다.

보통 19세가 되는 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거행한다. 성인(成人)으로서의 책임감, 예절(禮節), 자율성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態度)를 갖도록 향교(鄉校)에서 교육(教育)을 한다.



성년(만19세)의 날 행사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 5월 16일, 2022년)

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

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

인의예지신, 충효예, 황성의 역사와 문화, 향교의 제례와 교육,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책임, 배려, 경청, 공감능력, 창의성 증진, 고전 배우기, 사고력 등 폭넓은 분야를 배우고 실천하여 체득한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인의 미래핵심역량은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국제문화이해력 등으로 지식보다 지혜이고 인정이 첫째 덕목이다. 조선시대에는 선인성 후지식이었다. 밥상머리 대화교육, 베갯머리 대화교육으로 부모와 자식간 의사소통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조선왕조 500년이 건재하였다.



청소년 인성교육(人性教育) 개강식(2010년) 명륜당



황성 관내 초중고 학생 인성교육 현장(2024년)

유림 강사양성 강좌

일반 유림과 황성 주민들 대상으로 고전(명심보감, 논어, 맹자 주역, 동양고전의 인문학, 중용, 동양고전의 인성교양, 유학교양선집, 효경, 대학, 황성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고 익혀 뿌리교육과 고전의 지혜, 인성을 함양한다.



유림, 강사양성 과정 강좌(2019년 4월 22일, 김인규 전교)

학생 견학

(명륜당, 충효예교육원 개강)

횡성 초중고 학생
충효예 현장체험학습
(2021, 2022)



횡성향교 학생 견학



횡성군민 대상 충효예 강의

횡성관내 초중고(初中高) 학생들이 횡성향교(橫城鄕校)를 방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하였다. 향교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향교 기능의 이해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대성전, 동재 서재, 명륜당 공부자묘정비, 하마비 은행나무 등 향교 관련 내용들을 견학을 통해 교과서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횡성향교(橫城鄕校)는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충효예(忠孝禮) 교육원(教育院)을 개강(開講)하였다. 공자님의 최고 사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인간은 어질고 정의롭고 예절바르며 지혜로우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백문불여일견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나서 경험하고 깨닫는 현장 체험학습이 간접적으로 듣는 주입식 교육보다 산교육이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로연(耆老宴) 고유례(告由禮)

기로연(耆老宴) 행사는 나라에서 70세 이상의 원로 신하, 유학자들에게 베푸는 잔치이다. 고려말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체계화되었다. 조선왕실에서 효와 예 실천을 국가의 기본원리로 삼았고 기로연을 통해 경로사상이 모범을 제시하였다. 정해진 기로소(耆老所)나 향교에서 열렸다. 왕실에서는 왕이 직접 참석하였다.

조선시대 70세이상 원로문신을 위해 베푸는 국가의 잔치

고유(告由)란 이유를 알린다, 사유를 말씀 드린다는 뜻이다. 고유례(告由禮)는 조상(祖上)에게 자손(子孫)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미리 알리는 의례이다. 유교(儒敎) 전통(傳統) 제례(祭禮) 의식 중 하나이다. 과거에 급제했을 때, 벼슬에 임명(任命)되었을 때, 혼례(婚禮), 이사나 큰 여행(旅行)을 떠나기 전, 집안의 큰 변화가 있을 때 행해졌다.

중대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단체장으로 취임한 사람을
향교사당 (문묘)에 고(告)하고 선현님들께 제를 올리는 의식



황성군수, 소방서장 취임 고유례(2018년)
황성군수(김명기), 황성군의회 의장(김영숙) 취임 고유례(2022년)



황성향교 기로연
효자효부 시상식

횡성의 풍요와 안녕을 주는 토속신앙(土俗信仰)

숫대



숫대명	위 치	비 고
조곡리숫대	횡성읍 조곡리 숫대골	숫대를 세웠던 곳만 전함
반곡리숫대	횡성읍 반곡리 무리개	20년 전에도 세웠던 곳
고시리숫대	청일면 고시리 마을 입구	세웠던 곳만 전함

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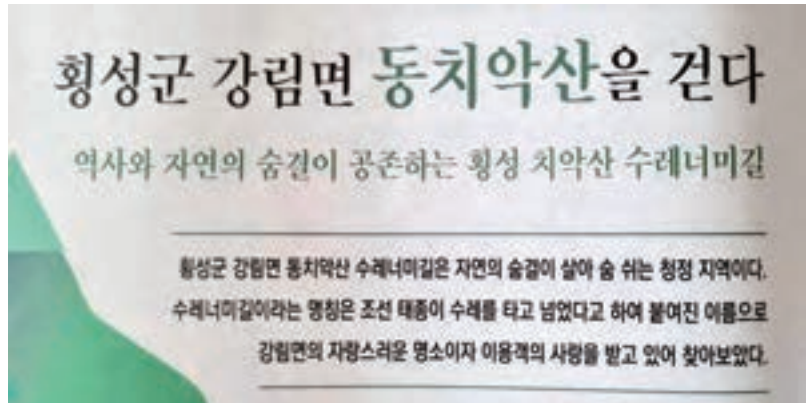


횡성옥계성황당

성황당명	내 용
백달리	백달리 저수지 퇴수로부근. 5.16 이후 철폐
상대리	우천면 상대리 중대미원. 6.25이후 철폐
용둔골	용둔리 용둔골. 암성황당, 숫성황당2개 성황당
어둔리	공근면 웃어둔리. 정월에 성황제
남산리	횡성읍 남산리. 정월에 당제 드림
쇠판리	횡성읍 학곡리. 당제사 드림
병지방	갑천면 병지방리. 정월초당제 드림

횡성 무교(巫敎)

분류	원하는 내용
무(巫)	적대시되는 상대방에게 재앙을 주는 무속
기은제(祈恩祭)	집안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지내는 제
안택제(安宅祭)	재앙을 없애주고 한 해의 행운을 비는 고사
기우제(祈雨祭)	가뭄에 비를 내리도록 천신, 산신에 지내는 제
기도(祈禱)	재해나 액운을 기도로써 없애고 방지하는 기도
성황제(城隍祭)	토지신이나성황신에게지내는 제사
제기(祭忌)	재화를 없애기 위해 부적, 신적을 붙이는 일



수레너미길

수레너미길은 조선 태종이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강림면의 관광 명소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경관이다. 태종대 역사의 숨결, 자연의 보고 동치악산은 강림면의 자부심이다.



수레너미길 자연경관

매력적인 수레너미길 황성구간은 태종대에서 수레너미재 까지 8.2 km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길이며 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된다, 깊은 산에서 맑은 물소리와 숲이 뽐어내는 청정한 공기, 청아한 산새소리가 지상 자연 낙원을 연상하게 한다. 트레킹 코스는 마을 안길과 덕고개, 점터골 삼거리 등을 지나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산길로 접어들 수 있다.

황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황성 교통망 확충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



자율주행 평가·검증 단지 착공식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



황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990년대 황성의 국도는 5호선(원주-황성-홍천) 6호선(용두-황성-우천-장평) 42호선(새말-방림-안흥-우천) 지방도 406호선(공근-상동) 441호선(황성-청일-서석) 442호선(우천-우항) 지역의 교통량 예측을 하였다. 황성은 과거나 현재나 강원도 동서남북의 교통 중심 요충지이다.

황성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으로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군도 등의 연계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군 지역내의 개발된 관광지간의 원활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오지 지역에 대한 벽지 노선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시 교통량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 교통체계를 수립하였다.

공근 삼마치(三馬峙) 고개
지명 유래 역사



소삼마치(小三馬峙), 횡성현(橫城縣)의 북쪽 50리에 있으며 홍천과의 경계이다.



오음산(五音山) 백마 세 필

옛날 창봉리 이 고을 사람들은 오음산에 5명의 장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풍수설을 믿었다. 당시에는 고을에서 장수가 나면 마을이 편하지 않다고 하여 장수가 나지 못하게 오음산 골짜기 바위굴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창을 쫓았다. 그랬더니 장수의 혈맥이 끊겼던지 검붉은 피가 용솟음치며 다섯 개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울려 나왔다. 예전에 여우, 까마귀, 살팽이, 산돼지, 꿩 등 5 짐승이 각각 한골씩 맡아 살면서 5 소리를 낸다고 하여 오음산이다. 그 뒤 3일이 지난 저녁 주인을 잃은 세 필의 백마가 나와 힘없이 고개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후부터 이 산을 오음산(五音山), 이 고개를 삼마치(三馬峙)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편 고개가 험해서 말을 세번 갈아타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삼마치라고도 했다. 상창봉리와 홍천군 남면이 경계가 되는 험준한 고개이다. 6.25때 미군의 오폭으로 인근 마을 인명피해가 매우 심한 지역이다.

황성신문, 황성희망신문 황성군정 소식지

황성신문 창간
 (2010년)



황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2019년) 및 창간 15주년 기념식(2024년)

황성희망신문 창간
 (2013년)



황성군정 소식지

황성군청 소식지 내용: 군청(읍면) 소식, 황성 예술, 탐방, 문화 소식, 애국 황성, 출
 동 현장취재, 전문가 기고, 특별 기획, 황성 살이, 독자 퀴즈 등 황성의 생생한 소식
 을 매주 가장 빠르게 만나 볼 수 있다.



섬강 물소리

황성 꿈

행복담은 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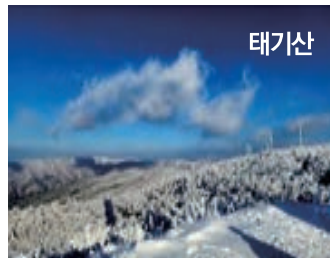
횡성의 명산, 고목(古木)의 역사

횡성의 명산

산 이름	높이(m)	소재지
비로봉	1,288	강림면 부곡리
태기산	1,261	둔내면 화동리
청태산	1,190	둔내면 삽교리
남태봉	1,187	강림면 부곡리
사자산	1,120	안흥면 상안리
매화산	1,084	안흥면 가천리
향로봉	1,042	강림면 부곡리

고목(古木)의 역사

나무 이름	수령	장소
회진 느티나무	730년 이상	공근면 덕촌리
은행나무	530년 이상	횡성읍 가담2리
소나무	500년 이상	공근면 불당고개
느티나무	450년	횡성읍 청룡리
느티나무	450년	둔내면 두원리



횡성역 송호대학교 보광사(普光寺) 문화거리 조성

횡성역



횡성역

횡성역- 송호대학교-보광사 문화거리조성은 문화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횡성의 역사 교육 종교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길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호대학교



송호대학교

횡성역 송호대학교 보광사 세 지점을 하나의 문화축으로 연결하여 문화거리 또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문화 관광 계획이다.

조성 목적은 문화자원 연계, 관광 활성화,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이다. 문화거리 조형물, 역사 문화 체험공간, 힐링 산책로, 전통 문화 행사, 대학생 및 청년 창작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보광사



횡성 KTX역 ➡ 송호대학교 ➡ 보광사 ➡ 문화거리 조성, 관광벨트



일심오층석탑(一心五層石塔)



一心五層石塔(佛眞身舍利奉安)

대한 불교 조계종 덕고산 보광사: 1934년 강대희에 의해 건립된 사찰이다. 횡성을 남산리에 있어 '남산사'였으나 1961년 보광사로 개칭하였다. 입구에 부도 2기는 1949년 동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법흥사지에서 옮겨왔다. 법흥사 조사 자료에는 승탑 5기가 있었는데 2기가 보광사로 이전한 것이다. 승탑 2기는 모두 석종형으로 기단부는 근래에 조성되었다. 승탑은 높이 117cm, 폭 50cm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일심오층석탑(一心五層石塔)은 도림 큰 스님께서 인도와 미얀마에서 수년 전 모셔온 진신사리를 전해주시어 현대 창작 석탑을 모실 때 사리를 봉안하는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횡성 봉복사(鳳腹寺)



덕고산 봉복사 비(碑)



횡성봉복사(鳳腹寺)

태기산(泰岐山) = 덕고산(德高山)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덕고산 아래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 절이다. 횡성군 사찰 중 가장 유서 깊은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을사가 창건하였다.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의 태기산 봉복사(鳳腹寺)는 6.25때 완전히 전소 후에 새로 중건하였다.

횡성 봉복사(腹 배복) 봉황의 배부분, 설악산 봉정암(峯頂庵)

(頂 머리부분) 여주 봉미산(鳳尾山)의 신록사는 봉황 꼬리 부분으로

봉황의 기운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에 힘차게 뻗쳐 있다.

봉황은 신대리의 산 주변 대나무 신우대만 먹고 오동나무에만 앉는다고 한다. 신대리는 과거 70년대 북조리 조릿대의 본고장이다. 신대리(新垓里)는 봉복산 밑에 새로 된 마을이므로 새터, 또는 신대(新垓)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골, 동문밖, 한나루터, 들메지 여내, 당겨리를 병합하여 신대리라 하였다.

횡성 봉복사(鳳腹寺)

민공호는 후기의병 당시 강원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의병활동을 펼친 의병장으로 횡성군 봉복사를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9월 봉복사 전투에서 일본군은 봉복사 의병 350명을 습격하여 이 전투에서 의병 50명이 전사하였고 일본군은 민공호 의병부대 주둔지 봉복사를 불태워버렸다.

봉복사 삼층석탑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60호로 지정되어 있다. 봉황의 힘찬 기운이 한반도 중부지방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전역에 뿜어있다. 대한민국 중부지방 일대가 날개를 펼친 한 마리 봉황으로 기세가 등등하다

신대리 대나무 신우대



봉황



서원 풍수원 성당
도유형문화재 제69호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 성당(천주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위치한 한국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의 성당으로 한국에서 네번째로 지어진 서양식 성당이다. 1905년 착공하여 1907년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었다.

풍수원성당은 강원도 최초 건축된 성당으로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며 한국 천주교사에 전기를 마련한 성지로 1세기 가까운 풍상속에 의연히 복음을 전파한 도내 유서깊은 성당이다. 성당앞 느티나무는 횡성군 군목(郡木)으로 높고 크며 넓게 자라는 특성으로 서원 풍수원 성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풍수원 성당

서원면 유현리 1097
문화재 지정일: 1982. 11. 03
관리단체: 천주교재단

성당앞 느티나무

(횡성 군木으로 높고 크며 넓게 자란다)

서원 풍수원 성당
유형문화관광지

한국 최초 천주교
신앙촌(공동체)

황성 풍수원성당(구 사제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63호)



정규하 신부

풍수원성당 성체 현양대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 로마네스크 양식에 일부분의 고딕식 붉은 벽돌양식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다. 1801년 천주교 박해사건(신유박해)후 경기도 용인에서 40명 신자들이 8일 피난처를 찾아 정착한 풍수원은 한국 최초 천주교 신앙촌이었다. 80년 동안 성직자없이 신앙생활하다 1888년 서울 교구장이 풍수원성당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초대 신부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의 르메르 신부가 부임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성립케 하였고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여 당시 신자 수가 약 2천명이었다.

신자들이 옹기 가마를 만들어 진흙 벽돌을 굽고 공사하여 1907년 준공하고 기념으로 심은 110년이 넘는 느티나무 거목이 성당을 감싸고 있다. 내부는 아치형 천장과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되어 있다.

1896년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한 정규하(아우구스티노) 2대 신부가 부임해서 풍수원성당을 45년간 지켰다. 그는 성심학원을 세워 교인 자녀에게 한글 한문 수학을 가르쳐 문맹을 퇴치하고 우수학생을 서울로 성적 유학을 보내 국내 어느 본당보다 많은 신부를 배출시켰다.

횡성 성당
문화재청등록문화재 제371호

횡성성당



횡성성당이 건축되던 1950년대 한국교회나 개신교 모두 전쟁을 겪고 난 후 사람들이 하느님의 보호와 견고함을 상징하기 위해 교회건축 양식을 하느님의 견고한 성처럼 표현하였다. 종탑위에 돔을 설치하고 외관을 석재로 마감한 것은 원동성당과 유사하다. 그러나 석재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 원동성당과 달리 횡성성당은 석재표면을 거칠게 다듬어 고풍스러운 맛을 더했다.

횡성성당의 입지가 횡성읍 중심의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어 지역의 전망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됨으로 인해 횡성 역사문화의 랜드마크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건축양식이 라틴십자형 건조물로 높은 지역에서 횡성을 보호하는 위용을 나타낸다. 횡성 성당은 지정번호: 등록문화재 제371호(08. 02. 28)이다. 소유자는 (재단법인)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횡성 성당

지정번호: 등록문화재 제371호(08. 02. 28)

소재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8

소유자: (재단법인)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횡성 성당 문화재청등록문화재 제371호

횡성성당

천주교 횡성성당: 6.25동란 이후 미군의 도움을 받아 1955년 시작하여 1956년 준공한 중국인 가톨릭 신자 가(賈)씨가 설계하고 감독하였다. 내부에는 분절이 없는 강당형 미사 공간이 있다. 건물의 높이와 폭에 비해 종축의 길이가 긴 건물로서 이런 교회 건축 유형은 영국 지역의 전통이며 아일랜드 콜롬바노회가 줄곧 추구한 양식이다.



횡성 성당 정면

교회 건축 모습은 외벽을 화강암으로 치장하였고 종탑을 웅장하게 만들어 하느님의 보호와 견고한 성처럼 표현하였다. 정면 중앙에 8각형 종실위에 돔을 얹은 종탑이다. 종탑에는 건축 당시 프랑스에서 들여온 종을 설치했다. 천장 상부의 목조 트러스 구조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천주교 횡성성당: 1950년대 한국 대표적인 석조건물로 4각형 평면 탑신에 8각형 종루 누각과 반구형 돔을 얹은 종탑 조형미가 매우 훌륭하다.

횡성 성당 문화재 지정일: 2008년 2월 28일

서원면 압곡리 백로 풍수원성당과 군청 뒤 느티나무

황성군 군조(郡鳥)

백로 : 맑고 깨끗해
황성군민 청렴성 상징

황성군 군목(郡木)

느티나무 : 크고 넓게 성장하는
황성군민 상징

황성군 군목 느티나무는 황성 지역에 고령 수목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잘 맞아 가로수, 조경수로 많이 애호되고 있는 황성 대표적인 수목이다. 황성 군조 백로는 희고 깨끗하여 군민의 청렴성을 상징한다. 서원면 압곡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황성군 군조, 군목의 위엄과 당당함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간직하여 대대로 황성군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날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된 생태계에서 백로가 잘 서식되도록 힘써야 하고, 느티나무 역시 보기좋은 다른 나무 수종으로 변경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어 황성 군목으로 더욱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백로서식지 천연기념물 248호



풍수원성당 느티나무



군청뒤 느티나무

횡성 한강대(寒岡台)와 청룡 수류암(水流岩)

강원도지(江原道誌)에는 한강대와 청룡 수류암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한강대



청룡 수류암



한강대(寒岡台)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이 우거(寓居)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놀며 감상하였다. 한강대 위에 수십 명이 앉을 수 있고 기암절벽 아래 물줄기는 거세며 물속에 하얀 돌들이 반짝거린다. 백로가 노니는 청룡(靑龍) 수류암(水流岩)은 한폭의 그림같은 절경이다. 가담리 가담 노을길이 아름답고 수류암 마을 앞 내에 있는 바위로 여러 사람이 앉을 만하고 그 앞에 흰 바위가 여기 저기 놓이고 그 사이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수류암이다. 횡성현읍지에 한강대는 현(縣) 서남쪽 7리에 있고, 수류암도 현(縣) 서남쪽 7리에 있으며 청룡(靑龍)의 땅에 있다고 한다.

공근 독재봉 안흥 관말공원

공근면 매곡리와 청곡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하나라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독항아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겼지만 독항아리 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에서 기이하게 조개껍질이 나온다고 한다.

공근면 독재봉

독재봉(355m) 볼록한 암봉으로 산세가 급하다. 산 봉우리밑에 호랑이 굴이 있어 여자들이 병자호란 전쟁때 이 곳에 피신했고, 임진왜란과 6.25 때 피난지로 많은 덕을 보아 덕재봉이라 부른다. 천지개벽 때 전 국토가 물이 차고 독재봉이 물에 잠겼다. 다행스럽게 독재봉위 큰 독항아리가 있어 주민들이 그곳에 들어가 목숨을 구해 독재봉이라고 전해진다.



한편 독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전설) 매곡리는 갈마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매곡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산뒤골 열구정 요동 토굴 등을 합하여 상갈마곡리와 하갈마곡리로 나뉘었다가 해방이후 매곡리라 하였다.

관말공원

우리면은 地理的으로 서울과 강릉의 중간 지점이며 관말은 조선시대 公務者 및 旅行者를 위하여 설치한 안창(안흥)驛과 實美院에서 由來한다. 즉 驛院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관말이라 오는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지역은 山水가 秀麗하여 조선 초기에 태종, 세종, 세조 임금의 넷가에 머물면서 講武하던 곳으로 歷史的 의미가 깊다. 뜻깊은 이곳에 安興面民은 관말공원이라 이름짓고 面民과 旅行者를 위한 쉼터로 提供하고자 公園을 만들다.



2001. 6. 6.

安興面長

공근 베이스볼파크

베이스볼 파크장(야구장)이 전국 대학 야구 전용구장이 되었다. 새로운 야구 메카로 떠오르는 황성베이스볼 테마파크가 2016년 개장되었다.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당해 년도에 개최되었다.



강원쥬라기랜드

**짜릿하고 스릴있는
ATV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껴라!**



스포랜드 사격장

스포랜드 사격장은 레저공간으로 종합 사격장이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황성의 자연에서 시원한 총성이 울리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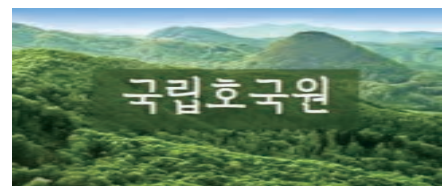


루지체험장



황성호국원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황성호국원 조성사업이 공근면 덕촌리에 조성된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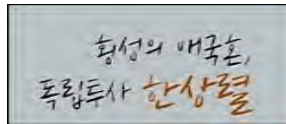
PART

황성문화원의 군민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



황성문화원의 군민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4.1만세운동은 범민족항일운동이다.



“이것은 이길 줄로 믿고 시작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승패는 그 다음 문제지요.”-한상열

황성 지역 항일 의병장 활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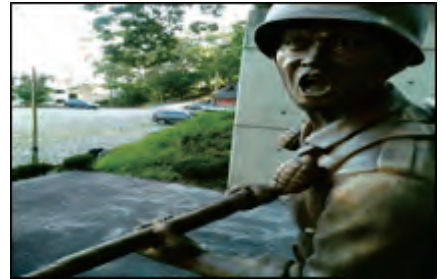
민금호(閔肯鎬): 원주 황성 제천 홍천
한상열(韓相烈): 황성 지평
한기석(韓琪錫): 황성
심상희(沈相熙): 황성 춘천
이인영(李麟榮): 황성 홍천 양주 인제
심상희(沈相喜): 황성 홍천 원주
한갑복(韓甲復): 황성 지평
김상태(金相台): 황성 홍천 영월 원주
조병인(趙炳仁): 황성 영월
한봉수(韓鳳洙): 황성 충청도



황성 군민만세운동

橫城은 愛國의 고장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6.25 참전탑, 이 生命 다 바쳐 祖國을 지켰노라
횡성참전기념공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룩되었다. 국난극복의 과정에서 자기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를 취한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6.25 전쟁과 월남 전쟁 참전 중 산화한 횡성 출신 군인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횡성참전기념공원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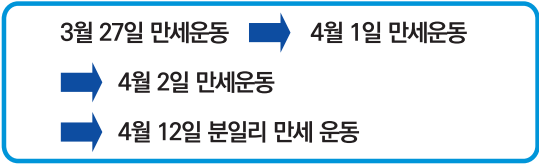
횡성 출신의 6.25 參戰者



횡성 출신의 월남전 참전

3·1 운동기념비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황성군민만세운동의
발자취



3.1운동 기념비는 민간주도형이다. 그러나 황성군 지역의 황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는 문화재관리국이 대상자를 엄선하여 건립토록 한 것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 황성군수가 주관이 된 정부가 공인하는 3.1운동 유적지이다. 황성은 범민족항일운동과 강원독립만세운동의 효시이자 진원지였다.

범민족항일운동인 황성 4.1만세운동은 시대를 초월한 전국민의 위로와 공감을 얻고 있다.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3.1만세운동과 4.1만세운동은 국난 극복을 위한 초석이었다. 앞서가신 황성인들의 애국심은 황성 지역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애국의 고장
황성의 뿌리 3·1 운동



3·1 운동 기념비



전국에서 세번째로
강원도지사의
황성 3.1운동기념비 제막식 거행
(동아일보 1972년 8월 15일)



황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

횡성 3·1 운동은 강원도 독립만세운동 효시(진원지): 영영포리

횡성 3.1 운동은 읍하리 천도교회 교수실과 영영포리 신재근 집에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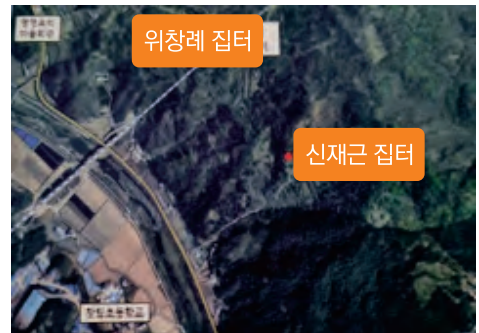
최종하, 신재근
애국지사

수형(受刑) 애국지사 최종하(崔宗河)

횡성 영영포리 살던 사람으로 천도교에 몸을 담아 횡성 대교구장으로 횡성 3.1운동을 이끈 애국지사이다. 최종하(징역 6월)

신재근(申在根) 애국지사

횡성 영영포리 출신으로 3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장도훈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입해 오도록 했다. 장도훈이 가져오자 영영포리와 횡성면 일대에 배포했다. 3월 27일 신대근과 장도훈은 윤태환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횡성시장 장꾼 300여 명에게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신재근(징역 2년 건국훈장 애족장)



위창래(영영포리 구장 성동초등학교 사친회장), 성동초등학교 교직원 일동 1945년

위창래 애국지사

1919년 횡성 3.1 운동 추진은 영영포리 441번지 신재근씨(당시 천도교 봉훈)집에서 이루어졌다. 위창래씨는 영영포리 구장이라 일제에 협력해야 하는 위치였으나 만세운동 거사가 일본 헌병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만세운동이 성공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만약 영영포리 구장 위창래씨가 횡성군민 만세운동을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횡성 만세운동은 사전에 발각되고 차단되어 실패하였을 것이다.

황성 3·1 독립 운동 황성군민만세운동

황성군민독립운동



3월 27일

4월 1일

4월 2일

1919년 3월 12일 독립선언서 배부하여 3월 27일 첫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4월 1일과 4월 2일 3차에 걸쳐 황성장터에서 있었다. 4월 1일(황성장날)은 양양(4월 3일) 평창(4월 4일)보다 앞서 최대 규모로 1300명이 참여하였다.

5명 사살, 13명 체포, 많은 사람이 태형을 당했다. 4월 2일 200명이 모여 체포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7일까지 시장을 철시하고 태극기 게양하며 장기간 치열하였다.

3.1운동 기념비가 민간주도형이었다면,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는 국비보조 사업이며 황성군수가 주관한 정부공인의 3.1운동 유적지로 탄생되었다. 황성군 106주년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가 2025년 4월 1일 개최되었다.



황성군민만세운동 이동경로

헌병분견소 터(현 삼일공원 주차장)



순국터(현 황성군청 뒤 느티나무)



옛 황성면사무소 터(현 소망약국 자리)



3·1 운동과
횡성군민만세운동

3월 27일 만세운동
횡성장터(재래시장)
(오전)



횡성 군청
(오후)



일본헌병분견소
(군청뒷편)
(저녁)

횡성군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때 일본 헌병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현 횡성군의회 위 느티나무 아래 총탄에 즉사한 사람, 피투성이이 된 사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검거 열풍이 몰아닥쳤다.

일부 시체는 현 정형외과 밑 소망약국 자리(옛 횡성군청 터)에 옮겨져 밤새 방치되어 횡성군민 전체의 슬픔을 더하였다.

당시 횡성면 서기로 당직을 섰던 박순기씨가 다음날 아침 광목을 사서 처리했고 피는 땅속까지 스며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반곡리의 박순기씨의 증언(녹취 1983년 박순업 전 횡성문화원장)



박순기씨

황성 3·1 운동 애국지사

순국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형(受刑) 애국지사
3.1운동 관련 비(非)
서훈(敍勳) 애국지사



독립운동 조형물



황성 삼일공원

순국 애국지사

강달회
하영현
전한국
강성순
김치정

受刑 애국지사

최종하
김인경
추병륜
정해경
김성서
김윤신
김윤배
조상렬
김연의
천선재
이기순
이윤택
김순서
전성수

황성 3.1운동 관련 비(非) 서훈(敍勳) 애국지사

운동선
윤석환
최양옥
이동구
최동수
이채일
김진대
김명기
탁영재
위창래
정두철
조홍열
김순이

검거된 주동급 애국지사

신재근
안경춘
강만형
윤택환

횡성 3·1 운동의 역사적 현장



만세공원(萬歲公園)



횡성 평화의 소녀상

횡성의 3.1운동을 기리기 위해 3.1운동 기념비가 1972년 8월 15일 제막되었다. 동아일보사가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웠으며 횡성을 읍하리 3.1공원내에 있다. 이후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1984년 3.1운동기념비 옆에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횡성에서 만세운동이 도내에서 가장 치열했고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 횡성군수가 주관하여 건립한 정부가 공인한 3.1운동 유적지라는 의미가 있다.

2019년 4월 1일 4.1만세운동 100주년에 횡성 군민 1인 1만원 운동으로 횡성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다. 왼쪽 어깨위의 새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 그밖에 한복 입은 소녀상, 그림자속의 하얀나비, 할머니의 그림자, 뜯겨진 머리카락, 뒤통치를 든 맨발, 빈 의자 등이 실체적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횡성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고 애국심을 고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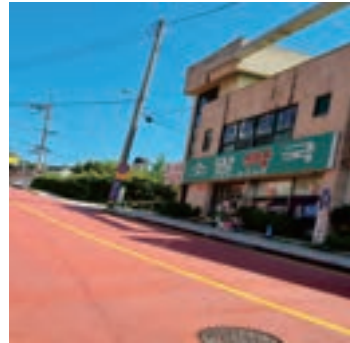


독립선언문 조각상

일제강점기 때 황성군청 4·1, 4·2 황성군민만세운동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4.1만세운동은 범민족항일운동이다.

일제강점기 때
황성군청
(기와집 뒷편)



4월 1일 만세운동은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 등 지도자가 있어 조직적으로 추진되어 밤낮으로 황성군민들에게 만세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4.1만세운동에 1300명이 장날 오후 4시 넘어 만세운동을 벌였다.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청 뒷산 일본 헌병이 총을 쏘았지만 3월 27일의 분노와 울분에 중단없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4월 1일 도내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은 황성장터가 역사적 현장으로 황성군민과 장꾼 1천300여명이 일시에 외치는 만세 함성으로 황성군민의 기개를 펼친 곳이다. 4월 2일 만세운동은 200여명이 1일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달라는 시위였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상점을 폐쇄하였다.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으로 7일만에 문을 다시 열었다. 일제 앞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 운동이었다. 황성군민만세운동 당시 황성군청의 위치는 현재 황성정형외과 길 건너편 소망약국 자리이다.



4·1 황성군만세운동 재현

4·1 황성군민만세운동 토크쇼, 삼일공원 애국지사

황성 4.1만세운동 토크쇼
및 문화예술공연



강원도 최초 최대 황성 4.1만세운동 스토리텔링화 사업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안부 공모사업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매년 4.1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토크쇼, 뮤지컬 공연, 사진전 등을 개최한다. 토크쇼는 학생들에게 4.1만세운동 의식을 고취시킨다.

황성 3.1운동: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안부 최우수상 수상

4. 1 황성군민만세운동일제 강점기

황성의 3.1운동은 강원도 독립만세운동의 효시이자 전원지이다.

황성에서 1919년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 첫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4월 1일과 4월 2일 3차에 걸쳐 황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을 4.1 황성군민만세운동이라 한다.

대표적 인물로는 최양옥 지사, 김순이 여사, 강만형, 윤태환, 신재근, 하영현, 위창래, 최종하, 김치정, 전한국, 강성순, 전성수, 김동수 등이 있다. 황성읍 읍하리에 위치한 3.1공원에 황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4.1만세운동은 범민족항일운동이다.

최양옥 (1893~1983) 강원도청 역임장, 황성 출생	안경춘 (1900~1973) 강원도청 역임장, 황성 출생
신재근 (1856 ~ ?) 강원도청 역임장, 황성 출생	최종하 (1877 ~ 1922) 대통령 표창, 황성 출생
강달회 (1898 ~ 1978) 강원도청 역임장, 영주 조종관 문하의 출생	천선재 간통 출생
윤태환 황성 출생	김순이 (1878 ~ 1952)
탁영재 (1893 ~ 1941) 강원도청 역임장, 황성 출생	강만형 (1897 ~ 1939) 강원도청 역임장, 영주 조종관 문하의 출생
강성순 (1893~1979) 대통령 표창, 황성 출생	하영현 (7 ~ 1919) 강원도청 역임장, 조종관 문하의 출생
정해경 황성 출생	전한국 (7 ~ 1910) 황성 출생

4·1 황성군민만세운동 시작과 끝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4.1만세운동은 범민족항일운동이다.

황성초등학교

1911년 공립황성보통학교로 개교했다. 1919년 3월 18일 8회 졸업식 직후 뒷산으로 올라가 만세를 부르기로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조선 고종황제의 승하를 애도하는 표시로 3월 16일부터 상장(喪章)을 달기로 하고 전교생에게 연락해 실행에 옮기며 4.1황성군민만세운동 도화선이 되었다.



황성초등학교 만세운동 시작

황성군 마지막 만세운동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

4.1 황성군민만세운동은 3월27일부터 시작해 4월1일 정점을 찍고 계속되다 4월 12일 분일리에서 마지막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송병기 등이 주도해 70여명이 뒷산에 올라 만세를 외치고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합세해 마을을 돌며 새벽 1시까지 만세를 부른 것이 4.1 황성군민만세 합성의 마지막 이었다.



서원면 분일리 만세운동 끝

횡성 종교 단체의 항일 투쟁 현장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확보해 온 장도훈을 통해 3월14일 영영포리에 위치한 신재근(천도교 봉훈)의 집에서 독립선언서 40매, 태극기 20기를 전달받아 배포하고 지휘를 맡았다. 3월 27일 횡성장터에서 시위준비를 지시하였다. 상점 문을 닫고 시위 인원을 조직했다. 초기시도에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경찰에 의해 곧 탄압을 받았다. 4.1만세운동에 감리교 청년회와 연대해 1300명이 시위에 참석토록 적극 이끌었다. 일제 헌병의 진압으로 사망 5명이 발생하였다.



횡성 봉복사



횡성감리교회



천도교 본산

민공호 항일 의병장은 봉기 이후 횡성 봉복사를 주둔지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군을 습격하며 격전하였다. 1907년 일본군은 봉복사 의병 350명을 기습하여 의병 50이 전사하고 봉복사를 불태웠다. 정미의병 때 민공호 의병장의 주둔지인 봉복사가 위치한 태기산은 계곡이 흐르고 산성이 있어 적의 침입을 막고 전쟁 물자 확보가 쉬워 을미의병부터 많은 의병장들이 근거지로 삼았다. 6.25 때 네덜란드 오우덴 중령은 횡성감리교회를 군 지휘소로 전투를 지휘했다. 교회 지대가 높아 전황을 파악하기 쉬웠다.

네덜란드 대대는 중공군에 용맹하게 싸웠다. 횡성 천도교 대교구는 횡성을 읍하리에 있었고 최종하 교구장과 신재근, 강만형 등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횡성 4.1 군민만세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6·25 전쟁 황성인 참전 현황



학도병



6.25 참전용사



전선에서 김동근



김현태 학도병

학도병 전사자 13명

남기태 전우택
정향균 한상준
권옥면 안규홍
정상철 김성배
김영기 김응배
이병국 남규성
이창재



1949년 경찰 사격훈련

6·25 참전 황성인 노병

고성태 김덕림 김동근 김동석 김명수
김명숙 김영배 김영환 김태호 박종남
백범세 석광운 손호익 안효명 오봉도
유원선 이병만 정수경 정위철 최경근
최창정 탁연숙 한봉희 함유덕 외

황성중 · 고 학도병 참전 현황 생존자 66명

6학년(4명 전사 29명 생존)
5학년(3명 전사 15명 생존)
4학년(4명 전사 16명 생존)
3학년(2명 전사 6명 생존)

황성경찰관 황성 사수

김문걸 박광훈
이원식 전재곤
정계항 정병익
최재우 홍석규
외 다수

횡성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수상내역
횡성군 제3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오늘을 사는 횡성 군민들은 그대들의 소중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성명	출생지	수상 내역
신재근	횡성	건국훈장 애족장
하영현	원주 소초면	건국훈장 애국장
김순이	경주읍	애국지사/독립운동가
최양옥	횡성 갑천면	건국훈장 독립장
강만형	원주 소초면	건국훈장 애국장
최종하	횡성	대통령 표창
탁영재	횡성	건국훈장 애족장
강성순	횡성	대통령 표창
전한국	횡성	애국지사/독립운동가
강달회	원주 소초면	건국훈장 애족장
김치정	횡성	애국지사/독립운동가
정해경	횡성	애국지사/독립운동가
윤태환	횡성	애국지사/독립운동가
천선재	횡성안흥	애국지사/독립운동가



해외 파병 용사의 날(5월 29일)
국가 기념일(2022년 지정)

국가공훈과 호국정신을 선양한 해외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3회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이 2025년 5월 29일 횡성군보훈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등 각 단체 회장, 파병 용사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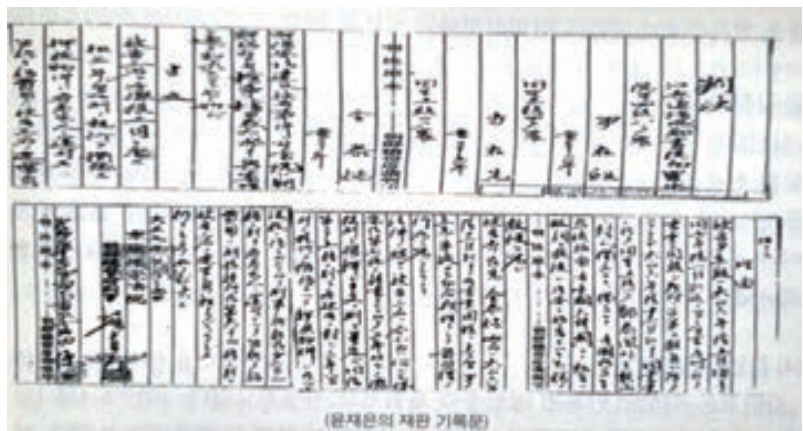
유학자(儒學者) 윤재은 재판 기록문

윤재은 선생은 횡성 출신의 유학자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지역 유림들과 민족의 자주독립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힘쓰셨다.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항일 시위를 전개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며 비밀 연락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횡성에는 강원도 최초 유학자 3.1운동 기념비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있다.

유학자 윤재은은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에 서당을 개설하여 훈장으로 후학 양성 중 항일 사상에서 “독립하세!!!, 독립하세!!! 독립하세!!!” 노래 가사말을 지어 함께 부르다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의 조선총독부 판사 3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三 · 一 운동기념비



횡성 3.1운동에 참여한 유생 명단

유학자(儒學者) 윤재은 재판기록문
유학지도자 김치정 독립운동

동아일보에서 도내 최초로 황성에 세운 유학자
3·1 운동기념비 기사 보도.

유학자 윤재은 재판기록문 :

유학자 윤재은은 황성군 서원면 풍수원에 서당을 개설하여 훈장으로 후학 양성 중
항일 사상에서 “독립하세!!!, 독립하세!!! 독립하세!!!” 노래 가사말을 지어 함께 부르
다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의 조선총독부 판사 3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강원도
최초 황성 유학자 3.1운동 기념비가 황성 삼일공원에 세워져 있다

유학자 김치정(?-1919)

김치정(金治正)은 갑천면 매일 3리 속칭 잔골마을 출생으로 50대 장년으로 한문서당
을 마련해 10여명을 대상으로 한학을 가르치던 유생으로 황성 4.1만세운동 때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황성에 가서 힘차게 만세를 불렀다. 군중이 증가하자 일본 헌병
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쓰러졌다.

성균관, 향교
유림 지도자

애국의 고장 황성
문화의 고장 황성

1919년 3·1운동에 한국 유림(137명 서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평화
회의에 한국독립을 청원하는 장서를 보내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펼친 사건이 있
었다.

이른바 500명이 일제 탄압으로 옥고를 치른 유림독립항쟁이다. 장서가 발각되지
않도록 장서와 짚을 섞어 꼬아 짚신으로 만들어 전달한 지혜로운 애국정신을 발휘하
였다.

황성 충혼탑(忠魂塔) **황성군민의 종**

2025년은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 충혼탑(忠魂塔) 현재 모습
 호국 이념을 사람 인(人)자와 햇불로
 상징화하여 호국정신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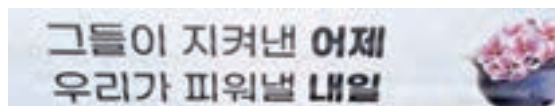


충혼탑 과거모습



황성군민의 종

충혼탑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조국
 의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
 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황성출신 군,
 경, 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68년 건립하였으나 규모
 가 작고 훼손되어 새로 건립하였다. 육해공
 및 경찰을 상징하는 4개 동상이 있고 탑을
 오르는 9개 계단은 황성 9개 읍면을 상징
 하며 탑 앞쪽에는 한국전쟁 참전국의 국기
 를 계양하였다. 충혼탑은 읍하리 삼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횡성 충혼탑(忠魂塔) 횡성군민의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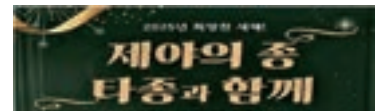
학송공원 ➡ 3.1 공원

새로 건립한 횡성 충혼탑은 호국 이념을 사람 인(人)자와 햇불로 상징화하여 호국 정신이 후대에 계승, 발전됨을 표현하였다. 높이 6m 폭 195cm이며 재료는 청동과 철재를 사용하였다. 육, 해, 공 및 경찰을 상징하는 4개 동상이 있고, 탑을 오르는 9개의 계단은 9개 읍면을 상징하며, 탑 앞쪽에는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참전 16개국의 국기를 게양하였다. 학송 공원으로 불리다가 3.1운동 기념비가 건립되면서 3.1공원으로 개칭하였다. 횡성군청 뒷편에 위치하며 주민들의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횡성군민의 종은 횡성 군민으로 매일 셋째주 토요일에 첫돌, 회갑, 시험합격, 입학, 창립기념일 등에 1회 1팀 9타를 누구나 타종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횡성 기관단체장의 횡성군민 종 타종식 모습이다.



국가의 고마움을 일깨워 준 충혼탑의 글



횡성군민의 종 타종식

순국 8용사 충혼비/무명용사 위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충혼비

6.25 전쟁 때 마을 치안을 위해 의용 경찰을 조직하여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8명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혼비다. 1965년 12월 1일 마을 주민들이 세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있다. 본래 높이 4.55m 콘크리트 탑이었으나 1983년 도로공사로 인해 철거했다가 대리석으로 다시 세웠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자랑스런 신화를 영원히 하고자 갑천면 면민들의 뜻을 모아 충혼탑을 1965년 10월 건립하고 그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충혼비는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자리잡고 있다. 순국 8용사의 명복을 빈다.



순국 8용사 충혼비

갑천면 화전리 무명용사 위령비

한국전쟁인 1951년 1.4 후퇴시 갑자기 중공군의 침공으로 육군 8사단 예하 부대의 수많은 용사들이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다.



황성의 국난극복 애국 선양

6.25 전쟁 당시 이 지역 출신의 학생들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갑천면 일원의 치안과 적색분자 색출 등 반공활동과 향토보호에 힘쓰다가 이 지역에 침입한 괴뢰군과 접전을 벌여 무기 및 인원부족으로 전원이 군번없이 학도병으로 전사했다.

불타는 젊은 피와 애국심으로 뭉친 갑천면 매일리 출신 8명 청년, 학생들이 결사대를 조직해 1950년 한국전쟁 10월초 의용 경찰을 조직하여 어답산과 태기산 일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황성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마을의 평화와 자유의 수호신으로 역할을 다한 영웅 8명의 군번없는 학병, 대원이 태기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들의 자랑스런 신화를 영원히 하고자 면민들의 뜻을 모아 충혼탑을 1965년 10월 건립하고 그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충혼비는 황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자리잡고 있다. 군번없는 학병으로 숨진 8용사는 진정한 애국심에 불타는 피끓는 용사였다.



하나의 전쟁, 4개의 명칭

우리나라 : 6·25

우리나라 외 : 한국전쟁(Korea War)

북한 : 조국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

중국 :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황성군 갑천면 충혼비

도곡리 6·25 전몰장병 위령비 학도병 충혼탑

2025년은 광복 80년 분단 80년



황성군 공근면 도곡리 학살의 계곡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웨스터(미국)씨가 기탁한 미화 400달러의 성금으로 산화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수를 했다. 황성중고 동문회(회장 한규호)는 2012년 6.25 참전 학도병 충혼탑 이전, 조형물 설치 준공 제막식을 거행했다. 황성군 도곡리 6.25전몰장병 위령비와 학도병 위령비를 보며 거룩한 희생정신을 잊지말며 숭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간직해야 하겠다. 꽃피어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학도병을 기리며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아래 사진들은 황성중고등학교 학도병 충혼탑과 학교 전경이다.



황성중 · 고등학교 학도병 충혼탑과 학교 전경



도곡리 6·25 전몰장병 위령비 학도병 충혼탑

학살의 계곡
공근면 도곡리

6.25 전쟁시 횡성전투에서 아군 사상자 12,000명이 발생하여 순직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6년 5월 6일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는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에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공산군 4개 사단 10만명 병력으로 국군 3, 5, 8사단과 미2, 7사단, 네덜란드 대대에 큰 피해를 주었다. 한달 후 이 지역을 탈환한 미 해병대가 이 현장을 보고 '학살의 계곡'이라 불렀다. 학살의 계곡에서 생존한 미군 웨스터씨가 보낸 성금으로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심은 나무다.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전사한 국군 및 유엔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영원히 추모한다. 2025년은 광복 80년 분단 80년이다. 도곡리 전투를 보면서 돌아가신 영령들의 소중한 피를 잊지말고 더욱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겠다.

6.25 전쟁 중 전사한 13명 횡성중·고 출신 젊은 학도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학도병 충혼탑을 2005년 건립하고 매년 횡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정기총회와 추모행사 및 체육대회를 거행한다. 광복 80주년이 지나 학도병 생존자들도 많이 돌아가서 생생한 학도병 전투 역사 이야기를 듣기가 더 이상 어려워 안타깝다.



횡성중·고 학도병 충혼탑 건립
(2005년 5월 8일)

호국무공수훈자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이 공적비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길이 빛날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와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건립(가로3m, 세로2m 높이 3.95m)하였습니다.

이 비에는 횡성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144명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시고 다시 한 번 이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횡성군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베트남 전쟁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용전분투한 무공수훈자 144위의 업적과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횡성군 무공수훈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대들이 있어 횡성이 존재함을 느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후세는 늘 명심해야 하겠다.

경찰 전적비



태기산 경찰 전적비



무공수훈자 훈장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경찰 전적비

횡성의 국난극복 애국 선양

횡성군청 뒤 보훈공원에 위치한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는 6.25 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무공수훈을 수여받은 자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2012년 공적비를 세웠다.

횡성군은 국방부와 함께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횡성군 관내에 있는 고장의 숨은 호국영웅을 찾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둔내면 삽교리 양구두미재의 경찰전적비는 1949년 북한 무장공비 토벌작전에서 활동한 청년 200여명과 경찰들의 작전 중 전사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2년 6월 5일 세웠다. 두미재는 영서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도로로 서울 원주 방면 방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점이었다. 국군 주력이 후퇴하는 와중에 횡성 경찰병력과 지방 자위대가 고개를 방어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경찰의 희생적 저항 덕분에 국군이 방어선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3년 횡성경찰서는 횡성군 둔내면 태기산에 위치한 경찰전적비를 찾아 헌화 및 분향했다.



6.25전쟁 전장의 병사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엠피 오우덴 중령 현충비



네덜란드 오우덴 중령

황성 전투 당시 소령 계급이었지만 전사 이후 1계급 특진하여 중령이다. 황성군은 오우덴 중령의 고향인 가스텔시와 자매결연하고 매년 10월에 양쪽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있으며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 사령관인 오우덴 중령과 그 휘하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3.1공원내 현충비를 세웠다.



황성감리교회

위치가 황성읍에서 가장 높아 황성읍 사수를 위해 황성감리교회 건물을 오우덴 중령 부대 지휘소로 전황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황성군 우천면)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 추모행사(2015년) 한규호 황성군수와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달의 전쟁 영웅 오우덴 중령선정해 추모했다.(2018년)
오렌지공 오우덴 중령의 혁혁하 전공(戰功)은 한국사에 길이 남는다.

1951년 2월 형성전투에서 갑작스러운 적군의 기습으로 전사한 네덜란드 군부대장 M.P 오우덴 중령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10월 읍하리 3.1공원내에 현충비를 건립했다. 지휘소로 쓰던 형성감리교회 건물은 적들의 포탄으로 파괴되었고 오우덴중령도 부상을 입었다. 오우덴중령은 몸을 피하기는 커녕 더 앞으로 전진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갑자기 네덜란드 지휘소 앞으로 50명 정도 정체불명의 병력이 접근해와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중공군 기습부대였다.

적군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오우덴중령이 파편에 맞아 전사했다. 횡성전투 당시 소령 계급이었지만 전사 이후 1계급 특진하였다.

흥충탑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순국한 형성군 출신 명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68년 6월 6일 3.1공원에 건립하였으나 훼손이 많고 규모가 작아 철거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우덴 중령을 최고 군사훈장인 Military Order of William으로 추서하였다.

현충비는 국가보훈부와 형성군에서 관리하며 매년 보훈단체에서 추모식을 연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엠펙 오우덴 중령 현충비



엠펙 오우덴 중령 추모식
(2016년 5월 11일)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

황성의 국난극복 애국 선양

6.25 전쟁 참전 16국 중 네덜란드 육군은 불의를 절대로 용서치 않는 오렌지공의 후예답게 해상작전도 전개하였고, 육군은 1950년 11월부터 1954년까지 황성 원주 양구 금화지구 등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귀국했다. 네덜란드군은 황성교 부근에서 철수지원작전을 하던 중 중공군의 대대지휘부 침투로 대대장인 텐 오우텐 중령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황성교를 지키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작전을 성공시켰다. 6.25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의 감사장을 받은 네덜란드 대대는 황성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다. 네덜란드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 인근에 기념비를 세웠다.

6.25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의
감사장을 받은 네덜란드 대대는
황성전투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거두었다.

애국의 고장 **황성**
문화의 고장 **황성**



네덜란드 황성전투 기념식

일제(日帝)의 야만적인 잔재(殘滓)

코 무덤의 비극 7년 임진왜란 : 임진왜란 2년(1592-1593년)
이비야(耳鼻爺) 3년 휴전 + 정유재란 2년(1597년-1598년)

정명가도(征明假道):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가니 조선은 길을 내주고 함께 공격하자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과 명나라를 공격하는 목적의 전쟁.

정유재란: 일본이 조선 남부 지방을 식민지로 복속(복종)시키는 전쟁으로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공격한 왜군은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마구 코와 귀를 베었다. 조선인의 코를 베어낸 숫자만큼 공로를 인정해 준 도요토미 히데요시(최고 통치자)의 명령이었다.

일본 교토의 임진왜란에서 베어 간 조선인의 코와 귀를 묻어놓은 무덤인 코 무덤이었으나 야만적이라고 하여 귀 무덤으로 부르고 있다. 귀와 코를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가 묻었다.

이비야(耳鼻爺) 耳(귀 이) 鼻(코 비)爺(사람 야)

남녀노소 군인까지 천지가 피바다가 되고 귀와 코가 잘린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우는 소리가 진동했다. 코가 잘린 산모가 놀다 들어온 아이에게 이비야(코와 귀를 베어가는 왜군이 왔으니 도망가라)라는 말에서 오늘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면 말할 때 '에비 에비야! 가 유래되었다.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가슴아픈 유래이다.

동대문: 興仁門, 서대문: 敦義門, 남대문: 崇禮門, 한복문: 弘智門, 보신각: 普信閣

4대문 인의예지신 전통을 말살하려고 일본 일제(日帝)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으로 고쳐 불렀다.

대한민국 보물 1호 동대문 = 흥인문(興仁門) - “인을 흥하게 하라!”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 = 숭례문(崇禮門) - “예를 숭상하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오상(五常)으로 조선시대 핵심실천 덕목이고 공자의 중심 사상이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의 버팀목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올바른 의미는 배가 아파야 좋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샘이 난다, 우리 민족성의 단점이다(X). 잘못된 해석 (일제 강점기, 일본이 조선인을 질투심이 많은 민족이라고 비하, 왜곡한 표현) 사촌이 땅을 사면 보태줄 것이 없어 배라도 아파서 거름이라도 줘야 할텐데(O).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

최양옥 애국지사는 1893년 12월5일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길준, 호는 추강(秋崗)이다. 1917년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중등학교에 들어갔고 3.1운동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후에 독립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일본 우편자동차 습격으로 체포되었다. 공명단 조직, 비행학교 설립, 일본 우편차 습격 등으로 10년 옥중생활을 하고 출소하여 지친 모습으로 매일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 지극한 효자였고 애국지사였다. 광복 후 인천형무소에서 근무하고 퇴임하여 고향에서 1983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최양옥
애국지사



최양옥 애국지사의 일본 우편자동차
습격 파괴 현장

2003년 최양옥 선생을 집중 조명하며 애국지사의 삶을 되새기고 있다. 황성문화원에서는 향토자료집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발간하여 기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양옥의 옥중카드 10년형

황성군 갑천면 출신의 최양옥 애국지사는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며 비행학교 설립 기금과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춘천에서 공금을 싣고 서울로 가는 일본 우편자동차를 습격하여 파손된 승합 차량.

동아일보 1929년 4월 18일

최양옥 지사는 국립묘지 가기를 거부하고 갑천면 전촌리 아버지 발밑에 묻히기를 원하여 그 뜻이 이루어졌다. 출소하여 매일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 지극한 효자였고 애국지사였다. 광복 후 인천형무소에서 퇴임하고 귀향하여 1983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수여 당시
강원도 가장 높은 훈격 훈장

1919년 3.1독립운동에 학교 중퇴, 횡성에서 동지를 규합해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4.1만세운동 전개하였다. 또한 독립운동단체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1920년 독립운동 중 연행되어 대구형무소 7년 복역함. 중국 북경으로가 산서성에서 대한독립공명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다. 공명(共鳴)이란 '함께 소리내어 알린다'는 뜻이다.

독립운동 자금 모금,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한 비행학교 설립과 일본 고관과 관헌을 살해 목적으로 춘천에서 공금을 싣고 서울로 가는 우편자동차를 습격하였다. 차속에 우편낭의 많은 돈을 빼앗은 후 일본인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동포의 우편물은 그대로 남기는 애국적인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형사에 잡혀 종로경찰서, 경기도경찰부, 경성지방법원 등 3차 고문과 신문을 받고 징역 10년 복역하였다.

출소하여 최양옥 애국지사는 이런 말을 했다.

“1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 다 쓸 수 없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국민장)을 수여했다.

1983년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에서 별세하였다

황성 민공호 의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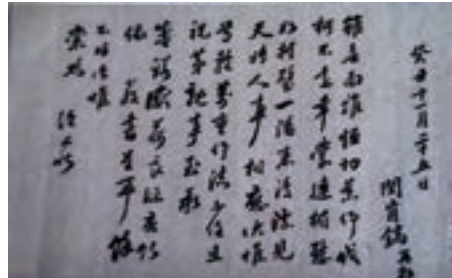
황성 민공호 의병장



을사늑약과 군대 해산의 국난기에 분연히 봉기한 강원 의병항쟁의 상징적 인물이다. 황성을 근거지로 원주 충주 제천 영월 등지에서 활약했다. 수 백명 규모의 의병을 이끌며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했다. 1908년 2월3일 제천 청풍호 부근서 일본군과 교전중 큰 타격을 입었다.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민공호 간찰(簡札) 손편지

내가 투항하면 일본 치하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부귀가 8역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나의 뜻은 나라를 찾는데 있으므로 강한 도적 왜(倭)와 싸워 이기지 못하여 흠속에 묻히지 못하고 영혼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민공호 의병장이 거느린 의병부대는 단위부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1908년 2월 29일 43세 나이로 장렬히 순국하였다. 강원 의병 주요 거점지가 바로 황성군 강림면 민공호 부대였다.

강원 의병 주요 거점지: 강림 민공호 부대



민공호 의병장 기념상



고민족영웅 의병대장 민특무공호공지충훈탑

형성 민공호 의병장

13도 창의군은 군대의 해산을 계기로하여 총대장 이인영 그 배하에 관동창의대장 민공호가 의병을 결성하고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민공호 의병장은 1856년 경성에서 태어나 1897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에 입대하여 1901년 특무정교로 승진하였다. 민공호 의병장은 인품이 강직하고 탁월한 지도자였다. 원주 장날인 1907년 8월5일 300명의 병사와 의병을 일으켜 원주 진위대 무기고를 부수고, 1,600여 정의 소총과 탄약을 노획하였다. 관동창의대장, 의병대장으로 활약하며 전투에서 지형을 잘 활용한 기습 전투, 산악 지대 게릴라전을 잘 전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민공호 의병대장은 강원도 지역 의병 투쟁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평가된다.

원주읍을 장악하고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흥천에서 수천 명의 의병부대를 이끌며 큰 전과를 올렸다. 민공호 의병부대는 단위부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1908년 강림면 월현리 지역 사람의 밀고로 43세에 장렬히 순국하였다. 그는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한 근대 민족운동의 횃불이 되었다.

그 공로로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민공호 의병장은 국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무장투쟁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형성군은 민공호 의병장을 지역 항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리고 있다.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의병장 묘소



민공호 의병대장과 원주의 해산 된 군인들, 의병들이 함께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는그림이다(원주 역사박물관)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한 민공호 의병장

횡성애국지사, 독립운동가 윤태환(尹泰煥)

윤태환은 22세로 횡성면 읍하리 살았으며 횡성 청년대장으로 3월27일 제일 먼저 만세운동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기미년 만세시위전날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노래를 부르며 시위 군중들에게 나누워 줄 장작을 팠다고 한다. 3월27일 윤태환은 신재근과 장도훈이 횡성시장에서 300여 명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를 받고 횡성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신재근(당시 65세) 장도훈(당시 49세) 안경춘(당시 20세) 강만형(당시 28세) 윤태환(당시 22세)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성지방법원 판사는 신재근과 장도훈에게 각각 징역 2년, 최양옥 처남인 안경춘에게 징역 10개월, 강만형에게 징역 8개월, 윤태환에게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복과 독립을 위한 대한의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 윤태환



윤태환 애국지사의 딸

윤신자씨는 수갑을 찬 채 서울로 압송당하던 부친의 초췌한 모습을 목이 메어 울 먹이며 증언하는 모습(1984년)

횡성 독립운동가
윤태환(尹泰煥)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독립정신

윤태환(尹泰煥)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출신이다. 신재근, 장도훈이 계획하여 추진한 1919년 3월 27일 횡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부르다 왜경에게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태형을 당하며 옥고를 치렀다. 윤태환은 시장 모든 상점을 닫게하고 사람들을 집합하여 300여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체포되었다.

신재근, 장도훈이 계획하여 추진한 1919년 3월 27일의 횡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27일 횡성시장에서 신재근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자 승낙하였다.

그는 다른 주동인물들과 함께 시장 내의 모든 상점을 닫게하고 사람들을 집합하여 300여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시 딸인 윤신자는 아버지가 시위대에 나누어 주려고 장작을 땀고 만세운동에는 학도가를 부르며 큰 태극기를 들고 나갔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옷옷도 벗기고 맨발인 상태로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는 용수가 씌워진 채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슬픈 기억을 상기하였다. 1919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노래를 불렀다.

횡성 독립운동가 윤동선(尹東先)

위대한 독립운동가 윤동선(尹東先)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 횡성출신 윤동선

20대 젊은 나이에 횡성 4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스스로 참가하였다가 불의의 기습적인 총상으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고초를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다.

윤동선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1897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서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고 무장투쟁을 지원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시를 받아 정보활동과 의열 투쟁에 참여했다.

횡성은 역사적으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횡성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특히 4월 1일, 4월 2일 이틀간 횡성 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강원도내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저항으로 평가된다. 2025년은 광복 80년 분단 80년이다. 독립운동가, 의병들의 소중한 피를 보면서 돌아가신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말고 더욱 애국정신을 다져 나가야 하겠다.



3.1 운동기념비 제막식(1972년 8월 15일)에서 횡성 출신의 윤동선(尹東先) 독립운동가는 그 당시 최종완 강원도지사로부터 영광스러운 기념패를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 횡성출신 윤동선
횡성 독립운동가 윤동선(尹東先)

윤동선(尹東先)은 강원도 횡성읍 영영포리에 살고 있었다. 영영포리는 마을에 앞에 흐르는 전천(前川, 앞내)이 길고 길어서 영영개라고 하였는데 윤동선이 평소 냇물을 바라보며 애국심을 길렀다.

25세 젊은 나이에 1919년 4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스스로 참가하였다가 불의의 기습적인 총상으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고초를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다.

3.1 운동기념비 제막식에서 강원도 횡성 출신의 윤동선(尹東先) 독립운동가는 그 당시 최종완 강원도지사로부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기념패를 받았다.

사진은 횡성읍 영영포리 전천의 천렵바우이다. 골짜기 앞 개울에 있는 넓은 바위로 냇물이 흐르고 천렵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횡성읍 영영포리(永永浦里)



영영포리(永永浦里) 천렵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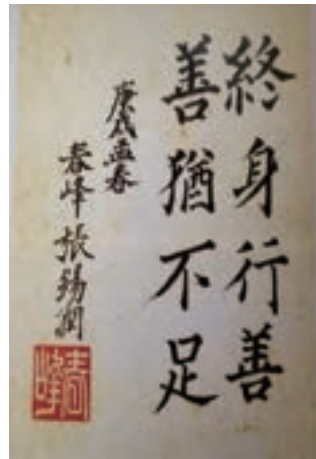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 장석윤(張錫潤)

황성인 장석윤
미주에서의
독립운동과 삶

일제강점기 미국전략첩보국(OSS)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 내무부장관, 민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장석윤의 좌우명인 선(善)을 평생 실천하는 인격자로 뛰어났으며 애국심도 매우 커서 미주 지역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쳐 이승만 박사의 추천으로 한국인 COI(정보조정국) 대원 제1호로 선발되었다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 장석윤



장석윤의 좌우명

죽을 때 까지 선(善)을 행하였어도 그 선(善)은 오히려 부족하다.
1970년 음력 정월

이승만 박사의 추천으로 한국인 COI(정보조정국) 대원 제1호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정보조정국은 얼마 후 해체되고 전략첩보국으로 개편되어 대원으로 활동했다



진달래농원(황성읍 진양원 전신)
백송앞에선 장석윤
(청담 스님에게 선물로
받은 백송을 좋아했다)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 장석윤(張錫潤)

장석윤은 이승만 박사의 추천으로 한국인 COI(정보조정국) 대원 제1호로 선발되었다

1904년 황성군 청일면 유평리 출생의 장석윤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경성제 일고에 무시험 추천으로 입학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1924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승만을 대면하고 그의 추천으로 태평양전쟁 때 미국 전략첩보국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미군 비밀정보부대에 선발되어 비밀 공작활동으로 일본군 와해작전을 폈다. 1944년 중국 곤명의 미 14 공군기지로 차출되어 이승만 박사와 임시정부 김구 주석 연락책임을 맡아 미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50년 내무부 치안국장으로 기용되며 보도연맹 책임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더욱 기사화하여 애국정신을 드높였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도신문을 인수하여 1951년 2월 1일부터 신문을 속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1952년 내무부장관, 제3대 민의원을 지냈다. 2004년 사망했다.

황성의 국난극복 애국 선양



이화장에서 프란체스카여사 생신 축하 사진
오른쪽 두 번째 장석윤 전 내무부장관



내무부 치안국장 임명
(1950년)

김순이 독립운동가 헌다례

김순이 여사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황소 아줌마,
황소할머니로 불리웠다



갑천면 중금리 김순이 여사 묘에서 헌다례(차공양) 행사



갑천면 중금리 한치고개 김순이 여사 묘

김순이 여사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황소 아줌마, 황소 할머니라 불리웠다. 일본 왜경(日警)이 말을 타고 다니며 제지하면 말의 뒷다리를 잡아채어 말을 쓰러뜨리고 화가나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면 대단히 무서워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김순이 독립운동가는 경주에서 태어나 20세인 1898년 안흥면 박영화와 결혼했으며 30대에 남편과 사별한 후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차리고 남매를 키웠다. 6척 거구에 힘도 장사여서 주민들은 황소아줌마로 불렸다. 1919년 3월초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황성에 독립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김여사 주막을 찾아든 천도교인 이재일을 만나고 이어 독립운동가 최양옥도 주막에서 만나 그를 적극 돕기로 하면서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애국지사이며 독립운동가이다.

황성 4.1만세운동을 준비할 때부터 거사일까지 적극 가담했다가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52년 12월 19일 여사가 숨을 거두자 마을 사람들은 갑천면 구방 2리 공동묘지에 여사를 안장했다. 1990년 황성군에서 한치 저수지 인근 당시 김여사가 운영하던 주막 근처에 새로 안장하면서 김순이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을 빛낸 이달의 독립 운동가
(2013년 4월)”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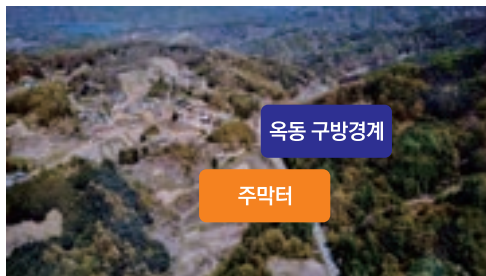
매년 4. 1 만세운동의 주역인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인 김순이 여사를 기리고 추모하는 헌다례(차공양)를 횡성향교와 횡성문화원에서 공동으로 봉행한다.

김순이 애국지사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모든 위험을 무릎쓰고 최양옥 애국지사의 독립군 자금모금을 위해 노력했고 주막을 차려 애국지사의 모임에 은밀한 회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는 4. 1만세운동 전개에 스스로 앞장선 황소아줌마였다. 4.1 만세운동 때 일경 주재소를 직접 파괴했고 일경 총소리에 놀라 숲 집으로 숨는 남자들을 부엌칼로 위협하며 만세운동 시위현장으로 내몰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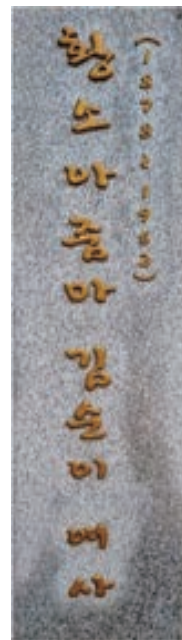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 외롭게 묻혀 있다가 1989년 지방유지와 횡성군에서 한 치고개로 묘를 이장하여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조성하여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아래 사진은 황소 아줌마 김순이 애국지사를 모신 횡성 삼일공원과 김순이 여사가 직접 운영했던 주막터가 보인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가 운영한 주막터와 옥동 구방경계



황소 아줌마
김순이 여사

세덕사 추향제

(음 9월 3일)

삼원수 장군
(조충, 조영인, 조계순)



세덕사 추향제

고려시대에 조충 장군(거란족의 침입에 승리), 삼원수 장군 (조충, 조영인, 조계순) 추향제(秋享祭)를 세덕사에서 매년 음력 9월 3일 횡성향교와 횡성조씨(橫城趙氏) 종친회에서 올린다. 조충은 고려시대 거란족을 막은 대장군으로 본관은 횡성이며 고려 명종 원년(1171년)에 태어나 고종 7년(1220년) 50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횡성에 역사적으로 찬란한 삼원수 장군이 있었다는 것은 횡성의 자부심이고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거란족은 요나라를 세운 민족으로 고려와 국경분쟁과 침입을 반복하였다. 이에 조충은 당당히 거란족을 막은 대장군이였다 1217년 여진의 침입을 저지하고 1218년 거란 잔여 세력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1219년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시대 문무 최고 지위인 문하시중 상장군을 지낸 문정공 조충장군이였다. 1220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조충 신도비와 문정공 조충(趙冲) 지석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10호)

세덕사 추향제 (음 9월 3일)

세덕사 추향제 2001년 강원도의 열 선양 사업 선정

삼원수 장군
(조충, 조영인, 조계순)

조충 장군 묘소에서 발견된 지석은 고려시대 문무 최고 지위인 문하시중 상장군을 지낸 문정공 조충장군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1218년 거란군을 항복시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조영인은 의종때 급제하였고 명종때 승선이 되었으며 벼슬이 수태위상주국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이고 신종이 묘정에 배향하였다. 조계순은 조충의 아들이고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광정(光定)이다.

지석은 가로 89.1cm, 세로 55.5cm, 두께 4cm 크기의 청석에 가로 세로 50줄에 2천여 자의 한자를 조각한 것으로 800여년 전의 조각술, 한문체, 고려사 연구에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묘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 묘소 위치 등을 기록하여 무덤에 묻어두는 것으로 원래 그의 묘소와 함께 황해도 개성군 상동면에 있는 연동의 태조왕능비 서편 언덕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해방후 도굴꾼들이 파헤쳐 1948년 후손인 지금 자리로 옮겼다.



삼원수 장군 (조충, 조영인, 조계순) 추향제



2016년 세덕사 추향제가 황성 읍 정암3리 세덕사에서 종친회와 한규호 군수, 이대균 군의장, 박순업 황성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강성순(姜聲順) 순국 열사

강성순 순국열사는 횡성 장날에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총탄을 맞았다고 법주리 유영근씨는 증언하였다. 정부에서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그의 향리에 있는 그의 묘소가 정화되어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횡성에서 목숨을 초개(草芥)처럼 바친 진정한 애국열사였다.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그의 묘소가 정화되어 국민(國民)들과 후손(後孫)들이 애국정신(愛國精神)을 기리고 표상이 되고 있다. 강성순 순국열사를 기리며 애국심도 다져야 한다.



순국열사(殉國烈士)
진주강공성순지묘
(晉州姜公聲順之墓)

열사와 의사 차이점



열사: 맨몸으로
저항하고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의사: 무력(武力)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애국지사 강성순
손자 며느리



애국지사 강성순 묘소앞에서 횡성문화원
이사와 손자 며느리

강성순(姜聲順) 순국 열사

횡성의 의병 및 애국지사
강성순의 발자취를
찾아서

강성순씨는 횡성군(橫城郡) 우천면 법주리 사람으로 천도교인이다. 1919년 기미년 4월 1일 횡성 장날 천도교인들이 주동(主動)하여 일어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에 참여(參與)했다. 그는 전날 잡은 노루 한 마리를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판 다음 만세운동에 합류(合流)했는데 그 때 강순사가 “종씨! 여기서 만세 부르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빨리 집에 가시오.” 라고 말하며 등밀이를 하는 통에 향교말쯤 올라오다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겁나 만세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 며 일행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내려와 앞장서서 만세(萬歲)를 부르다 그날 밤 일본 헌병들의 발포(發砲)로 순국(殉國)하였다고 유영근씨는 증언한다.

정부(政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追敘)하였다.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그의 묘소가 정화되어 국민(國民)들과 후손(後孫)들이 애국정신(愛國精神)을 기리고 표상이 되고 있다.

4.1 횡성군민만세운동 당시 순직한 강성순 애국지사를 국가보훈처에서 강승문으로 등재하여 대통령 표창만을 수여했다. 실제로 강승문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수정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오 안타깝다.



강성순 후손인 장손 며느리 심옥재(86), 손자 강병춘 (82), 박순업 횡성문화원장이 강성순 열사 기념비를 가리키고 있다(2022년 2월 28일).

탁영재(卓永載) 애국지사

황성 천도교회는 만세운동 주도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황성감리교회의 지도자 탁영재(卓英才)와 정해경(鄭海璟)에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연대를 강화하였다. 탁영재 애국지사는 정해경과 함께 황성 출신으로 4월 1일 2일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황성군의 위대한신 탁영재 애국지사는 황성군민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철원에 국단(대한독립애국단강원도단)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러한 공로(功勞)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政府)는 탁영재의 업적(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을 추서(追敍)하였다. 황성 애국지사 탁영재는 황성만세운동, 철원애국단 독립운동을 전개한 위대한 애국자였다.



탁영재 애국지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탁영재(卓永載) 애국지사

황성의 만세운동의
선봉에선
탁영재 애국지사

1867년 황성(橫城)에서 태어나 황성감리교회 지도자로 1907년 정미의병 때 의병(義兵)으로 가담(加擔)하여 활동(活動)하였다. 의병장(義兵長) 이석영 휘하(麾下)에서 무장투쟁(武裝鬭爭)을 벌였고 항일운동(抗日運動)을 계속 이어갔다.

황성천도교회는 일경과 일본군에 발각되지 않도록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황성천도교회는 만세운동주도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황성감리교회 지도자 정해경, 탁영재에게 연락을 취해 연대를 강화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황성군민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철원애국단(대한독립애국단강원도단)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러한 공로(功勞)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政府)는
그의 업적(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을
추서(追敘)하였다.

탁영재
애국지사

황성감리교인, 황성 만세운동 참여
항일 비밀결사대 철원애국단 가입
독립운동 전개 중 체포 옥고 치름
1995년 건국훈장 추서

탁영재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27일 황성 장날에 일어난 황성군민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항일 비밀결사 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대한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된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철원이 강원도단의 중심지여서 철원애국단이라 불렸다.

철원애국단에서는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축하하는 만세시위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철원애국단은 1920년 발각되어 조직이 와해되었고 탁영재는 이 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상열(韓相烈) 의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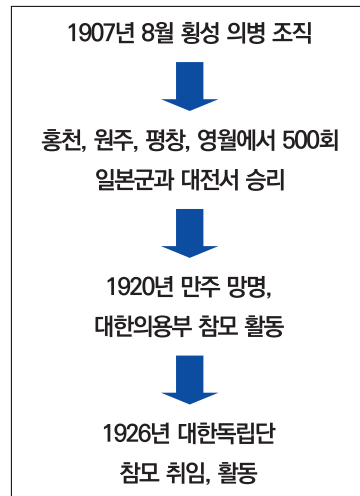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이어진 항일무장투쟁의
별 한상열

이것은 이길 줄로 믿고 시작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승패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 한상열 의병장



한상열 의병장 추모비 (우천면 우항리)



한상열 의병장 추모비 답사



한상열의병장 개선행진 시가행열과 제1회 추모 문화제 개최(2022년)

한상열(韓相烈) 의병장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이어진 항일무장투쟁의
별 한상열

의병장 한상열은 황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최인순, 강도영 등과 함께 5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1907년 8월 황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이 주둔하던 충주성 공격에 앞장섰고 홍천 원주 평창 영월 등지에서 500여 회 일본군과의 대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한상열 의병장은 1920년 만주로 망명, 대한의용부의 참모로 활동, 1926년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활동했다. 같은 해 9월 주중 청년연맹 공산단원들의 흉탄에 안타깝게 51세에 별세했다. 항일무장투사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국민장을 받았다.

추모비는 1992년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 20년간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큰 공을 세운 의병장이다. 2022년 제1회 추모문화제를 거행했다,

한상열 의병장 기념사업회 단체 대표자명 박광진
황성군 우천면 한우로 1440



황성 한상열 의병장 추모비 옆 비석



제1회 한상열 문화제(2022년 8월 15일) 황성군 우천면 개최

최인순(崔仁淳) 의병장

의병장 최인순
1865. 11. 25~
1907. 10. 23

황성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일제침략에 맞서서 싸웠으며 최인순 의병장의 의병부대는 주로 강원도에서 활동하면서 일본군과 여러 전투를 벌여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최인순 의병장의 생가 터 (우천면 법주리)



정부가 추서한 1977년 대한민국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황성군 우천면 법주리에 살던 최인순 의병장은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 참여, 일본군과 싸우고 원주 이참령 대대 소모대장(小募大將)으로 복무하였다.

그러나 겁을 먹은 이참령 대대장은 800여명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기를 창고에 저장하고 도피한다. 이에 최인순은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일본군과 본격적인 항전에 들어갔다. 최인순 의병장은 항상 선봉에서 싸웠다고 증언한다.

1907년 일본군이 원주에 진입하자 최인순 의병장은 부대 해산을 막고 병력을 수습하며 의병을 조직하여 황성 안악 강림 평창 대화 문주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진부 전투 후 강릉 배다리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최인순(崔仁淳) 의병장은 황성군 출신의 의병장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이다.

최인순(崔仁淳) 의병장은 횡성군 출신의 의병장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이다.

橫城은 愛國의 고장이다

최인순 의병장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민
공호 의병장이 강림 전투에서 전사한 비보를 듣는다. 이
런 어려움속에서도 최인순, 한갑복 휘하의 의병들은 충
전하여 강릉으로 이동하면서 진부 등에서 교전하여 일
본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강릉에 못 미쳐 배다리에 진을 치고있다 일본
군의 야습을 받고 전투 중 1907년 10월 23일 43세 일
기로 뜻을 이루지 못한채 안타깝게 전사하였다. 최인순
의병장의 아들 최윤증(작고, 연대 미상)씨도 일본군의
박해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죽음에 따른 깊은 상
심속에 머리로 산발한채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결국 횡성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일제침략에 맞서
서 싸웠으며 최인순 의병장의 의병부대는 주로 강원도
에서 활동하면서 일본군과 여러 전투를 벌여 상당한 타
격을 입혔다. 최인순 의병장은 지역주민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의병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
어 독립운동을 지속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대한민국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석공일을 하던 최봉수
(최인순 손자)



유영근씨는 최인순과
이웃 관계였다.
한편 강성순과 친구였고
한상열은 처삼촌이었다.

황성의 고려 충신 이반계(李攀桂)



이름	이반계(李攀桂)
관직	고려 말 예부상서
주활동	조선건국 반대, 두문동 은거 절의 지킴
사후 평가	경원군 봉작, 영의정 추증 시호는 충절(忠節)
후손 문중	원주 이씨 중시조, 대제학 등 격려된 후손 존재
유적	황성군 정암리 신도비 및 묘

증시조 경원군 송헌 이반계는 불사이군 충절을 지킨 두문동 72현 중 한 분(원주 이씨 경주계) 충직하게 군자된 상징으로 절개를 지킴. 이반계(李攀桂)는 고려 말의 충신으로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냈다.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권하여으나 모두 사양하던 중 태종이 친히 찾아오자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치 고려 말 대표적인 군은 충절의 정몽주와 같은 충성의 인물이다.

불사이군(不事二君)

황성의 고려 충신
이반계(李攀桂)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고려 충신
이반계(李攀桂)

파조(派祖) 이만계(李攀桂, ? ~ 1392) 호(號)는 송헌(松軒)이며 작위(爵位)는 경원군(慶原君), 시호(諡號)는 충절(忠節)이다. 고려시대 말기,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文臣)이다. 고려왕조에서 예부상서(禮部尙書)(조선시대의 예조판서에 해당)를 지냈고, 조선 왕조에서 태종 이방원이 그의 절개를 높이 사 영의정을 추증(사후 작위나 벼슬을 내리는 일)하였다.

은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문인(門人)이다. 은곡 원천석과는 친구사이이며, 예부상서(禮部尙書) 시절(時節) 이방원을 제자로 가르쳤다. 고려 공민왕(恭王) 때 전의교위(殿毅校尉), 신흥위영종랑장(神虎衛營從中郞將)과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歷任)하였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朝鮮)을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운곡 원천석과 함께 강원도 원주 사전리 치악산에 은거하며 고려의 운이 다하고 이씨의 세상이 됨에 차라리 굶어 죽을지라도 “이씨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후 태종이 이반계를 우의정에 제수하고자 사전리를 직접 환어행차로 찾아오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그의 시배(侍陪)인 황필(黃必)에게 내가 숨은 곳을 알리지 말라하고 피신했다.

황필은 왕에게 거짓 고하면 화를 면치 못함을 알고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이반
계 역시 혀를 물어 목숨을 끊었다. 후에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그의 절의(節
義)를 가상히 여겨 경원군(慶原君)에 추봉(追封)하고 증직(贈職)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하였다.

고려충신 16명

정몽주 조충 복지겸 홍유
신숭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조선의 명재상 횡성인 고형산(高荊山)

세상에서 그를 가리켜 뇌실재상(牢實宰相)이라 하였다.

고형산이 수행한 관직은 성종 때 지평현감을 시작으로 중종 때 이조판서 겸 우찬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모든 관직을 두루 거친 명재상이었다. 한편 중종 6년(1511년) 계모가 79세가 되어 봉양을 위해 횡성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형조판서직을 사직하려 했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고 강원도 관찰사로 고향에서 목민관 역할을 하며 모친을 봉양하는 효도를 하도록 배려하였다.

오랫동안 군(軍)의 병사(兵事)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성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성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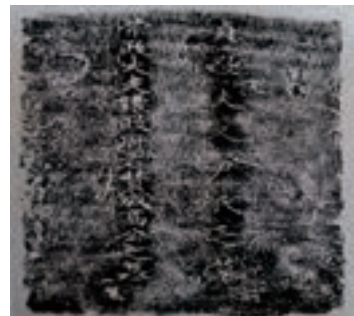
고형산 묘

고형산

출생과 본관: 횡성 태생, 횡성 고씨
자와 시호: 자는 정숙(靜淑), 시호는 익평(翼平), 위열(威烈)
과거 및 경력: 사마시에 생원 합격
1483년 별시문과 병과 급제후
해주목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등 외직을 역임



고형산 묘 문인석



묘비 탁본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형산(高荊山)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도로 개통

고형산은 1453년(단종1년) 황성에서 출생하여 1483년(성종14) 과거에 합격하여 지평현감을 시작하여 45여년 한성판윤, 함경도와 강원도 관찰사, 대사헌, 대제학, 6조판서, 우찬성을 두루 거친 황성이 낳은 자랑스러운 조선의 명재상이었다.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형산(高荊山)

세상에서 그를 뇌실재상(裨實宰相이라 한 것은 그야말로 고형산을 왜 조선이 명재상이라 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조선 성종 및 연산군대, 중종의 전반기, 후반기에 조선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재상이었다.

뇌실재상이란 굳건하고 우직하게 국가의 일에 충실히 수행하는 재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그를 뇌실재상이라 하는 것은 사관의 평가가 단순한 사관 한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의 주변과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황성인 고형산(高荊山)은 조선의 명재상이고 황성이 낳은 자랑스러운 강원인 물이다.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도로를 개통한 일이 주목을 받는다. 한 두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가던 대관령 길을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우마차가 다니도록 닦은 일은 위대한 업적이다.

고형산 관련 설화와 일화를 보면 고판서와 도깨비 전설, 솥을묘 전설, 고형산과 대관령길, 고형산과 김양진의 술 마시기 시합, 고형산과 죽궁 개발, 고형산의 술 빚기와 말 기르기 감독 일화, 술을 즐긴 신용개와 고형산 이야기 등이 있다.

청백리 명재상 항재 정종영(鄭宗榮)



항재 정종영 초상화

본관 초계(草溪)
자/호 인길(仁吉) / 항재(恒齋)
시호 정헌(靖憲)
관직 경상도 평안도 관찰사,
한성부판윤, 육조판서, 우찬성 등
저서 항재집 서예에 조예깊음
유산 청백리, 칠봉서원 배향,
횡성 지역의유적으로 기려짐

횡성과 정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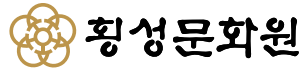
정종영은 1513년(중종8년) 원주 봉산동에서 태어났지만 각종 관직으로 한양을 비롯하여 타지 생활을 하다 낙향하여 1599년(선조22년) 8월 11일 별세하여 횡성 공근리에 매장되었으니 그곳에 잠든지 426년이 흘렀다. 한편 강원감사를 지낸 공의 장손인 기광이 1613년 횡성 공근면 학담2리 초당동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412년 동안 후손이 터전을 이어오고 있으니 횡성과 대단히 인연이 깊다. 정종영은 47년 고위직에서 고향 향리로 치사(致仕벼슬에서 물러남)를 선택한 조선 시대 최초의 관료이다. 초계정씨 관동파 문중(門中)은 정종영 묘소를 횡성 공근에 조성하고 항재 정종영의 유지(有志)를 받들고자 벽옥정에 마을을 조성하였다



초계 정씨 종택 (사랑채)



정종영 신도비



황성문화원

2019 관내 향토사료 발굴 자료조사
황성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정종영은 중종 35년(1540년) 사마시 양과(생원시와 진사시)와 중종 38년(1543년) 문과에 합격한 이래 강원 경상 평안 전라 관찰사, 6조판서, 우찬성(우의정)을 역임하며 청백리 명재상이다.

정종영은 47년 고위직에서 고향 향리로
치사(致仕)벼슬에서 물러남을 선택한 조선
시대 최초의 관료이다

정종영은 원주 봉산동에서 태어났지만 후손들이 묘소를 황성 공근에 조성하고 벽옥정에 동족마을을 만들어 400여년 동안 거주해 황성에 뿌리를 내렸으며 공근 지명도 이 묘소 때문에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정종영은 4대 국왕(중종 인종 명종선조) 47년에 걸친 오랜 출사(出仕)를 통해 치인(治人)에 헌신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학문에 몰두한 인물들에게 보이는 위학(爲學) 수기(修己)적인 성향과 다소 비교되기도 한다.

초계정씨 관동파 문중(門中)은 정종영 묘소를 황성 공근에 조성하고 항재 정종영의 유지(有志)를 받들고자 벽옥정에 마을을 조성하였고 3년상을 지낸 다음 인근 벽옥정에 동족마을을 만들었다. 이후 문중(門中)은 32세(世)에 이르도록 4백여년 거주하며 원주 황성에서 손꼽히는 명문가(名門家)로 자리잡았다.

공양공 김관(金瓘) 영정

기타지원문화사업

도유형문화재
제142호(01. 12. 29)



공양공 김관(金瓘) 영정

공양공 김관(金瓘)은 문하시중 위열공 김취려 장군의 9세손이며 성종 때의 정치가이다. 휘는 관(瓘) 자는 영중(瑩仲) 호는 묵제(默齊) 시호는 공양(恭襄)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조선 세조 13년(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워 적개공신이 되었다.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영안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성종 16년(1485년) 향년 61세로 별세하였다. 영정각은 둘째아들 자손이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에 건립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영정의 크기는 가로 88cm, 세로 154cm 인물크기는 139cm로 왼쪽 얼굴을 약간 돌린 좌안 7분면에 발을 발판위에 두고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 화법이다.

공양공 김관(金瓘) 영정

갑천면 상대리 119

도 기념물 지정일:

2001. 12. 29

소유자:

언양김씨 사헌공파 종친

愛國의고장 橫城

공양공 김관(金攢)

도유형문화재 제142호

명 칭: 공양공 김관(金攢) 영정

소재지: 황성군 갑천면 상대리 119

소유자: 언양김씨사헌공파종친

김관은 고려시대의 장군인 김취려의 9세손으로 시호(諡號)는 공양(恭襄)이다. 조선 문종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형조좌랑, 병조정랑을 지냈다. 조선 세조때 이시애의 난에 큰 공을 세워 적개공신이 되었고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영안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국왕으로부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서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사신(使臣) 경차관(敬差官)을 지냈다. 김관은 세조 14년(1468년) 강원도 관찰사 부임 당시 왕명으로 양양 낙산사를 크게 중수하였다. 공신도상(功臣圖像):공신 및 자손들에게는 치하와 보상의 의미로, 백상들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내려진 공신(功臣)의 초상화이다.

성종16년 향년 61세로 별세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매장되었다. 공(公)을 배향(配享)한 육송사와 영당은 전북 김제에 있고 영정각은 공의 둘째 아들 자손이 황성군 갑천면 상대리에 건립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관리자: 언양김씨 사헌공파 종친(상대리김성규 가)

공양공 김관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양양 낙산사를 중수하였다.



공양공 김관 영정각(황성군 갑천면 상대리)

황성군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

강원 의병 주요 거점지 : 서원 이인영 부대

무덤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금대리 의병총이 된 것은 무덤에 안치된 의병들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슬픈 사연이다.

1907년 서원면에 위치해 있던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순국한 열사들의 의병총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원면 금대리 석자동에 있어 금대리 의병총인 것이다. 금대리 의병총은 이인영이 총 지휘한 의병의 항일 항쟁 전투 과정에서 순국한 의병들을 합장한 무덤이다.

이인영 부대는 고모곡의병(지금의 서원면)에 주둔하였다. 이인영은 전국 부대를 하나로 규합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총대장이 되어 의병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여赫赫한 공을 세웠다.



13도 창의군(13도 연합 의병 부대) 총대장 이인영(李麟榮)



금대리 의병총



이인영 생가터앞에 세워진 의병대장 이인영기념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



금대리 의병총

이인영 13도 창의군 서울 진격
작전 모형(독립기념관)

횡성군 고모곡(서원면) 금대분교 옆 의병총으로 6구의 분묘형상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 서원면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 옆에 분묘를 만들고 금대리의병총이라고 비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횡성 고목곡(현 서원면) 지도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서원면에서 700여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고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 경기 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여 일본군과 맞섰으나 한성 진격 도중에 노출되어 실패하였다.



이인영 생가 복원 모습



금대리 의병총 제례 모습

을미의병, 을사의병 중심지 횡성(橫城)



을미의병, 을사의병 중심지 횡성과 주변 지역

을미의병 당시 횡성의 동쪽에서는 강릉에서 민용호(閔龍鎬)가 의병을 일으켰다. 횡성의 북서부에 위치한 춘천과 가평에서도 이소용 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 운동이 전개되어 들끓처럼 확산되었다. 횡성의 남쪽에서는 제천의 유인석 부대와 충주 의병이 대규모로 봉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횡성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근 원주 지역에서도 의병 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을미의병 당시 횡성 지역은 다양한 의병운동 활동 세력의 진원지 내지는 구심점이 되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횡성 지역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구성해서 활약했다기 보다는 횡성을 둘러싼 춘천 제천 충주 원주 강릉 등 여러 지역의 의병 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시한번 말하면 횡성에서 일어난 을미의병 운동 초기 단계부터 횡성 지역은 의병을 일으키자는 군민들의 분위기가 타시군보다 가장 적극적인 장소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횡성은 의병 운동 활동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횡성과 동서남북으로 인접한 도내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대규모 의병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을미의병은 대표적인 횡성 출신 권대형(權大亨)으로 1896년 전후로 강릉의 민용호와 함께 영동지방의 고성 양양 등지를 점령하고 친일 군수를 처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후 권대형은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면서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만주로 들어갔다. 횡성에서 일어난 을사의병은 죽음앞에서도 기개를 잃지않은 자랑스러운 횡성 출신의 원용팔 의병대장이 횡성과 원주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강림리 의병총

강원의병 주요 거점지
횡성 강림 민공호 부대

강림리 의병총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한국군대를 해산하자 격분하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백성들이 민공호 의병장 휘하에 봉기하였다. 강원도 강림리 의병총(민공호 피체지)

민공호의병장이 체포되어 60여명의 의병부대가 민공호 의병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강림에 도착하였으나 일본군은 민공호 의병장이 탈출할까 두려워 강림에서 살해하였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중심지가 횡성이었다.

횡성 강림리와 금대리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의병총이 있다. 서원면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옆에 위치한 금대리 의병총은 1907년 서원면에 주둔한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모신 곳이다. 1908년 민공호 의병대장은 체포되었다.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60명의 병사들이 1908년 원성군(현 원주시) 소초면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 중 패하였다. 이 병사들이 치악산을 넘어 월현리 허씨 집에 머물던 중 지역 주민의 밀고로 불의의 기습을 받아 5명 전사자와 치명상을 입고 의병은 사망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5명 전사자와 사망한 의병들의 장례식을 몰래 치르고 강림중학교 인근에 묻었다. 19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산재해 있던 5명의 분묘를 발굴 수습하여 한 곳에 모아 묘를 만들고 묘역을 조성하여 강림리 의병총이 되었다.



횡성군 강림면 민공호 전적비 헌화 및 의병총 제례 행사

황성인(둔내면 영랑리) 이인거(李仁居)의 난의 평가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 이인거(李仁居)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의 임금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어 9번 절을 하는 수치를 당하였다. 이인거는 광해군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숨은 선비라 하여 인조반정 뒤에 세자의 위사 익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에 거주하였다.

1627년 인조 5년 강원도 황성에서 이인거가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

원주목사 홍보를 통하여 거병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에서 서울에 계엄령을 내리고 홍보가 군사를 동원해서 황성으로 가서 이인거 4부자를 체포함으로써 이인거의 난은 평정되었다.

그러나 이인거의 난은 구국(救國)을 위한 즉 청과의 화친을 반대하고 청에 대한 방비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결코 왕권찬탈이나 권력장악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반역이나 역모가 아닌 것이다.

역사는 전적으로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인거 난의 평가도 재해석되어야 하겠다.

본서 44번 황성문화원 주최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회(2018년)에서 황성군 발표자 진연호님의 인조 대(代) 이인거의 난에대한 소고를 참조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적 진실로 재정립되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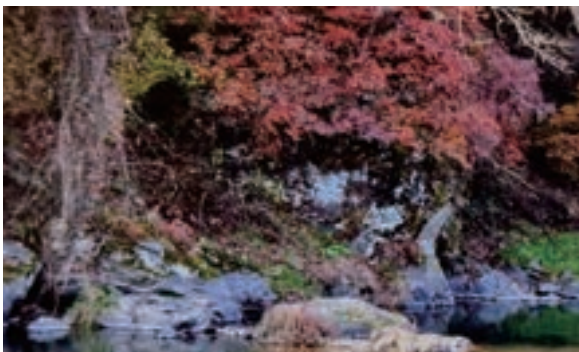
횡성인 이인거(李仁居)의 난의 평가

창의중흥대장
(倡義中興大將)
이인거(李仁居)

조선 16대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에서 척화론자(청나라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와 주화론자(오랑캐지만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걸 무시할 수 없어 전쟁을 피하고 화친을 통해 나라를 보존하자)에서 결국 주화론자 입장에 서자 횡성인 유학(幼學) 이인거가 원주목사 홍보와 강원감사 최현을 만나 조정이 오랑캐와 화친했으니 내가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말한다.

이인거는 창의중흥대장이 되어 이인거 상소가 조정에 도착하고 자신에게 병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인조는 경악했다. 1627년 인조 5년 이인거가 거느린 병력은 고작 70명으로 횡성읍에서 체포되어 20명이 죽고 14명이 유배되었다.

이인거의 난의 동기는 청나라와의 화친하는 조정의 실정으로 불만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이인거는 청과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의 처단이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청에 대한 방비를 호소한 것이다. 이인거는 무력행사 이전에 자신의 뜻을 관철될 수 있으리라 믿고 감사에게 소본을 치도록 해 줄 것을 상소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인거는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여 오랑캐 청과 화친을 반대하여 구국(救國)을 위한 저항이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횡성문화 2014, 37쪽에 있다.



이인거가 무술을 연마할 때 함께한 용마(勇馬)가 나왔다는 말등바위(左), 이인거가 훈련했다는 삼봉산(三峯山)(右)

횡성 원용팔 의병대장 풍수원 성당의 마리아 상

을사늑약 체결 4개월전 원용팔은 횡성 원주 영월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05년 을미의병대장 원용팔의 대활약으로 원주 일본군진위대는 원용팔을 체포했지만 그는 기세가 매우 당당했다. 구국을 위한 진정한 의병대장으로 추앙을 받는다.



원용팔 횡성 을미 의병 대장

“나를 풀어준다면 동대문 밖에 나아가 다시 군대를 모을 것이다.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고 집안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의병을 일으킬 것이다.”



풍수원 성당 마리아 상

6.25전쟁 당시 미국인 병사가 서원 풍수원 성당에 엎드려서 간절히 ‘제발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기도했는데 그는 안전하게 귀국했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리아상을 보내 풍수원성당에 지금도 보존 전시한다

황성향교, 서당의
황성 3·1 운동
유림 / 애국지사

윤재은: 서당 훈장, 3개월 복역
김진대: 우천면 유학자, 황성 3·1운동 주도
김명기: 우천면 유학자, 만세운동 주도
김인경: 안흥면 유학자 서당 훈도,
 독립만세 운동전개, 징역 8월
장도훈: 안흥면 서당훈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배포, 징역 2년
최양옥: 황성 3·1운동 주도
안승훈: 안흥 유학자, 독립운동
 징역10월
김치정: 갑천면 서당훈장 한학지도
 4.1만세 운동 총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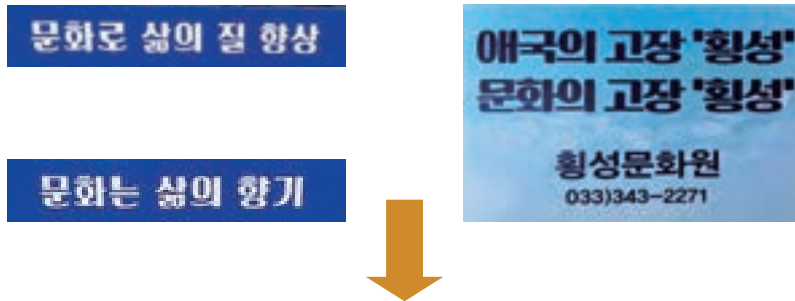
IV

PART

황성문화원의 황성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횡성문화원의 횡성
문화유산 및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횡성



봉복사 부도



운암정 현판과 정자 모습(1960년)

횡성의 문화유산,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



음하리 석불좌상
횡성의 빛나는 문화 유산

효(孝): 효자(孝子) 효녀(孝女) 효부(孝婦)

효자비, 효녀각, 효부비

열(烈): 열녀(烈女) 정려문(각)



횡성 출토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상) 반달돌갈(하)



유봉수 청원각(淸遠閣)
효열(孝烈) 유적

횡성문화원 태종대 문화유적지 답사

처음에는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잠시 말(馬)을 멈추는 곳이라하여 주필대(駐蹕臺)라고 했으나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태종대(太宗臺)라고 바뀌었다. 태종대 문화 유적은 조선 태종과 운곡 원천석 선생과 관계되는 유적이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16호(1984년 6월 2일 지정)

배향산: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인 이방원이 1415년 운곡 원천석 스승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며 예를 갖추 절을 했다고 전해진다.

수레너미 고개: 태종 임금의 수레가 넘었다고 이름이 지어졌다. 비각 안에는 주 필대(駐蹕臺)라 쓴 비석이 있으며 바위면에는 1723년 경종 대 새긴 태종대(太宗臺) 글자가 남아있다.



주필대



태종대(도문화재자료 제16호)

태종대

강림면 강림2리
문화재자료 지정일
1984.06.02
관리단체: 횡성군



조선 3대 임금 태종



태종대 표지석(기념비)

횡성문화원 태종대(太宗臺) 문화유적지 답사

1984년 해체복원하여 강원도 문화재자료 16호로 지정
(1984년 6월 2일)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2116번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선생과 태종(太宗)의 역사적인 유적지. 고려말 4처사(벼슬없이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의 한 분이신 운곡 원천석은 조선조 태종(太宗)인 이방원의 스승이다.



횡지암 전면 모습



변암(弁岩)

횡지암(橫指岩)은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이 이 바위에 앉아서 제자인 이방원(태종)을 잘못 가르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한탄하였다는 설과 태종 이방원이 원천석을 만나러 노구소에 왔을 때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잘못 가르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변암(弁岩)은 태종 이방원이 운곡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원천석 선생이 피해서 은거한 꼬깔 모양의 바위이다.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은 고려를 전복하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의 왕권 다툼에 분노를 느껴 관직을 거부하고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태종은 1415년 스승인 운곡을 찾아 관직 복귀와 정사를 의논하고자 찾았으나 운곡 원천석은 만남을 꺼려 피신하였다.

태종이 말을 매놓은 주필대로 부르다 왕이 된 이후 태종대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웠다. 횡지암은 노파가 태종에게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이 간 길을 빗 가르켰다는 것이고, 왕자의 난으로 왕권을 장악한 이방원을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탄한 곳이라 한다.

노구사당, 노구소, 노구 할미

지역문화교육사업



노구사당



노구소

노구사당

노구소

태종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의 부탁으로 태종에게 반대 방향을 알려준 노파가 후에 임금에게 거짓을 고함을 알고 스스로 몸을 던진 노구소와 노구할미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 있다. 제1회 강림 태종 노구문화제가 2018년 제례위원회를 노구문화제 추진위원회로 재정비한 뒤에 노구문화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태종노구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서형은) 2025년 제6회 태종노구문화제 주제를 ‘태종과 노구, 역사의 숨결을 걷다’로 확정했다.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강림면에서 열린다.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위치하며 치악산에서 흘러내린 강림천이 주천강으로 이어지는 지점 인근에 자리한다. 아래 그림과 사진은 노구 할미 초상화, 운곡 원천석 선생 초상화 그리고 노구 사당이다.

제1회 태종노구문화제



노구 할미 초상화



노구 사당

노구소, 노구사당, 노구 할미

노구소는 노구할미가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은둔중이던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만나기 위해 행방을 묻는 조선 태종 이방원에게 운곡의 당부로 거짓을 고했다가 뒤늦게 태종이 임금인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빠져 자신이 빨래하던 바위 아래 소(沼)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죽은 장소이다.

황성군 강림면 강림2리 마을에서 매년 이 노파의 닛과 충절을 기리는 제를 지냈다. 현재는 노구사당을 지어 매년마다 태종노구문화제를 개최한다. 2002년부터 매년 가을 실시하던 추모제를 초혼제 행사 실시일인 양력 10월 21일 거행해오고 있다.

노구제 봉행으로 황성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충절, 애국의 고장 황성을 널리 알리는 역사적 교훈의 장소가 되고 있다.

노구소(늙은 할미의 웅덩이) 노파의 충절과 죄책 이야기에서 유래(운곡 원천석과 관련), 치악산 둘레길 4코스(노구소길)의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로 태종대에서 출발하여 노구소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역사와 전설, 풍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역사 문화 체험과 충절과 예(禮)를 되새기는 특별한 장소이다.



제4회 태종노구문화제(2023년)



운곡 원천석 선생의
17대손인 원현식 옹 85세

운암정(雲巖亭)
도문화재자료 제17호



운암정 현판(1960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
재자료 제17호 지정
(1984년 8월 2일)



운암정(雲巖亭)

북천 언덕에 운암정이 있으니
구름 깊고 바위 기이해서 경치가 아름답다
십리길 꽃핀 언덕에 안개가 끼고
백구 나르는 강물은 세차게 흐른다
녹음이 짙어가니 바둑 두기에 좋고
한가히 달 오르니 또한 뱃노래 부른다
이처럼 아름다운 흥에 나도 즐거운데
다정한 시인이 어찌 그냥 지나치랴



김종운의 호인 운수(雲水)와 이원직의 호인 청암(靑巖)에서 한자씩 택하여 운암정(雲巖亭)이라 하였다.

운암정 현판과 정자 모습(1960년)

1944년 갑신 봄, 횡성군수 유태명



질은 가을 정취의 운암정

운암정(雲巖亭)
도문화재자료 제17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지정
(1984년 8월 2일)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운암정 연못 터

운암정

횡성읍 읍하리 산 7-1

문화재 지정일

1984. 06. 02

관리단체: 횡성군

운암정(雲巖亭)

횡성읍 읍하리에 1937년 운수(雲水) 김종운, 청암(靑巖) 이원직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대단히 두터웠는데 두 분의 호를 따서 운암정(雲巖亭)이라 칭하였다.

두 사람은 일평생 피나는 노력으로 자수성가(自手成家)하여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 회갑(回甲)을 맞아 자신들의 입지를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름답고 운치있는 운암정(雲巖亭) 정자(亭子)를 세웠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익공양식에 팔각지붕의 건물이다. 정자 옆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았으며 정자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군데군데 솟아있는 바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경치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정자의 터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정자 아래 섬강이 흐르고 고즈넉한 경관속에 동네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강원문화재 서원 취석정(醉石亭)

취석정(醉石亭)

취석정(醉石亭)은 조선조 중엽 취석(醉石) 최문발(崔文潑)이 창건하고 그의 아호(雅號)를 따서 취석정(醉石亭)이라 하였다. 취석정 아래의 냇가에는 돌에 새긴 바둑판과 취석(醉石)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구룡소, 광대소, 승학대(乘鶴臺) 등 경관이 뛰어난 명소가 많다. 현재의 취석정은 1984년 재건한 것으로 누각 안에는 취석정 상량문과 취석정(醉石亭) 복원 현황의 현판이 걸려있다.

조선 중기 시인 최문발(崔文潑)이 낙향하여 풍류를 즐기고자 세웠으며 인조 19년(1641년) 세웠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정자는 1984년 후손이 지었다.

위치: 횡성군 서원면 취석로 130



취석 바위(10인 앉기 가능)

강원문화재 서원 취석정(醉石亭)

서원면 압곡리 물골 냇가에 조선조 중엽 취석 최문발 선생이 지은 것으로 돌에 새긴 바둑판과 취석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섬강 상류 용곡천을 따라 1.5km 내려가면 웅장한 산세가 겹겹이 둘러싸이고 기암괴석이 솟은 계곡에 물소리가 요란한 명승지가 취석정이다.

수많은 시인과 묵객이 인생을 구가한 곳이며 선비들이 급경사 왕래를 피하기 위해 아홉사리 고개를 만들었다.

누각의 내부에
취석정 상량문, 취석정
복원 현황 현판은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져 있다.



산중우령(山中偶吟)

두견새 우는 소리뿐인 푸른 산속에
사람 그림자마저 보기 어려우니 오직
뜰에 핀 꽃들만 서로 마주 웃으며 하루
종일 한가함을 달래주네
최문발의 취석시비 아래 시 한 수

취석 최문발의 시(詩)

푸르고 푸른 눈 속 프락의 소나무
우레치고 비 뿌리는 어느 날 용으로 변할까
한해 저물어도 곧은 마음 여전히 바꾸지 않으니
서슬 푸른 관리 어찌 진나라의 봉함 달갑게 받으리
한 가을 그윽한 흥취 마을 동쪽 올타리
청초하게 서리 맞은 꽃봉오리 만 점으로 기이하다.
슬프도다 세상 속 인간의 일 변하나니
추워진 뒤 누가 늦가을 국화꽃 닮을까

화성정(花城亭)
반구정(伴鷗亭)

지역문화교육사업



횡성 화성정 (花城亭)



목계리 반구정(伴鷗亭) 터

횡성 화성정(花城亭)
망향의 동산

횡성군의 화성정 (花城亭)은 횡성댐 건설로 인해 정든 갑천면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1999년 세워진 망향의 동산 구역 왼쪽에 위치한다. 본래 복성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화성정으로 새롭게 세워졌다고 한다.

반구정(伴鷗亭)

횡성을 목계리에 있다. 한림 이당이 건립하였다. 층진 바위가 물을 차단하고 있는데 물은 푸르고 모래는 맑아 경치가 제법 뛰어나다. 중간 부분이 허물어져 자손들이 중건하였다.



화성정 (花城亭)

횡성의 정자(亭子)

- 운암정(雲巖亭)
- 취석정(醉石亭)
- 화성정(花城亭)
- 순풍정(淳風亭)
- 선강정(仙降亭)
- 반구정(伴鷗亭)
- 벽옥정(碧玉亭)
- 태풍루(泰豐樓)
- 영화루(映華樓)

화성정(花城亭) 반구정(伴鷗亭)

횡성의 화성정(花城亭) 반구정(伴鷗亭)

화성정(花城亭)은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에서 부동리 방향쪽으로 우측 강변의 벼랑 위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정(花城亭)은 횡성군 갑천면의 4개 부락(부동리,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주민들과 많은 노인회원(老人會員)들이 정성(精誠)어린 큰 기금(基金)을 모아 과거 복성정터에 건립(建立)한 운치(韻致)있고 아름다운 정자(亭子)이다. 화성정은 400여년 전 중금리 대문안골에 살았던 진앙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복성정의 옛터이다.

1976년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의 수하 4개리의 화성 친목회원 23명이 모은 기금과 4개 부락 주민 협찬금 그리고 당시 대의원 유호준씨의 회사와 협조를 받아 횡성 운암정 모본을 본따 6개월 공사를 하여 건립한 정자로 망향의 동산에 당시의 건립취지와 정황 등을 소상히 발췌하여 놓았다.

망향의 동산에서 보면 물이 가득한 횡성호가 내려다 보인다. 2000년부터 횡성댐 건설을 적극 반대했던 사람들이 화성정에 앉아서 횡성호수를 바라보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어준다.

조선 16대 임금 인조(仁祖) 때 한림(翰林) 이당(李塘)이 묵계리(墨溪里) 반구정(伴鷗亭)을 지어놓고 후진들을 가르쳤는데 그 때 먹을 갈고 붓을 씻어서 그 앞으로 흐르는 물이 검었다 하여 묵계리(墨溪里)라 하였다.

횡성호수 둘레길 망향의 동산과 노인정 화성정



화성정, 망향의 동산, 횡성호

순풍정(淳風亭)
벽옥정(碧玉亭)

지역문화교육사업

순풍정 (淳風亭)과 고형산(高荊山)의 전설



통통바위 위에 세워진 순풍정(淳風亭)

횡성의 선비문화와 자연친화적인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조형미의 정자 건축 양식이다. 선비들과 유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학문과 시문을 나누었던 곳이다. 조용한 풍광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물줄기가 전천이 흐르고 있다.

특히 통통바위와 고형산 일화가 있어 의미를 더한다. 고판서와 통통바위 전설에 등장하는 바위는 횡성역으로 가는 교량이 건설되면서 파괴되거나 땅속에 묻혀 옛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다. 통통바위위에 세워진 순풍정과 고형산의 전설이 이채롭다.



통통 바위



고형산의 묘

통통바위위에 세워진 순풍정과 고흥산의 전설

횡성읍 마산리 앞을 굽이쳐 생운리를 지나 흐르는 전천에 통통바위가 있다. 그곳은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갈 정도로 수심이 깊었다. 그 마을에 고씨성을 가진 소년이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총명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 갈려고 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갑자기 통통바위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쉴, 조용히! 고판서께서 주무신다. 지체높은 신 분이 잠을 깨시면 안되잖아!” 그 소리에 소년은 비몽사몽간 눈을 번쩍 떠보니 개미새끼 하나 얼씬 거리지 않고 아무도 없었다. 다만 물소리만 들려를 뿐 이었다.

그 소년이 횡성이 낳은 인재로 손꼽히는 고흥산이었다. 고흥산은 과거급제후 형조, 호조, 병조판서를 두루 거쳐 우찬성까지 지냈다. 이 순풍정은 횡성을 읍하리 박두학씨가 사재를 털어 휴식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정자는 1972년 3월29일 상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벽옥정(碧玉亭)은 횡성현의 북쪽 20리 되는 공근면에 있다, 팔천군(八川君) 정기광(鄭基廣)이 건축하였다. 푸른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맑은 시내가 굽이쳐 흐른다. 왕래하는 이들이 문득 이곳에 올라 시가를 읊조렸다. 현재는 여러 그루의 장송(長松)이 폐철된 정자 터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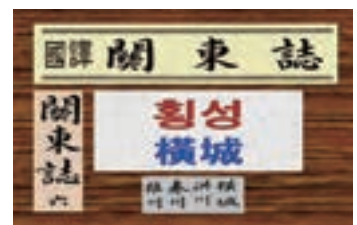
창봉역에서 길 떠나서
벽옥정(碧玉亭)을 지나간다
배회하여 옛 자취 찾으니
아름다운 모습 듣던 것보다 훌륭해라
해 가리는 소나무는 지붕을 이루고
못가의 바위는 병풍을 이루었네
시내와 산은 응당 모습을 바꾸지 않으니
어진 주인의 향기는 영구히 흐르네

이단해(李端夏)의 詩가 벽옥정을 예찬한다.

조선중기 문신, 학자 시인이다.

순조31년(1830년) 조선전기 관동지, 강원감

영서 편찬한 강원 지리지, 도지에 실렸다.



관동지(關東誌)



관동지: 조선후기 강원도 관찰 부(감영)가 1829-1981년 사이에 편찬한 종합 지리지

태풍루(泰豐樓)
복성정(福星亭)



태풍루(泰豐樓)

강원특별자치도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3.1 공원옆에 있는 누각

태풍루(泰豐樓)
태풍루 이름에서
태풍문화제 탄생

황성읍 읍하리 3.1공원 옆에 있다, 태풍루는 정조 22년 (1798)에 정래승 현감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태(泰)와 시화연풍(時和年豐)의 풍(豐)을 따서 이름짓고 나라와 황성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고 괴질 흉년 등 온갖 민생고를 없애고자 건립한 누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태풍문화제도 태풍루에서 이름을 따서 짓고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국태민안(國泰民安) 시화연풍(時和年豐은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며 계절과 기후가 조화로워 풍년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태풍루는 1992년 복원한 상태이다.

복성정(福星亭)

갑천면에 있다. 별좌 진치상(陳致常)이 건립하였다. 절벽은 천 척인데 맑은 못이 한쪽 면에 닿아있다. 지금은 없어졌다. 한편 중금리 대문안골에 진양(晉陽)이라는 큰 부자가 세운 정자라고 한다. 정자 이름이 복성정은 복을 불러오는 별(星)의 의미로 지어진 듯하다. 진양은 복성정에서 면학(열심히 공부함)과 독서에 열중했다고 전해지며 정자는 단순히 휴식처가 아닌 교육적 문화적 공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태풍루 준공기념 한마당 큰잔치
주관: 황성문화원(1992년)



제2회 태풍문화제(1982년)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태풍루(泰豐樓)
복성정(福星亭)



태풍루(泰豐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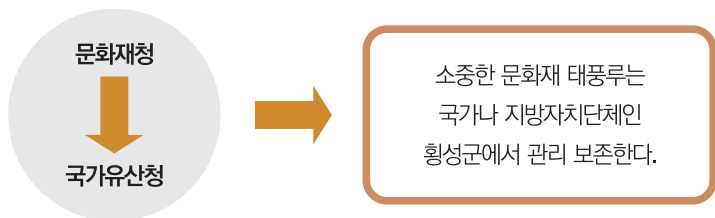


태풍루(泰豐樓)

태풍루는 횡성의 소중한 역사 유적으로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횡성의 상징이 되며 전통문화재인 횡성의 태풍문화재 명칭도 태풍루의 누각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횡성군(橫城郡) 횡성읍(橫城邑) 읍하리 3.1 공원옆 태풍루(泰豐樓)는 1798년 조선 정조 임금 22년 정래승 현감(縣監)이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년(豐年)을 기원(祈願)하고자 건립(建立)하였다. 한국전쟁 때 완전 붕괴(崩壞)되어 현재의 태풍루(泰豐樓)는 1992년 복원(復原)되었다.

복성정(福星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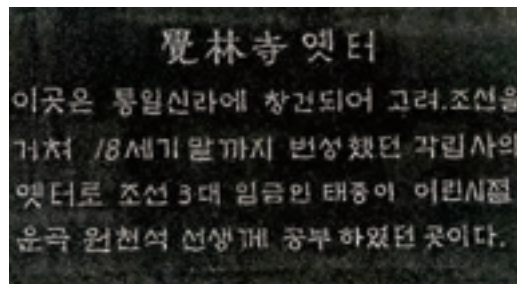
복성정은 갑천면 중금리 대문동(大門洞)에 큰 부자가 살았다. 그는 복성정 정자를 짓고 놀잇배를 띄우며 주연을 베풀었다. 어느 관리가 시기하여 진양을 진왕으로 부르며 이름으로 무고하여 죽였다. 큰 부자가 살던 곳이라 하여 대문동이라 불렀다. 복성정은 화려한 단청과 넓은 공간을 갖춘 별장과도 같았으며 갑천면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 등 4개 부락 주민들과 노인들이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복성정터의 의미를 계승하여 화성정으로 다시 건립하였다.



횡성 강림 각림사(覺林寺)

각림사지 터
강림면 우체국 인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있는 절터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초기까지 운영되었다가 18세기 말을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림면 각림사는 조선시대 호국불교 문화가 활발히 전파된 불교성지로 수많은 스님들이 불교 교육을 많이 수행한 큰 사찰이었다.



각림사(覺林寺) 옛터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18세기 말까지 번성했던 각림사의 옛터로 조선 시대 3대 임금인 태종(太宗)이 어린 시절에 고려말 조선초 학자이자 문인인 윤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께 공부하였던 유서깊은 곳이다. 2019년 횡성문화원 기록에 따르면 각림사는 남쪽으로 약 1km, 동서로 약 250m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사찰이 소실되어 현재는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변계량이 지은 각림사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횡성 강림 각림사(覺林寺)

각림사지(覺林寺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있는 절터로 현재 강림성결교회와 강림우체국이 들어서 있다. 주변에 석재조각과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다. 또한 연꽃무늬, 수막새, 선조문(線條紋), 격자무늬, 갓무늬, 기하학적 문양 등을 새긴 평기와 조각도 발견되었다.

횡성군 강림면 강림사(覺林寺)는 통일신라 시대 창건(創刊)된 사찰(寺刹)로 절터에 산재한 와편(瓦片)들을 보면 고구려(高句麗) 시대 이전의 것들이고 고려(高麗) 시대를 거쳐 조선초(朝鮮祖)까지 많이 번창(繁昌)하여 18세기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림사지에서 발견된 유물과 와편을 통해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선 3대 태종이 어린시절 이성계와 함께 국왕으로 즉위하기전 거처하는 잠저(潛邸)에 있을 때 각림사(覺林寺)에서 운곡 원천석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웠던 유명한 장소이다. 1417년(태종 17) 강무 당시 태종은 강무 사냥보다 각림사 중창 계획을 전달하고 승려와 소통하며 기일에 맞춘 불사를 준비하는데 집중하였다.

각림사에 대한 태종의 지원으로 철과 목재, 전답, 노비를 하사하며 이루어졌다. 태종은 1410년 이후 수차례 중창과 법회를 열고 화엄경을 하사하며 중창 행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태종은 왕실 차원의 후원을 지속하였다.



각림사지 표시석



각림사 시비

태종의 강무장(講武場)

지역문화교육사업

조선 3대 태종 임금의 횡성 지역의 강무 행차가 많은 것은 지리적으로 횡성은 서울에서 전라도 경상도 등 원거리보다 가까워 접근성이 좋으며 사냥감도 풍부하고 물 맑고 공기도 좋아 태종의 건강과 국운 융성 및 국민안락에 좋은 장소가 되어 선호하여 횡성 강림 안흥 사기소 등 여러곳에서 강무행사를 하였다.

횡성은 태종의 상설 강무장으로 춘등 강무장과 함께 세종 3년 태종과 세종이 함께 군사훈련을 펼친 지역으로 유명하다. 1419년-1421년 횡성에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방불케하는 강무를 펼쳤다. 수천명의 병사와 1만여필의 군마가 동원되었다.

조선 3대 왕 태종의 최초 강무장 횡성
고려시대(횡천(橫川)) ➡ 횡성(태종 14년)

호칭변경

조선 3대 왕 태종은 횡성에서 강무 행차를 많이
하고 고려시대 횡천(橫川)을 횡성(橫城)으로
지명을 바꾸어 주었다.

조선 3대 태종은 국가는 반드시 문무(文武)를 겸비해야 하기에 강무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강무(講武)란 왕의 친림하(親臨下)에 거행되는 군사훈련이면서 수렵해 포획한 금수(禽獸)로써 국가 제사에 쓸 제물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통상 5천 명 이상의 군사와 1만 여 군마(軍馬)가 동원된다. 강원도 횡성에서 최초의 강무는 1414년 태종 14년 가을이었다. 그 해 태종은 횡천을 횡성으로 호칭 변경하였다.

조선시대 강원도 횡성에서 국왕의 강무 행사는 총 6회 시행되었으며 태종은 1418년 세종에게 선위하고 그 다음해인 1419년 세종 1년 11월 상왕으로 현 국왕을 대동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장 대규모로 횡성 강림, 안흥 실미원, 화동, 사기소와 다른 여러지역을 거쳐 11월 13일 환궁하면서 강무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실록에 기록된 횡천
(횡성)강무 행차



태종13년(1413년)
횡천에서 개인 사냥 금지
산짐승 파악 명령



태종14년(1414년)
어가 횡천 사기소 방문



태종14년 9월 9일
어가 횡천 화동 방문



태종14년 9월13일
횡천 실미원 방문



태종 13년(1413) 10월 10일
횡천(橫川)에서 개인의 사냥을 금지한다
횡천(橫川)에서 사렵(私獵)을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황성군 지정 문화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수량면적	소유자	지정일
천연기념물 국가 248호	백로, 왜가리	23,140m ²	73. 10. 01	번식지
도무형문화재4호	황성회다지소리	선소리	양재학	84. 12. 28
도무형문화재6호	전통자기도공	기능보유자	장송모	89. 05. 01
도유형문화재19호	중금리삼층석탑	2기	국유	71. 12.16
도유형문화재20호	상동리석불좌상	1구	국유	71. 12.16
도유형문화재21호	상동리삼층석탑	1기	국유	71. 12.16
도유형문화재22호	읍하리석불좌상	1구	국유	71. 12.16
도유형문화재23호	읍하리삼층석탑	1기	국유	71. 12.16
도유형문화재60호	신대리삼층석탑	1기	봉복사	79. 05.30
도유형문화재65호	육절려	1동	사유	81. 08.05
도유형문화재69호	풍수원천주교회	1동	사유	82. 11.03
도유형문화재110호	문정공조충지석	1점	황성조씨대종회	89. 05.01
도유형문화재142호	공양공김관영정	1기	연양김씨종친	01. 12.29
도기념물82호	철기시대주거유적	1,322m ²	황성군	03. 01.18

문화재자료(태종대, 운암정, 황성향교)
등록문화재(풍수원성당구사제관, 황성성당)

유물 vs 유적

유물= 물건, 유적= 자리, 터전

유물

토기, 청동검, 불상, 기와, 비석,
장신구(박물관 전시, 현장 보존, 복원)

유적

집터(주거지), 고분(무덤), 성터,
절터 궁궐터, 석탑, 산성
(움직일 수 없는 고고학적 흔적)

중금리 삼층석탑(쌍탑)
도유형문화재 제19호

지역문화교육사업



중금리 삼층석탑(쌍탑)
(문화재 지정일: 1971. 12. 16)

중금리 삼층석탑(쌍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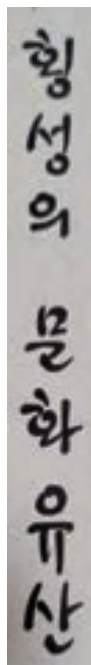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에서 탑둔지로 불리는 밭 가운데 동서로 약 8m 거리를 두고 삼층 석탑 2기가 있다.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얹은 형태이다. 기단면석의 팔부중상, 옥개석, 와편 등에서 보면 8세기에서 부터 9세기 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수법과 양식으로 미뤄보아 통일신라 후기 즉 9세기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갑천면 중금리의 사지내 쌍탑은 조선 고적 보물조사 자료에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동탑 상륜부에 불상이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쌍탑이면서 도상이 새겨진 경우는 매우 귀중하다. 쌍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매우 어렵다.

동탑에 비해 서탑은 비교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두 탑 모두가 1974년에 해체하여 복원되었다.

상동리 석불좌상 도유형문화재 제20호



상동리 석불좌상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1

문화재 지정일:

1971. 12. 16

관리단체: 횡성군

금동 광배

광배(光背)란 빛의 후광이다. 불상, 보살상, 회화, 조각의 신성함, 성스러운, 영적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광명(光明)을 표현한 원광(圓光) 두광(頭光) 신광(身光) 거신광(擧身光)이 있다. 보통 모습은 원형, 타원형, 불꽃형, 꽃잎형 등이 있다. 광배는 불상 보살상 뒤에 표현하는 광명의 상징이다. 불상은 부처님의 신성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장엄한 법당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동리 석불좌상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은 내리어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

상동리 석불좌상
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상동리 석불좌상
도 유형문화재 제20호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06번지 지방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불상이 있는 주변은 1993년 농경지 정리사업과 도로 개설로 인해 많이 달라졌으며 원래 불상 좌측의 논둑에는 광배편(불상에서 부처님의 빛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불상 머리뒤에 꽃아 빛을 발산함)이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광배를 고정하기 위해 뚫은 구멍이 남아 있으며 화염문 장식의 광배조각 파편이 발견된다. 대좌(불상이 앉은 받침)은 상중하대로 구성되며 지대석은 사다리꼴 안상이 새겨져 있다.

현재의 불두(佛頭)는 1989년 10월 도난을 당한 후 새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형의 불상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안타깝다. 석불좌상은 팔각의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여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수인을 하고 있는 불상으로서 현재 머리를 잃고 새로이 복원된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얹혀져 있다. 홍천 물결리 사지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석조 여래좌상과 많은 연관성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3이다. 비로자나불 형상이며 통일신라 후기 및 고려초기 양식이다. 팔각형 대좌, 복원된 머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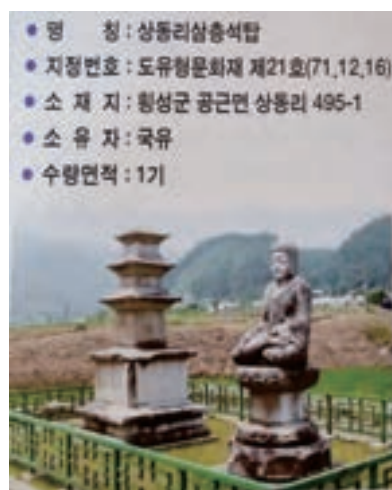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상동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1호

탑의 규모는 작지만 통일신라시대 전통과 고려초기 양식적 변화가 담겨있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상동리 삼층석탑(공근면 상동리)
도유형문화재 제21호



- 명 칭 : 상동리삼층석탑
- 지정번호 : 도유형문화재 제21호(71.12.16)
- 소재지 :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1
- 소유자 : 국유
- 수량면적 : 1기

상동리 삼층석탑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이다. 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초기 석탑으로 풍경을 달랐던 구멍이 남아 있으며 성덕사터의 밭에서 출토된 것을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운 것으로 절 이름은 성덕사(成德寺)이다.

이 탑은 이중기단의 3층석탑으로 기단부의 일부 부재(탑의 각 부분에 쓰인 재료)는 새로 만들어 1998년 복원하였는데 지붕들과 몸돌은 원래의 부재가 아닌 것을 보충하여 얹어 놓았다.

상동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1호

상동리 삼층 석탑
(도 유형문화재 제21호)

횡성군(橫城郡) 공근면 상동리 삼층 석탑(石塔)이 있었던 사지(寺址)는 기록(記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내력(來歷)을 밝힐 수 없으나 평와편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統一)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창건(創建)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동리 삼층 석탑(石塔)은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양식(樣式)으로 볼 때 고려(高麗) 시대(時代)의 초기(初期)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몸돌에는 모두 모서리 기둥을 돌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고 지붕 돌받침은 1층과 2층이 4단이고 3층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돌의 추녀선은 아랫선이 수평하고 윗선은 추녀 부분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고 있다.

탑이 규모는 작지만 통일신라시대 전통과 고려초기 양식적 변화가 담겨있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당초 성덕사 절터에 석불좌상과 함께 있었다고 전해진다.

상동리 삼층석탑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1

문화재 지정일:

1971. 12. 16

관리단체: 횡성군



기단부 / 3층의 탑신부 / 소실된 상륜부

읍하리 석불좌상 도유형문화재 제22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이다. 유형문화재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다. 유형문화재로 1971년 12월 16일 지정되었다. 횡성읍 읍하리 횡성군청 뒤에 위치한 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절터에 위치했으나 일제강점기 횡성군청 뒤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왔다. 불신, 대좌, 광배를 갖추고 있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다만 대좌의 상대석 뒷면, 광배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전체 높이는 대략 2.1m이다. 상중하 대석 모두 사각형으로 구성된 매우 드문 형식이다. 삼존 형식의 광배부조, 사각형 대좌, 힘있는 표현의 옷주름, 비로자나불 형상의 지권인 수인 등 매우 섬세하고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횡성읍 읍하리의 석불좌상은
3.1 공원 느티나무 밑 보호각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읍하리 석불좌상



석불좌상 횡성읍 읍하리

읍하리 석불좌상

횡성읍 읍하리 58-1

문화재 지정일 :

1971. 12. 16.

관리단체: 횡성군

읍하리 석불좌상(도 유형문화재 제22호)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태기로 15

횡성군청(橫城郡廳) 뒤 3.1공원 느티나무 밑에 위치한다. 공근면 상동리에서 일제 강점기에 현 위치로 옮겨 놓았다. 1972년 복원공사를 하였다.

불상(佛像)은 묵운모화강암(墨雲母花崗岩)으로 만들었고 상호, 의문, 광배, 좌대 등 조각(彫刻) 수법(手法)으로 볼때 고려초기(高麗初期)에 조성(造成)되었다고 한다.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춘 비로사나불(빛으로 두루 비추는 분) 좌상으로 대좌가 방형(方形)인 점이 특이하다. 4각의 대좌는 8엽 중판의 단판복연을 조각하고 중대석은 4면에 안상을 마련하였다.

좌우 어깨 옆에도 구광을 표시한 불상 2구를 양각하여 대단히 정치(精緻)하다. 목에도 삼도(三道)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 주형 거신광 형태로 정교한 문양이다. 구름 무늬, 불꽃무늬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다. 머리 광배에는 연꽃 문양과 보상화 문양도 조각되어 있다.



석불좌상의 광배와 대좌

**읍하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3호**

지역문화교육사업

이 석탑은 고려 중기 때의 작품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탑의 높이는 2.2m에 3층으로 되어 있다. 즉 읍하리 삼층석 탑은 묵운모화강암(墨雲母花崗岩)으로 만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3호이다. 횡성을 읍하리 삼층석탑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내부에 있는 삼층석탑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횡성군내의 옛 절터에 있었던 것을 옮겨 온 것으로 바닥돌과 기단(基壇)을 잃어버려 3층의 탑신(塔身)만 남아 있다.

몸돌(옥신)과 지붕돌(옥개석)은 각각 돌로 조성되고 몸돌 네 모서리에 우주를 새겼다. 지붕돌 밑에 4단 받침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몸돌이 작아져 안정감있는 비례를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단정한 고려 양식이다.



석불, 석탑(지방문화재 22, 23호)

읍하리 삼층석탑

횡성읍 읍하리 58-1

문화재 지정일:

1971. 12. 16

관리단체: 횡성군

읍하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23호



이 보호각 내부에 읍하리 삼층석탑과 읍하리 석불좌상 그리고 옥개석만 남아 있는 석탑이 있다.

읍하리 삼층석탑

횡성군(橫城郡) 공근면 상동리에 있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옆에 있는 석불좌상과 함께 횡성(橫城) 군청(郡廳) 뒤 3.1공원(公園) 입구(入口)로 옮겨 놓았다. 이 석탑은 고려 중기 때의 작품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으며 탑의 높이는 2.2m에 3층으로 되어 있다. 읍하리 삼층석탑은 묵운모화강암(墨雲母花崗岩)으로 만들었고 기단부(基壇部)의 구조(構造)로 볼 수 없어서 전체적 형태(形態)는 알 수 없고 고려중기(高麗中期)의 작품(作品)으로 추정된다. 바닥과 기단을 잃어버려 3층의 탑신만 남아 있다. 몸돌의 높이는 1층보다 2층이 많이 줄어 들었고 3층은 2층보다 조금 작은 편이다. 탑신(塔身)은 비교적 안정감이 있다.



읍하리 삼층석탑

신대리 삼층석탑
도유형문화재 제60호

지역문화교육사업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신대리 삼층석탑

신대리 삼층석탑은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삼층석탑이며 탑이 있던 곳에는 봉복사(鳳腹寺)라는 절이 있었으나 폐사되어 지금은 밭이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0호(1979년 5월 30일 지정)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원래는 5층 석탑이었다고 한다. 기단부는 2층 구조의 기단에 3층 탑신이 놓여 있다.

탑신 각 면 모서리에 우주와 중앙 탱주가 명확히 새겨져 있다. 현재 머리장식 일부만 남아있다. 불규칙한 지붕돌(옥개석) 받침이 있다. 조각과 구성의 안정감, 부분적 생략과 단순한 경향으로 미루어 고려 전기 작품으로 판단된다. 2020년 정밀 실측조사를 완료하였다. 문화적 보존과 기록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신대리 삼층석탑



신대리 삼층석탑

신대리 삼층석탑 (도 유형문화재 제60호)

횡성군(橫城郡)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鳳腹寺)로 들어가는 계곡 입구의 북쪽으로 절 등이라 부르는 산 기슭에 위치한다. 옛적 봉복사(鳳腹寺) 사지(寺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은 자장율사가 봉복사를 창건하면서 선덕여왕 16년에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전각 4 기통이에 풍탁(風鐸)장식이 매달렸던 작은 구멍이 있다. 3층 지붕돌(옥개석) 뒷면에는 너비 12cm 깊이 10.5cm의 찰주공이 있으며 노반에는 직경 12cm 동근 구멍이 뚫어져 있다. 기단부와 낙수면 등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일대에 암기와편인 평와편(平瓦片)들이 산재해 있어 이 사지(寺址)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창(중수)된 건물이나 탑을 고쳐서 다시 지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와는 반원통 솟기와와 오목한 곡면으로 된 장방형이 암기와(평와편)이다. 석탑 기단부, 탑신부, 옥개석(지붕돌), 상륜부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고려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신대리 삼층석탑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239

문화재 지정일 :

1979. 05. 30

관리단체: 봉복사



기와는 반원통 솟기와와 장방형 암기와

육절려(六節閼) 도유형문화재 제65호



육절려(六節閼)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독재봉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야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육절려(六節閼)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진주목사로 있다가 왜적에게 진주성이 불행히 함락되면서 순국한 서예원(徐禮元)과 그 일가족 6명의 숭고한 애국의 충절(忠節)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서 직접 내린 정려(旌閼)이다. 서예원은 진주목사로서 선조 26년(1593년) 왜군의 2차 침공을 맞아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진주성을 굳게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이에 부인 이씨, 큰 아들 계성, 며느리 노씨, 어린 딸, 노비 김성길 부부도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장엄하게 남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모두 끊었다. 둘째아들 계철도 강물에 몸을 던졌으나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에 끌려갔다가 13년 후에 한국하였다.

1678년(숙종 4년) 서씨 일가의 충절이 밝혀지면서 진주목사 서예원을 태의명족여판사로 추증했다. 본 건물은 1983년 재건하였다.



육절려

육절려

공근면 매곡리 산11

문화재 지정일:

1981. 08. 05

관리 의무자: 서만경, 私有

횡성 부동리 구석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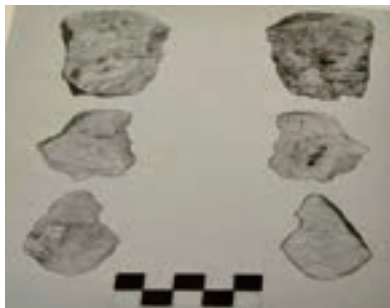
발굴 이전 부동리 마을



구석기 유적 발굴 조사 모습

1994년부터 횡성군 갑천면 부동리에서 횡성댐 수몰 지구의 구석기 유적 발굴이 시작되었다. 출토 유물로 석기 34점 (긁개, 밀개, 자르개, 켜개, 가죽 뼈, 뿔 나무다루, 주먹도끼, 팔매돌, 몸돌, 대패, 망치돌) 등이다. 횡성댐 수몰지역에 산재한 많은 구석기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수몰 지역이라는 점에 봉착하여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 강원대학교 조사단에 의해 1995년 처음 발견되었다.

중기 구석기 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내륙의 강변 도처에서 추후에 발견될 것을 예고한 다는 점에서 횡성 부동리 유적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한다. 이 유적은 강원고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발굴조사 보고서(1998년)이다.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뿔석기류, 층서학적 맥락에서 출토 유물 보존과 학술 문화적 중요성이 크다. 횡성 지역의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은 횡성지역의 유물 발굴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횡성댐 수몰지역 부동리 구석기 유적

**둔내, 읍하리, 공근, 갑천
철기시대주거 유적
횡성 청동기 유물**



강원도 기념물 제82호 둔내 철기시대 주거 유적 / 둔내 유적 발굴 조사



횡성 출토의 민무 다토기, 반달돌칼



횡성 출토 돌칼 간돌창, 돌화살촉

횡성 읍하리, 둔내, 공근, 갑천 철기시대 주거 유적

선사유물, 출토품은 무문토기, 여, 철자모양 집터, 중도식 민무늬 토기, 철기류 등이 출토된 원삼국시대 마을 유적이다. 우리나라 초기 철기시대 의식주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다. 집자리의 보존상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호할 뿐만 아니라 원시 가옥구조와 변천과정, 당시의 사회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횡성군 둔내면 둔내고등학교 학교 건물 기초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1983년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국강고고학연구소가 발굴조사해 3세기 원삼국시대 집터 10동, 수혈3기가 확인되었다. 100년을 이끌어 온 힘, 100년을 추진할 힘. 둔내면의 융성한 문화의 힘 이연숙 작가는 둔내를 극찬한다. 횡성군 둔내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은 기원 후 3세기경 조성되었다. 읍하리 공근면 학담리, 갑천 화전리, 증금리 일대 충적대지에 있는 철기시대 집터에서 타날문토기,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횡성 금동불입상, 범종, 청동잔무늬거울



횡성 금동불입상

횡성 금동불입상은 현재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삼국시대 7세기 전 작품으로 문화유산이다. 읍상리 범종은 고려후기 14세기로 추정되며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림 청동잔무늬거울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이며 청동거울은 백동질이다. 횡성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유적 유물이 발견되어 적어도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횡성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횡성에 정착한 인류가 활발하게 거주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다. 횡성금동불입상, 읍상리 범종, 강림 청동잔무늬거울 출토는 구석기시대,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횡성에 사람이 거주하고 석기와 청동기를 사용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구석기 시대 유물과 청동기 거울 출토는 횡성의 인류 출현과 문명의 태동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읍상리 범종강림 청동잔무늬거울

횡성 태기(덕고) 산성

태기산성(泰岐山城), 상고시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6013에 위치한 해발 750- 1,000 m 정도 되는 고지에 축성된 1,840m의 높은 산성이다.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겨 덕고산(태기산)에 들어와 성을 쌓고 방어했다고 구전(口傳)되고 있다. 급경사나 절벽 지형을 끼고 있어서 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낮게 축성(築城)하고, 완경사 지역과 적의 접근이 용이한 곳은 높고 견고하게 쌓았다.

태기산은 덕(德)이 높다하여 덕고산(德高山)이라고도 한다. 관문 동쪽 70리 거리에 덕고산 고성(古城)이 있는데 석축이며 둘레가 3,653척이다.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태기산성은 고대의 전설과 문화유산이 깃든 역사적 성터이자 자연생태와 산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관광명소이다.

태기산 등산로

태기산 양구두미재 등산로 입구(무이쉰터 → 태기산 전망대 → 태기왕 전설길 → 청정 체험길 → 무이쉰터 들머리 길 → 태기산 정상 → 양구두미재 등산로 입구



태기산성(泰岐山城)

횡성 태기(덕고) 산성

태기산(泰岐山) = 덕고산(德高山)

태기산성(泰岐山城) = 덕고산성(德高山城)

태기산은 섬강의 발원지이다

태기산성을 덕고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덕(德)이 높은
산성(山城)의 의미이다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해발 1,261m 고지에 축성된 태기산성(1840m)은 1500여 년전 진한의 태기왕(泰岐王)이 신라 박혁거세에 패하여 쫓겨 덕고산(태기산)에 입산하여 튼튼한 성을 쌓고 방위하였지만 결국 신라군에 역부족으로 패한 아픈 역사가 있다. 양구두미재는 둔내면과 양구 방향을 잇는 고개이다. 태기산 전투, 두미재 전투가 있었고 경찰전투전적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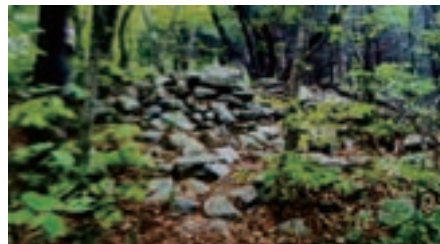
진한의 태기왕 패망(敗亡)으로 원한이 맺힌 태기산성은 조선중기 이후 퇴락(頽落)된 것을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이다. 태기산성을 덕고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덕(德)이 높은 산성(山城)의 의미이다. 태기왕의 전설과 천혜의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의 고원, 풍력발전기와 겨울의 왕국 강원 태기산이 위대하다.



횡성 태기산(양구두미재) 정상 비석



태기(덕고)산성비



태기산성(泰岐山城) = 덕고산성(德高山城)

횡성 운무산성

운무산성(雲霧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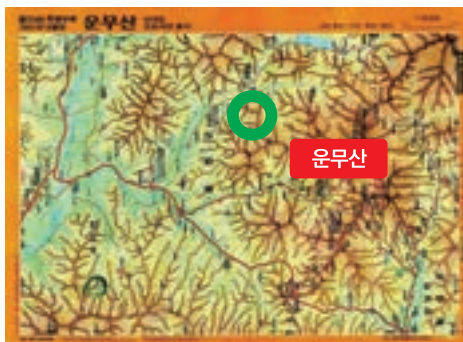
횡성 운무 산성



운무산 약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와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사이에 있는 운무산(해발 980미터) 줄기에 있다. 해발 640미터 정도의 봉우리 주변능선을 따라 200미터 정도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이곳이 본래 석산이고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산성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고구려 혹은 궁예가 활동하던 시기에 쌓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원주 평창 홍천 방향을 잇는 교통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옛 성황당 터와 제단의 흔적이 있어 마을 수호신 역할도 했다.

태기왕이 신라군에 패하여 도주할 때 덕고산성 동북방 지르매재를 넘어 운무산성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운무산은 이름처럼 아침마다 비 오는날 운무에 둘러싸인 장면은 사진작가들의 사랑받는 풍경이기도 하다. 데크쉼터, 자연 수풀과 계곡이 어우러지고 운무와 조망이 아름답고 상대적으로 한적한 산행로이다.



운무산 지도



운무산성 등산로

운무산(雲霧山) 980.3m 강원 횡성

홍천 내촌입구 → 능현사 → 804봉 → 전망 바위봉 →
헬기장 → 951봉 → 운무산(정상) → 전망 바위 →
원님이재 → 오대산 생수공장

횡성(橫城) 지역(地域)의 운무산(980m)은 홍천군(洪川郡) 서석면과 횡성군(橫城郡) 청일면 경계(境界)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답고 운치있는 산(山)이다. 해발 640m 정도의 봉우리 주변 능선을 따라 200m 정도의 석축의 흔적이 있으나 이곳이 석산(石山)이고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규모나 산성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산성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운무산에 위치한 운무 산성(山城)이 우뚝서 있다. 과거 고구려(高句麗), 혹은 궁예가 활동한 시기(時期)에 쌓은 것이라고 추정한다. 한편 울무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태기산성(泰岐山城)에서 패하고 도주할 때 태기산성의 동북방 지르매제를 넘어 운무 산성(山城)에 왔었으며 그 당시 쌓은 것이라 하기도 한다. 횡성군 청일면과 홍천군 사이에 걸쳐 있으며 횡성군 동북쪽 산맥의 일부로 자리한다. 오대산 샘물공장에서 출발하여 원님이재를 지나 운무봉 정상에 도착한다. 다시 원님이재를 내려와 출발지에 복귀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횡성의 운무 산성(山城)의 위엄(威嚴)이 대단하다.

횡성 갈풍리 산성 조선시대 구화갈풍역

갈풍리에 쑤(葛)이 많아 풍성할 풍(豐) 하여 갈풍리라고 하였다. 갈풍리 산성(250m)은 4내지 6세기에 삼국의 영역 변화라는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유적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축성돼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고 석축부가 북서쪽 구간에 10단 정도가 현존해 있다. 조선시대 역로에 해당하는 갈풍역이 있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중요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구화갈풍역(仇火葛豐驛)

대마(大馬) 1필, 복마(卜馬) 1필, 역노(驛奴) 41명, 역비(驛婢) 10명을 두었으며 현(縣)의 서쪽 10리 되는 거리에 있다. 갈풍리 산성은 통일신라기에 축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서고동저(西高東低)이며 7부 능선 산복식(山復式)성이다. 서북 고지엔 장대(將臺)로 추정되고 갈풍리 산성 서부 정상부 건물지 유물들이 즐비하다. 장대 언저리는 6.25 전쟁 때 전사자 유골을 회수했다. 조선시대에 갈풍역이 있었다고 한다.



운곡 원천석(元天錫) 선생이 금강산을 가는 길에 횡성(橫川, 조선초기 횡성 지명) 갈풍역을 지나가다 산천이 너무 아름다워 지은 시가 운곡시사(耘谷詩史) 1144 수중 몇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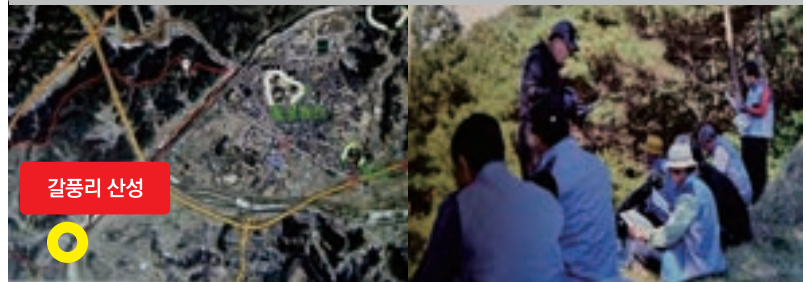
갈풍역을 지나면서 / 횡천(橫川)에 묵으면서

말을 채찍질하며 유유히 갈풍역을 지나노라니
산천 모습은 예나 이제나 같구나
사람 드물어 고요한 강가 길에는
철쭉꽃만 층층이 물에 붉게 비치네
여관이 고즈넉해 하루 밤이 길더니
꿈길에 봉래섬 찾아 구름다리를 건넜네
깜짝 놀라 깨어보니 동창(東窓)이 밝고
반쯤 깨진 달이 나무 가지에 걸렸네



갈풍리 마을 전경(강변)

향토문화유적지 「갈풍산성」 답사조사(2013. 6. 26)

갈풍리 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葛豐里) 산 21번지에 위치한 성재산의 갈풍리(葛豐里) 산성(山城)은 통일신라시대에 쌓은 것을 조선(朝鮮) 시대에 보완(補完)하여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연(自然) 지형(地形)을 활용(活用)하여 축조(築造)된 방어용(防禦用) 성곽(城郭)으로 삼국시대에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다. 서고동저(西高東低)이며 성재산 정상에서 산능선을 따라 7부 능선에 걸쳐 둘러쌓은 산복식(山復式) 성이다. 서북 고지엔 장대(將臺)지로 그곳에만 기와가 즐비하다.

장대 언저리에는 6.25전쟁 때 유골이 회수되었다. 갈풍리의 관방유적(官防遺跡)으로 국가의 지역 방어용 축조 산성이다. 갈풍리(葛豐里) 산성(山城)은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형태와 구조로 당대의 축성 기술과 전략적 고려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단의 사진은 갈풍리 산성 남변 원석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2013년 6월 26일 횡성문화원 이사들이 팀을 이루어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로 갈풍리산성 답사조사를 실시하였다.



갈풍리산성 서부 정상부 건물지 유물(좌) 갈풍리산성 남변 원석축(우)

갑천면 추동리 곽채상 정문(旌門)

정려문(旌閭門)은 효부(孝婦) 열녀(烈女) 충신(忠臣)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정성을 다해 지은 문(門)이다.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 곽채상에게 ‘동봉교관조봉대부’ 벼슬을 하사하였다.

곽채상은 양친이 쏘가리를 좋아해 마을 연못에서 쏘가리를 잡아 드렸는데 매일 2마리씩 잡혔으며 돌아가신 후 쏘가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물고기도 곽채상의 효심을 알아 스스로 희생한 느낌이 들어간다.

곽채상 (郭采象)이 죽은 뒤 나라에서 ‘동봉교관조봉대부’ 벼슬과 함께 효자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찾아가는 길

황성나들목 → 황성방향 → 대관대리 방향 → 황성온천 가기전 1km (사기막 식당 부근)



곽채상 정려문(旌閭門)

갑천면 추동리 곽채상 정문(旌門)

황성군 갑천면 추동리 농협분소의 뒷편에 곽채상(郭采象)의 효자 정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농사를 지으며 가난한 생활에서 지극정성(至極精誠)으로 부모를 봉양(奉養)한 곽채상의 효행(孝行)을 담아 1806년 정려문(旌閭門)을 건립하였다. 효자 곽채상은 농사를 지으며 넉넉치 못한 생활 중에서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부모의 진지는 쌀밥을 따로 떠서 드시게 하고 가족은 잡곡밥을 먹었다. 그는 틈만 나면 대관대리 큰 소(沼)에 나가 낚시를 하였다.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줄거나 늘지를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여도 전혀 잡히지 않았다.

양친이 쏘가리를 좋아해 마을 연못에서 쏘가리를 잡아 드렸는데 낚시를 하는 동안에는 연못의 물이 흐려지지도 않고 겨울에 추워도 얼지도 않았다. 비가 와도 물이 늘거나 줄지 않았고,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매일 2마리씩 잡혔으며 돌아가신 후 쏘가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곽채상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효도는 양지(부모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정신적 효도)와 양구체(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육체적 물질적 효도)가 있으나 양지 효도가 더욱 좋다고 한다. 곽채상은 양지, 양구체 효도를 모두 이룬 진정한 효자이다.

정려문(旌閭門)은 효부(孝婦) 열녀(烈女) 충신(忠臣)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정성을 다해 지은 문(門)이다. 곽채상이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 '동봉교관조봉대부' 벼슬을 하사했다.

‘효’란 ‘부모님을 사랑(愛)하며 공경(敬)하고 섬기는 것(事).

愛·敬·事が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 孝 = 愛+敬+事 = 百行之本(源)

강릉김씨 정려각

강릉김씨는 황성 열녀의 대표적 인물이다.



강릉김씨(정준제의 처) 정려각 (旌閭閣)

(황성군 갑천면 포동리)

황성군의 열녀로서, 현모양처로서 손꼽힌다.

강릉김씨는 황성의 부부 사랑 극치를 보여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라틴어로 Amor vincit omnia)

부부 사랑 이전에 존경이나 존중이 먼저이다. 존경과 존중이 있으면 부부사랑은 영원하고 존경과 존중이 없으면 사랑은 쉽게 식어진다. 강릉김씨는 존경과 존중이 있어 사랑이 영원했고 죽어서도 정신적 사랑(플라토닉 사랑)이 영원하고 위대하다.



강릉김씨 정려문



강릉김씨 정려각



포동리 강릉김씨 정려문 현판



강릉김씨 정려각

갑천면 포동리 정준제의 처 김씨 부인의 행실을 기리기 위해 정려문을 건립하였다. 열녀 김씨부인은 임진왜란 때 남편 정준제가 전라도 지방 전투에서 팔과 다리 중상 소식을 듣고 그 먼길을 걸어서 찾아갔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만났으나 살이 썩어 들어가는 위중한 상태로 부인의 지극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전사했다. 부인은 통곡하면서 산속에서 여러 날 시신결을 지켰다.

시신이 가벼워지자 수습하여 전라도에서 갑천면 포동리까지 그 먼길을 오랜 기간 시신을 머리에 이고 걸어서 돌아와 묘지를 조성하고 치마폭에 돌을 날라서 묘소 둘레에 화담을 쌓고 움막을 만들어 3년간 시묘살이를 혼자서 힘겹게 하였다.

이 소문이 퍼지자 유럽에서 김씨부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열녀로 추천하여 조정에서 정씨 문중에 교지를 하사하여 열녀정문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정씨 문중에서 김씨부인의 정절을 기리고 애달픈 일생을 위로하기 위해 정려각을 세웠다. 현재 정문 관리는 정의영 후손이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 1832년 가로 150cm, 세로 57cm 정려현판이 내려졌다. 정씨 문중은 맞배지붕 형식을 가진 정려각을 지어 김씨의 정절을 기렸다. 해마다 9월 9일이 되면 9번 차례를 드리고 있다.

갑천면 포동1리 마을회관 뒤(정포로 492-17 앞)

강릉김씨 정준제의 처



횡성군 정암리 김복이 열녀문(二美門)

이미문(二美門)이란 두 가지 미덕 즉 효(孝)와 열(烈)을 실행한 사람에게 지어주는 정문이다. 효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문을 효부문(孝婦門), 이미문(二美門) 정려각(旌閭閣) 등으로 불렀다. 김복이씨는 열녀로서, 효부로서 이미문을 받았다.



김복이 열녀문(二美門) 광산 김씨의 열행
1938년 유도화와 군민의 뜻을 모아 건립하고 1955년
개수한 정려각, 효열 유적

효부도 어려운데 열녀까지 지극정성으로 실천하여 김복이는 열녀문을 받았다. 횡성 정암리 김복이(金福伊) 열녀문(이미문)은 횡성군 횡성읍 정암2리) 효성이 지극한 효부 열녀이 이야기이다.

정암리 김복이 열녀문 정려각의 이미문은 횡성군에서 유일하다
사랑은 사랑(思量) 생각할 사, 헤아릴 량, 사랑은 생각하여 헤아려주는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에서 유래한다. 도봉근의 처 광산김씨 김복이는 효성으로 모범을 보여주
었고 열녀로서 손색없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어 이미문(二美門)을 받아 마땅하다.

횡성군 정암리
김복이 열녀문(二美門)



효부 열녀의
지극히
아름다운
열녀문



김복이(金福伊) 열녀문(烈女門) 이미문(二美門)

종족같은 절개, 붉은 효심

김복이 할머니는 친정이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로 살기는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편이었다. 덕고산 언덕배기를 넘어 꽃가마를 타고 횡성군(橫城郡) 정암리 도봉근에게 14살에 시집온 김복이 여사는 어려운 시집살림을 꾸려 오던 중 17세 때에 남편이 병석에 누워 10여 년을 병시중을 보냈으나 끝내 남편을 사별(死別)하고 남편 장례(葬禮) 얼마 후 다시 시아버지가 풍을 맞아 병석(病席)에 누워 대소변 시중의 고행을 하였고 사경(死境)을 해매게 되자 손가락을 깨물어 수혈(輸血)을 하는 등 정성(精誠)을 3년 동안 매일 다했다.

광산 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38년 건립하고 1955년 개수한 이 정려각은 절개를 송죽같이 지켰으며 효성이 지극했던 효부 열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횡성 유도회와 군민의 뜻을 모아 살던 집 뒤에 이미문(二美門)을 세워 후세에 알렸다. 열녀문은 1938년에 세워져 1955년 개수하였다. 정면에 이미문(二美門)이라고 쓴 현판을 걸어 후세 사람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송죽같은 절개는 조선시대 효자문, 정려각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김복이의 절개는 송죽과 같고 효심은 천지에 가득찼다. 효성과 절개를 최고의 덕목으로 실천한 김복이님께 경의를 표한다.

안광근 효자각

지역문화교육사업

안광근은 부모님께 조식으로 문안을 드리며 험한 대관령 고개를 넘어 동해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바다 생선을 구해다가 공양하였으며 깊은 둔내 산속에 노환에 좋은 약초와 산짐승 고기를 구하여 드리곤 했다.

노환으로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가슴 아파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부모의 소중함과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가르쳐 주었다. 조선(朝鮮) 고종 20년에 조정(朝廷)에서 효자(孝子) 정문(旌門)을 내렸다. 둔내면의 효자로 효행심의 극치를 보여준다.



효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도강령(道綱令)에 첫째, 봉친(奉親): 아버이를 받드는 것. 둘째, 경사(敬師): 스승을 존경하는 것. 셋째, 충국(忠國): 나라에 충성하는 것. 넷째, 제장(梯長): 어른을 공경하는 것. 다섯째 신우(愼友): 벗에 정성을 다함. 여섯째, 신심(信心): 마음을 옳게 갖는 것.

⇒ 여섯 가지에서 봉친(아버이를 섬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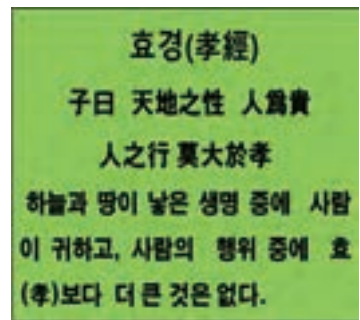
횡성군(橫城郡) 둔내면 화동리에 순흥 씨 안광근은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여 부모(父母)의 총애(寵愛)를 받아 오던 중 부친(父親)이 오랜 지병(持病)으로 고생하다 끝내 사망(死亡)하였다.



정성스럽게 장례(葬禮)를 치루고 6km가 넘는 거리의 묘지(墓地)에 3년을 매일 아침 저녁 2번이나 선묘(先墓)하는 등 자식(子息)의 지극한 도리(道理)를 다하였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 불덩이 같이 달아오르는 아픈 몸으로도 성묘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다.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극진한 정성으로 묘소를 찾아가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다.

부자자효
(父慈子孝)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행적(行績)이 널리 알려져 1883년 조선(朝鮮) 고종 20년에 조정(朝廷)에서 효자(孝子) 정문(旌門)을 내리고 호저판서 겸 동리의 금부사로 명하고 효자문을 내리게 하였다.



효경(孝經) 유가의 주요 경전인 십삼경(十三經)

지금도 화동리에 효자각이 보존되어 그의 효행을 더욱 빛내고 있다. 이 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이 효자문 앞을 경건히 지나고 있으며 그의 손자(孫子)인 안덕준, 안명준이 효자각을 관리하고 있다.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孝子門)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황성군 갑천면 중금리

이원빈(李圓彬) 이풍용(李豐容) 부자의 효자문이다. 아버지 이원빈은 1884년(고종 21), 아들 이풍용은 1923년 효행(孝行)으로 정려되었다. 본래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있던 것을 황성군 갑천면 중금리로 옮겼다. 효자각 안에는 효자문(孝子門)이라고 쓴 현판 1개와 정려 현판 2개, 건립 당시의 내력 등을 적은 현판이 있다. 효도는 3가지의 효도가 있어 누구나 실천해야 한다.

이원빈 이풍용은 충효와 예절을 실천한 위대한 부자이다.

첫 번째 효도 - 부모 존경,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 효도 - 선한 행동을 하여 부모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

세 번째 효도 - 부모님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경제적 효도.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과 편액

원주이씨 효자각

횡성군(橫城郡) 갑천면 중금리에 소재한다. 1884년 고종 21년과 1923년에 정려된 효자문은 2대에 걸친 두 부자간 충효의 길과 예절을 후손들이 기리고 있다. 이원빈은 이풍용의 부친(父親)이다. 이풍용은 이원빈의 아들이다.

이풍용은 군청 서기로 일하다가 직장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자 불효하게 됨을 이유로 퇴직하고, 토지가 없어 소작하게 되었음에도 부모님의 끼니를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였을 뿐더러 모든 일에 부모님 모시기를 지극정성을 다하였으며, 또한 저녁에는 동네 젊은이들을 모아 충효의 길과 예절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춘천에서 관청의 근무 3년동안 성실한 근무자세에 군수가 이풍용을 데려가려 했으나 관직을 오히려 떠나 가정을 위해 농사짓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였다고 전해진다. 효자문은 이풍용의 장남 이재학에 의해 홍천군 동면에 건립되었으나 후에 산인 갑천면 중금리 마당재 마을의 산 위로 이전하였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 형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이원빈 이풍용 부자의 효자문, 횡성의 문화재이다.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부자이효(父子二孝)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효자로
나라에서 효자문을 내려
효행을 칭송함

효자문은 2대에 걸친 두
부자간 충효의 길과 예절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친다.

유봉수 청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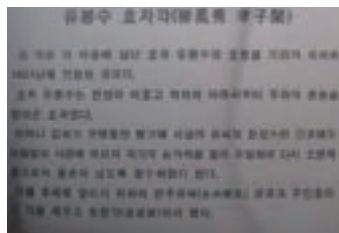
유봉수 효자정문기, 찬효행시가 현재 남아 있다. 또한 방명록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그의 효행이 알려지자 정부서 표창하였고 효자 유봉수지비를 세워 효행을 기리고 있다.



유봉수 청원각(清遠閣)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富蒼里)에 있는 유봉수 효자각(孝子閣)은 청원각(淸遠閣)이라고도 한다. 청원각이란 맑고 높은 뜻이 멀리 미친다는 뜻이다. 유봉수 효자의 맑고 고결한 마음이 세상에 멀리 전해지길 바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유봉수의 지극한 효성(孝誠)을 기리기 위해 1951년 건립되었다. 효행 인물인 유봉수는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에게 수혈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이 공덕으로 위중하셨던 어머니는 놀랍게도 팔순이 넘도록 장수하셨다고 전해진다.

이 정각은 효(孝)를 몸소 실천한 진정한 의인의 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의미깊은 기념물이다. 전주 유씨 문중 및 지역주민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고귀한 효행을 기리기 위한 정각의 이름을 청원각이라 하였다.



유봉수 효자각 비문

효(孝)

애(愛) 경(敬) 사(事)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기)

효(孝)= 백행의 근본

청원각(淸遠閣)이란 효자나 열녀의 순수하고 고결한 마음을 상징 하기 위해 정려각(旌閭閣)에 청원각(淸遠閣) 편액을 붙인다. 즉 효 자나 열녀의 맑고(淸) 세속을 초월한(遠) 덕행을 기리는 상징적 명 칭이다.

유봉수 효자각(孝子閣) 청원각(淸遠閣)

유봉수는 교육자이자 효자이다. 본관은 전주 유씨로 승지 선창(宣昌)의 후손이다. 황성군 공근면 부창리에 위치한 정각(亭閣)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유봉수의 효성(孝誠)을 기리기 위해 1951년 건립(建立)하였다.

효자(孝子) 유봉수는 천성(天性)이 어질고 착하여 어려서부터 주변(周邊)의 칭송(稱頌)을 받아온 효자(孝子)였다. 본관은 전주 유씨로 승지 선창(宣昌)의 후손이다. 9살에 부친과 숙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홀숙모님을 모시고 자라면서 효성이 지극하기로 칭송이 자자했다.

어머니 김씨가 오랫동안 병고(病苦)에 시달려 유씨의 정성(精誠)과 간호(看護)에도 보람없이 사경(死境)에 이르자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輸血)하여 소생하게 함으로써 팔순(八旬)이 넘도록 장수하시게 하였다고 한다. 유봉수는 현재의 상창초등학교를 설립하여 2세 교육에 힘썼다. 교육을 통한 충효예 정신을 실천하고자 상창초등학교를 세운 교육 선구자요 공로자였다.

이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전주 유씨 문중(門中)과 주민들이 이 청원각을 세웠다. 유봉수 효자정문기, 찬효행시가 현재 남아 있다. 또한 방명록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그의 효행이 알려지자 정부서 표창하였고 효자 유봉수지비를 세워 효행을 기리고 있다.

황성군 공근면 부창리

유봉수(柳鳳秀)
효자각(孝子閣)
청원각(淸遠閣)

박양혁 효자비



박양혁 효자비, 효자비각

황성군 갑천면 추동리

광무 7년 2월 8일 효자각이 내리고 궁 내부

선전관겸 홍릉 참봉을 하사받음

- 지구가 멸망하여 별 나라로 간다면 무엇을 가져 가겠는가?
“효와 경로사상이 아름다운 한국의 가족제도.” - 아놀드 토인비 박사
- 주자십회(朱子十悔) - 불효부모사후회(不孝父母死後悔)
-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 시기가 중요하다. 시중(時中) “때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효도”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부부 아들딸 손자 3대 가족모임”



황성군 박양혁 효자비, 관리부실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가 자란뒤에 어미 까마귀를
둥우리에 정중히 모셔두고 자식
까마귀들이 먹이를 구해서 공손히
어미 까마귀 입에 넣어 주는 효도

효의 고장 황성군의 효자비, 효자각
정려각이 도처에 방치되어 박양혁 효자비각은 물론
다른 효자문 정려문의 복원 복구가 시급하다.
관리의 부실로 홍물로 방치되고 있다.

박양혁(朴陽赫) 효자비각 (황성군 갑천면 추동리)

황성군 갑천면 추동리 박양혁은 어머니 김씨가 불치(不治)의 질병(疾病)이 들어 치료(治療)가 어려워 졌다

스스로 모친(母親)의 대변(大便)을 받아 맛을 보아 병의 증세(症勢)를 살피고 천지(天地) 신령께 빌고 축원(祝願)하였으나 병세(病勢)가 악화(惡化)되었다.

박양혁은 본인의 손가락을 직접 잘라 수혈(輸血)하니 어머니께서 소중한 생명을 회생하시어 보다 더 오래 생존(生存)하였다고 한다.

박양혁 효자비각은 갑천면 당평초등학교 인근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다. 광무 7년 2월 8일 효자각을 내리고 궁내부 선전관겸 홍릉 참봉을 하사받았다. 현재의 비석(碑石)은 1977년 세운 것이다.

황성군이 효의 고장이라 하여 해마다 효자마을을 지정하고 표창도 하지만 효자비, 효자각을 훼손하여 철저한 보존관리가 시급하다. 효도 중 양구체 효도로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효도인 바 박양혁은 모친의 질병치료에 진력을 다한 진정한 효자였다.

정현구 효자 정려문

정현구는 부모 사망 후 3년 동안 새벽마다 묘지(墓地)를 찾았다. 삭망일(朔望日)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성묘후 묘지를 관리하였다.



정현구 효자 정려문(황성군 공근면 학담 1리)

정현구(鄭顯九) 효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명재상 정종영의 12대 손으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였지만 돌아가시자 예를 갖추어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에 감격한 조정대신은 왕에게 진언하여 1891년 고종 28년 조정에서 효자 정문을 내렸으며 현재도 공근면 학담리 초당동에 효자 정려문이 남아 있다.

삼견(三愆), 불효의 언어 세 가지에 유의한다

조(躁) - 부모님이 말씀할 것을 앞질러 조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은(隱) - 부모님의 말씀한 일에 무엇인가 숨겨두고 대답하지 않는다.

고(瞽) - 부모님의 얼굴 빛을 살피지 않고 덮어놓고 말하지 않는다.

간언(諫言)

부모가 잘못이 있으면 자식은 세 번 낮은 목소리로 그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여(간)한다.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듣지 않으면 따르면서 울고 기분좋은 때 다시 말한다.

좋은 부모를 원한다면 먼저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자녀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정현구 효자 정려문



공근면 정윤검 부조묘 사당

강원도 효열(孝烈) 유적 정현구 효자 정려문
찾아가는 길
횡성나들목 → 공근(홍천방향) → 공근중학교 뒷길
→ 정현구 효자 정려문

횡성군 공근면 학담1리 정현구는 어려서부터 부모(父母)에 대한 효행(孝行)이 남달랐고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새벽마다 묘지(墓地)를 찾았다. 삭망일(朔望日)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성묘(省墓) 후에 묘지(墓地)를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현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명재상 정종영의 12대손(世孫)으로 어릴 때 부터 천성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섬기는 일을 본분으로 알고 실천하였다. 철에 따라 새 옷을 지어 드리고 겨울에는 춥지않고 여름에는 덥지않게 모시며 음식도 부모님 입맛에 맞게 항상 차려 드리며 극진함이 끝이 없었다.

부모가 병들어 자리에 눕자 잠시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달여 드렸으나 세상을 떠나서 예를 갖추어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에 감격한 조정대신은 왕에게 진언하여 1891년(고종28년) 효자 정문을 내렸으며 공근면 학담리 초당동에 효자 정문을 세웠다. 현재의 정려문은 1966년 2월 중수(重修)하여 소재지는 횡성군 공근면 학담 1리이다.



정현구 효자 정려문 편액

홍순태 효자비

지역문화교육사업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와 소사리 사이에 있는
홍순태(洪淳泰) 효자비(孝子碑)
홍순태(洪淳泰) 효자의 3년 시묘살이

비석 전면

효자남양홍공순태지비
(孝子南陽洪公淳泰之碑)

효경(孝經):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중심으로 한 유교경전
통일신라시대부터 교육했고 각종 시험과목으로 효를 채택하여 국민의 정신속에 내면화시켰다.

진퇴온청(進退溫淸): 기본 효도

부모님 앞을 나아가고 물러남에예절을 다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효도

“나무는 고요하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그칠 줄 모름) 자식은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韓詩外傳(한시외전)



횡성 홍순태 효자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橫城 洪淳泰 孝子碑)

효행(孝行)

양지(養志)

정신적 효도

양구체(養口體)

물질적 효도

효행

정신적 + 물질적 + 육체적

홍순태 효자비

횡성 홍순태 효자비
(橫城 洪淳泰 孝子碑)

홍순태는 1882년 안흥면 지구리에서 태어났다. 횡성군(橫城郡) 안흥면 지구리 홍순태(洪淳泰)는 평소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여 산채(山菜)를 캐다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3년을 하루같이 묘지(墓地)에서 곡(哭)을 하였고 또 아버지 상이 끝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3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하였다고 한다. 이 사회에 다시없는 효자(孝子)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비석(碑石)의 전면(前面)에 '효자남양홍공순태지비(孝子南陽洪公之碑)'라고 되어있고, 후면(後面)에 마모(摩耗)가 심하여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홍순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45년 광복 직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비신(碑身)이 크기는 가로 43cm, 세로 125cm, 두께 15.5cm이다. 현재 그의 후손이 안흥면 지구리 송내촌에 살고 있다. 안흥면의 과거 시절에 더 없는 효자였다.

원주원씨 열녀 정려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원주원씨 정려문(열녀문)
열녀(烈女) 원씨(元氏)는 경주김씨 光集의 처로 남편 섬김에 지극함

비문(碑文)에 “원주원씨 그 행실이 고을의 모범이 되어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노라!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열녀 정려문이란 무엇인가? 정려(旌閭)란 효자, 열녀, 충신 등 유교적 미덕을 실천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상징적 정문, 정려문(旌閭門)을 의미한다. 문화 유산으로 보존하며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열녀의 대상자 집이나 마을 입구에 정문 형태의 전각을 세우고 이를 정려라 불렀다. 전각 내부에는 철제 현판, 편액 등의 기록물을 걸어두었으며 이는 공공의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이고 본보기이자 도덕 교화의 장치로 기능을 하였다.



원주원씨 열녀 정려문과 정려문 편액

정려문(旌閭門)이나 열녀문(烈女門)은 효성과 절개를 지킨 여성에게 나라에서 세워주는 기념문이다. 편액에는 주로 목판에 흰색 또는 금색 글씨를 새기고 바탕은 청색, 흑색으로 칠을 하였다.

원주원씨(原州元氏)가 조정(朝廷)으로부터 정려(旌閭)된 것은
조선(朝鮮)시대의 순조 임금 13년(1813년)이다.

열녀 원주원씨는 경주김씨 김광집(한)의 처로 그 남편을 섬기는 정성이 남달리 지극하였고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 정성과 노력이 대단하여 시부모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원주원씨는 남편과 시부모(嫗父母)를 모시는 일에 정성(精誠)과 노력을 다하였으나, 졸지에 남편(男便)이 사망(死亡)하고 말았다. 원씨부인은 남편을 선산인 공근면 봉우재에 장사 지내고, 시묘할 아들이 없음에 3년간 봉우재 묘소에서 시묘살이를 경대(經帶)를 풀지 아니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했다. 3년상을 마치고 원씨가죽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장마철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강줄기를 찾던 중 원주원씨 부인의 신발만 언덕위에 놓여지고 원씨는 없었다.

사기막이에서 흐르는 강물과 학담리에서 흐르는 강물이 합류하는 덕촌리와 오산합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부인의 시신은 강 하류로 떠내려 가지않고 반대로 물길을 거슬러 학담리쪽으로 올라가 있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 놀라게 하였다.

가족들은 부인이 얼마나 경주김씨 광집 남편을 사랑했으면 죽어서도 남편곁으로 가고자 시신이 거슬러 올라가는가 눈물을 흘렸다.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윗사기막의 정려각(旌閭閣)은 건립 연대(建立年代)는 불확실하나 원주원씨(原州元氏)가 조정(朝廷)으로부터 정려(旌閭)된 것은 조선(朝鮮)시대의 순조 임금 13년(1813년)이다. 크기는 정면 226cm, 측면 210 cm 이며 내부에 정려(旌閭) 현판이 걸려 있다.

원주이씨 효부비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원주이씨 효부비
 효부비의 전면에 효부유인원주이씨지비
 (孝婦孺人原州李氏之碑)라고 새겼다.
 세워진 연대는 승정기원(崇禎紀元)이다.

횡성군(橫城郡) 갑천면 전촌리 원주(原州) 이씨(李氏) 부인(婦人)은 시부모(媳父母) 섬기기를 극진(極盡)히 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병석(病席)에 들어 위중(危重)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대변(大便)을 받아가며 지극(至極)히 간호(看護)를 하였다.

효부비는 가정에서 시부모에게 효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여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전촌리 원주이씨 효부비는 조선시대 효부로 추앙받는 효부의 덕행을 기리는 비석으로 문중 또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세운 기념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이씨 문중 족보나 문집 등에서 효부 행적을 기록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원주이씨 대종친회에서 효부비를 관리하고 마을의 전통적인 충효예 실천의 미담 사례로 이어가고 있다. 아래 사진은 원주이씨 효부비, 원주이씨 대종회 횡성종친회 방문 새해 인사 모습이다.



원주이씨 효부비

원주이씨 효부비

횡성 원주이씨 효부(橫城 原州李氏 孝婦)

원주이씨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는 이춘계(李椿桂)이다.

원주이씨 효부비 -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효부비(孝婦碑)란 시부모를 부모처럼 극진히 봉양하거나 섬기고 예를 다한 며느리로 남편 사후에도 절개를 굳게 지킨 여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원주이씨 효행을 기리기 위해 갑천면 전촌리 북쪽 골짜기에 세운 비이다. 효부(孝婦) 비(碑)에는 세워진 구체적인 연대(年代)를 ‘숭정기원(崇禎紀元)’을 써서 표기(表記)하고 있으나 연대표기(年代表記) 부분이 대부분 마모(摩耗)되었고 파손(破損)되어 연대(年代)를 불행히 알 수 없다.

횡성군(橫城郡) 갑천면 전촌리 원주(原州) 이씨(李氏) 부인(婦人)은 시부모(嫗父母) 섬기기를 극진(極盡)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병석(病席)에 들어 위중(危重)하게 되자, 어려운 시어머니의 대변(大便)을 받아가며 지극(至極)히 간호(看護)를 하였다.

비신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139cm 두께는 대략 17cm 정도이다.

전면에 효부유인원주이씨지비(孝婦孺人原州李氏之碑)라고 새겼다. 원주이씨 대중회는 2024년 새해에 횡성 대중친회장 이주환과 임원 모두 함께 문중 발전을 기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주김씨 효부 정문

지역문화교육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와 청일면 초현리 사이에 있는 경주김씨 정려각(旌閭閣)이다.

현판(懸板)에는 ‘효부학생이동석지처 유인경주김씨지각 상지십사년갑술십월일명정 (孝婦學生李童錫之妻 孺人慶州金氏之閣 上之十四年甲戌十月日 命旌)’라고 쓰여 있다.

편액(扁額)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정면에 걸어 그 이름을 적은 액자 모양의 판이다.

보통 서예로 쓴 글씨를 새기거나 그려 넣는다. 정려각, 사찰, 서원 등 전통 건축물에 많이 사용한다. 청원각, 충열문, 효자각에 상징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횡성에는 문중, 또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정려각, 효부각, 효부비각, 열녀 정문 등 여러 유형의 기념물이 존재한다. 가담리 박성혁 정려문, 둔내면 안동권씨 정려문, 공근면 유봉수 효자각, 박양혁 효자각, 서원년 김씨 열녀각, 가담리 원주원씨 열녀문 등이 있어 후대에 귀감이 된다. 한편 현판은 단순히 걸어둔 널빤지이다.



경주김씨 효부 정문

횡성은 효자 마을, 효자 마을은 횡성 경주김씨 효부 정문

횡성군(橫城郡) 갑천면 매일리와 청일면 초현리 사이에 있는 정려각은 이동석의 부인 경주김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와 청일면 초현리 사이의 수아지 마을에 있다.

경주(慶州) 김씨(金氏)는 조선(朝鮮) 시대의 제23대 순조 임금 14년(1814) 당시 명정(命旌)되었고 정려각(旌閭閣)을 건립(建立)하였으나 이 후에 상당히 퇴락(頽落)되어 1940년 중수(重修)하였다.

경주김씨 효부 정문의 현판(懸板)에는 ‘효부학생이동석지처 유인경주김씨지각상지 십사년갑술십월일명정(孝婦學生李童錫之妻孺人慶州金氏之閣 上之十四年甲戌十月日命旌)’이라고 써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전해져 오지 않는다. 정려각의 크기는 정면 201cm, 측면 210cm이다. 맞배지붕 양식으로 정려 현판을 걸었다.

갑천면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유적이나 효열유적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중금리 이재혁 효자각, 매일리 이시영 효자 정려문, 갑천면 추동리 박양혁 효자각, 포동리 정준제 처 김씨 열녀문, 갑천면 광채상 효자각, 대관대리 원씨 열녀문 등이 있어 추앙받는 효자 효녀 효부 열녀 등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갑천면은 충효 예절의 고장으로 전해진다.

경주이씨 정려각

경주이씨 정려각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에 있는 경주이씨 정려각(旌閭閣) 열녀각

열녀 경주이씨는 전주이씨 이기수의 처로서 서원면 창촌리에 살았다. 남편 이기수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워 사경을 헤매자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더니 소생하여 얼마간 더 살게하고 사후에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고 슬하에 자식도 없이 청상의 몸으로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다.

1929년 횡성 향교가 중심이 되어 경주이씨 정려각을 세웠으며 1983년 효열유적 정화사업으로 정비하였다. 경주이씨 정려각과 편액을 보면 자식도 없이 청상의 몸으로 남편을 잃고 시부모를 자극히 모시는 다시없는 열녀, 효부(孝婦)였다.

경주이씨는 신라 시조 알평공을 시조로 삼는 유서깊은 성씨로 충청북도 청주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며 횡성에도 경주이씨 가문이 많고 효자 효부 열녀가 많았다. 아래 사진은 경주이씨 정려각과 현판(편액)이다.

정려각의 정(旌)은 깃발을 드러내다. 표창하다의 의미이다. 려(閭)는 마을 어귀, 골목어귀이다. 각(閣)은 누각, 집 모양의 건물이다. 즉 정려각은 마을 어귀에 세워 충효 열의 덕행을 표창하여 드러내는 집(각)이라는 뜻이다.



경주이씨 정려각과 현판(편액)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2리에 1929년 건립(建立)된 정려각(旌閭閣)은 이기수의 처(妻) 경주(慶州) 이씨의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씨 부인은 남편 이기수씨가 질병(疾病)을 얻어 자리에 눕자 정성껏 간호(看護)하였으나 사경(死境)을 헤매자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 수혈(輸血)을 하여 얼마간 더 연명하게 하였다. 사후(死後)에는 정성을 다해 장례(葬禮)를 치루고 청상(靑孀)의 몸으로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정려각(旌閭閣)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며 맞배지붕의 형태(形態)이다. 내부(內部)에는 열부전주이공기수처경주이씨지려 라고 쓴 현판을 걸었다. 열부는 열녀이며 효부를 의미한다. 전주이공은 전주이씨 남편 이기수이고 처인 경주이씨의 정려문(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다시 없는 효부이며 열녀로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간 분으로 후대에 널리 알려야 하겠다.

신라시대 상덕(尙德)이라는 효자가 있었다.

어느 해 흉년에 열병까지 유행하여 어머님께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다. 상덕은 온갖 정성으로 음식을 해 드렸지만 더 이상 힘들자 어머님은 자리에 누웠다. 상덕은 입술을 깨물고 칼로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어머님께 잡수시도록 하였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勿毀勿傷(신체발부 수지부모 물훼물상)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서 받아 훼손하지 말며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내 몸보다 효도가 우선이었다.

이 소문을 알게 된 임금은 상금을 후하게 내리고 상덕의 집에 효행을 기리는 효자문을 세웠고 효자깃발을 달며 비석을 세워 이 효도 사례를 기렸다.

경주김씨 효열 비각

한제영의 처 경주김씨 부인은 효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녀(烈女)로서도 이름이 매우 높았다. 청주한씨 문중에서 그 뜻을 기리고자 열녀비와 비각을 1962년 건립하고 1983년 황성군의 협조로 정화되었다.

서원면 경주이씨와 유사한 행실로 효행을 다하는 덕행과 열녀로서 충실한 여성이었다. 그 당시 어려운 가정에서도 효도와 열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한제영의 처 경주김씨는 충효예를 실천하는 조선시대는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올림이 있는 거룩하고 귀감이 되는 열녀(烈女)였다.

효열비: 열녀 효부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碑石)

열녀 효부의 이름과 고향, 효행의 내용, 비문을 새긴 기념비이다.

효열비각: 효열비를 보호하거나 그 의미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세운 집(閣)으로 비(碑)를 덮는 누각형 건물이다.



경주김씨 효열비각 황성군 서원면 옥계리



경주김씨 효열비

경주김씨 효열 비각



황성 경주김씨 효열비각(孝烈碑閣)

황성군 서원면 옥계리 한제영의 처(妻) 경주(慶州) 김씨 부인(婦人)은 효성(孝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녀(烈女)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남편(男便) 한제영이 병석(病席)에서 사경(死境)을 헤매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輸血)하였고, 남편(男便) 사후(死後)에도 시부모의 재가(再嫁) 권유(勸誘)에도 불구하고 시부모(媳父母)에게 효도(孝道)하며 청상(靑孀)의 몸으로 일생(一生)을 살았다. 송죽(松竹)같은 절개(節概)와 열혈같은 효행(孝行) 실천과 가정을 지킨 열녀(烈女)였다. 오늘날의 우리가 본받아야 효행(孝行)의 극치였다.

청주한씨의 문중(門中)에서 이 같은 가륜한 뜻을 세상(世上)에 널리 알리고 후(後)世에 길이 전하고자 1962년 비(碑)와 비각(碑閣)을 세웠고 1983년 강원도 황성군의 협조로 정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나라와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절을 다하는 충효예(忠孝禮) 정신이다.

대한민국(KOREA)의 저력은 **충효예**이다

인성(忠孝예)이 진정한 실력이다

서득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서득천과 서진영 부자(父子)의 효행과 덕행 -부전자선(父傳子傳)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았다. 서득천 아버지의 효행 성품 도리를
아들 서진영도 이어받아 몸소 실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있는 서득천, 서진영 부자(父子)의 효자가
이다. 광무 8년(1904년) 11월 나라에서 그리고 강원도 유생들의 상소로 정려를 명
하였다.(강림면 강림4리)

안흥면 강림사성(講林四星), 가천리에 가천세우와 가천팔경의 옛 정취를 취할 수
있는 양지바른 언덕에 위치한 정문각(旌門閣)은 세기에 드물게 두 부자(父子)의 정문
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부친이 되는 서득천 효자와 아들이 되는 서진영 효자의 효행
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고종 임금이 내린 것으로서, 이천 서씨 후손들에게는 물론 인
근 사람들에게 효(孝)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父)가 되는 서득천 효자는 부모님 섬기기를 하늘같이 극진히 모시어 아버지 병
을 낫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기도 하였으며 사후에도 3년동안 하루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아들 서진영도 아버지 병이 위중하자 부친 대변을 맞
보아 진단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1904년(광무 8년) 장례원의 향신이던 조정희와 강
원도 유생들이 임금께 상장하여 고종께서 두 부자(父子)에 정문각을 세웠다. 정문각
은 충효열(忠孝烈)을 기려 세운 누각이다.



서득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서득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현판(편액)

서득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정려각(旌閭閣)과 정문각(旌門閣)은 둘 다 효자 열녀 충신을 기리는 기념물(정려문 정문)로 비바람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의미상 거의 같다.

아들 서진영(徐振鏞)과 아버지 서득천(徐得天)
부자(父子)간의 효도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4리에 서득천 효자는 그의 아버지의 임종(臨終) 당시에 자신의 손가락을 지체없이 잘라서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부친(父親)에게 수혈(輸血)하여 드렸더니 4일이나 더 수명을 연명(延命)하였다고 전해진다.

서진영(徐振鏞)아들도 그의 아버지 서득천(徐得天)의 병세가 온갖 처방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다. 서진영은 스스로 부친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알아보았고, 또 아버지가 잉어와 죽순을 먹고 싶어 하므로 눈이 쌓인 엄동설한에 하늘을 향하여 기원하니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졌고, 또 하늘을 향하여 죽순을 구하지 못함을 통곡하니 홀연히 죽순이 솟아나 이를 가져다가 드시도록 하였다고 한다. 지성감천(至誠感天)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는 것이다.

광무 8년(1904년) 11월 조정희와 강원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정려를 명하였고 그 정문각은 안흥면 강림 4성(가천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정려각(정문각)은 이천 서씨(徐氏) 후손(後孫)들에게 의해 단청과 조경으로 보존이 잘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권화(權和)

효자각

효자(孝子) 권화(權和)는 효행으로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 왕조실록, 삼강행실도의 효자 열녀 기록에 그의 효행이 실려 있으며 조선 초기 국가 차원에서 효행을 포상하고 표창하던 정책 속에 권화(權和)도 포함되어 있었다.

횡성군 둔내면(屯內面)에 우거(寓居)한 권화(權和)와 그의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효행심은 대단히 지극하였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문신, 학자인 양촌(陽村) 권근(1352-1409)의 손자로 태어나 횡성군 둔내면(屯內面)에 우거(寓居)하며 아버이를 모시는데 지극 정성의 효도를 다 하였다. 어느날 집에 갑자기 불이나 노모(老母)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자 즉시 불길로 뛰어들어 구하고자 하였으나 불행이도 노모를 업고서 죽었다.

이에 아내 정씨(鄭氏)도 함께 뛰어들어 그만 애처롭게 죽고 말았다. 또한 14살 되는 남자 아이와 11살 여자 아이도 그 부모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찌 차마 살 수 있겠는가!'하며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시 횡성 현감(縣監) 임익원(任翊元)이 감사(監司)가 일을 보던 관아(官衙)인 순영(巡營)에 즉시 보고하여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고, 처(妻)가 지아비를 위해 죽고, 아이들이 또한 부모를 위해 죽었으니 이는 만고의 강상(綱常)이 한 집안에 다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사(巡使)가 계문(啓聞)하여 정려가 내려졌다. 권화(權和)의 한 아들이 마침 스승을 따라 출학(出學)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집안의 번성을 칭송하였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등장하는 효자들 중 한 분으로 전해지며 당시 효행이 국가와 유교 이념속에 중시되었기 때문에 권화의 사례도 후대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초에 효자비(孝子碑)를 세웠다. 우거(寓居)는 권화가 본래의 고향을 떠나 횡성군 둔내면에 임시 거처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며 거주하는 상황을 우거라고 표현한다.

최상목(崔相睦) 효자문

일제강점기 시대에 평창군 대화면 계촌리에 경주 최씨 시조(始祖)인 고운(孤雲) 최치원(신라시대 대학자) 선생의 후손인 최상목(崔相睦)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에게 효성이 대단히 지극하였다.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담종(痰腫)으로 온 몸이 붓고 종기가 생기는 병으로 위중하여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자 자나 깨나 걱정이 많았다. 일구월십 아버지만 생각하며 농사 일손도 놓고 식사도 거르며 하루 수십리 걸어 다니며 좋다는 약은 모두 다 준비해서 지어드렸지만 약 효과가 없자, 아예 며칠동안 곡기(穀氣)도 끊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백발의 노인이 다가와서 빨간 빛이 나는 대추 3개를 주면서 이것이 담종에 좋은 약이니 큰 차도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자 아침 끼니도 잊은채 극도로 지쳐 비틀거리리는 무거운 몸으로 오일장(五日場)이 서는 봉평, 대화 등 사방을 다니면서 바로 꿈에 본 것과 크기와 색깔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대추 3개를 구하고, 한약방에서 다른 좋은 약재도 구입하여 함께 한약 한재를 탕약으로 정성껏 지어 드렸더니 서서히 차도가 있었고 몇 달 후에는 담종(痰腫)이 기적같이 완치가 되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

이는 아들의 효행심이 하늘을 찔러 신령님께서 감응하신 일이었다. 얼마 후에 최상목씨의 효도 실천사례를 높이 기려 1919년 계촌 향리에서 유림들이 서울 성균관에 추천하여 모성공회(慕聖公會)가 감동적인 효행의 공덕을 기리는 효자문(孝子門), 높은 비석 및 비각(碑閣)을 세웠고 찬양문(讚揚文)을 만들어 주어 임금님께서 효자 충신 열녀가 있는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정려(旌閭)를 대신하였다. 그 당시 계촌 고을은 경사가 났고 평창은 물론 강원도를 너머 전국의 효(孝) 실천의 산 교육장이 되었다. 고(故) 최상목님의 아드님 최현필씨는 현재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에서 선친의 효도 실천사례를 높이 선양하고 늘 추모하며 효(孝)란 사람이 지켜야 도리 중 첫째가 봉친(奉親)으로 어버이를 받드는 효성심의 모범을 문중과 집안 및 온 마을 주변에 보여주어 경주 최씨의 훌륭한 미담사례의 불씨를 살렸으며 횡성이 충효예의 고장임을 드높이고 계신다.



횡성군 효자각 효녀각
효부비 정려각

효(孝): 효자(孝子) 효녀(孝女)

효부(孝婦)

효자비, 효녀각, 효부비

열(烈): 열녀(烈女) 정려문(각)



원주이씨 **효자각**(孝子閣)
(갑천면 중금리)



장정자 **효녀각**(孝女閣)
(안흥면 안흥2리)



유봉수 청원각(효자각)
(공근면 부창리)



안광근 효자각
(둔내면 화동2리)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갑천면 중금리)



강릉김씨 정려문
(갑천면 포동리)

횡성군 효자각 효녀각
효부비 정려각

효자각(孝子閣): 부모에게 효도한 아들을 기림

효녀각(孝女閣): 부모에게 효도한 딸을 기림

효부비(孝婦碑): 시부모에게 효도한 며느리를 기림

정려각(旌閭閣): 시부모, 남편에 효도한 며느리, 아내를 기림



김복이 효부비(孝婦碑)
(횡성읍 정암리)



횡성 경주김씨 효열비각(孝烈碑閣)
서원면 옥계리



김복이(金福伊) 열녀문(烈女門)
정암리 이미문(二美門)



박양혁 효자비, 효자각
(갑천면 추동리)

황성군 孝: 효자 효녀 효부
烈: 열녀

효자 효부상

1. 박성혁	정려문	황성읍 가담2리
2. 원주원씨	열려문	황성읍 가담2리
3. 백문현	성군관 표창	황성읍 갈풍리
4. 김복이	열려문	황성읍 정암리
5. 박수형		황성읍 가담2리
6. 이태국	정려문	황성읍 개전리
7. 홍순태	효자비	안흥면 지구리
8. 김음전	효부상	안흥면 안흥리
9. 장정자	효녀각	안흥면 안흥리
10. 흥양 임씨의 비		강림면 강림5리
11. 서득천, 서진영	정문각	안흥면 가천리
12. 안동권씨	정려문	둔내면 우용리
13. 김경자	효부상	둔내면 화동리
14. 신안주씨	열녀정	둔내면 현천리
15. 김정률	효녀각	둔내면 궁중리
16. 박씨	孝婦閣	둔내면 현천리
17. 박양혁	효자비	갑천면 추동리
18. 이시영	정려문	갑천면 매일리
19. 원주이씨	효자각	갑천면 중금리
20. 김씨	정려각	갑천면 포동리
21. 곽채상	정려문	갑천면 추동리
22. 정현구	정려문	공근면 학담리
23. 최성옥	효부상	둔내면 화동1리
24. 한씨	효부상	둔내면 삼교리

횡성군 孝: 효자 효녀 효부
烈: 열녀
문화유적 지역별 분포현황

25. 원주원씨	정려문	갑천면 대관대리
26. 경주이씨	정려각	서원면 창촌리
27. 경주김씨	효열비각	서원면 옥계리
28. 김도연	성균관 표창	횡성읍 묵계리
29. 강대열	성균관 표창	둔내면 조항리
30. 장재복	효자각	둔내면 화동리
31. 안광근	효자각	둔내면 화동리
32. 유봉수	청원각	공근면 부창리
33. 최상목	효자각	둔내면 영랑리
34. 임채기 외 60명		주소지 불명

횡성군 문화유적 지역별 분포 현황

횡성읍: 3.1공원, 읍하리 석불좌상, 삼층석탑, 횡성성당, 충훈탑, 오우덴종령, 현충비, 태풍루, 조충지석, 3.1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횡성향교, 운암정, 보광사, 정암리 김복이 열녀문

우천면: 한상열의사추모비, 횡성참전전우기념공원, 강성순지사묘, 정금향토사료관(횡성회 다지소리보존회), 한얼문예박물관

안흥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안흥삼형제바위, 도깨비도로, 지구리 홍순태효자비

강림면: 태종대, 강림리의병충, 민궁호 의병장전적비, 강림리 서덕천 서진영 효자 정려각

둔내면: 둔방내리 철기시대 주거지터, 화동리 안광근 효자각, 태기산성

청일면: 신대리 삼층석탑, 봉복사, 초현리 경주김씨 효부정문

갑천면: 구방리 망향의동산, 중금리 삼층석탑, 공양공김관영정, 매일리 충훈비, 포동리 강릉김씨 정려문, 전촌리 원주이씨 효부비, 대관대리 원주이씨 열녀 정려문, 추동리 광채상 정문, 박양혁 효자비, 중금리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최양옥 지사 공적비 묘소, 김순이 여사 묘소, 횡성덤

공근면: 장송모도자연공원, 상동리 석불좌상, 삼층석탑, 학담리 정현구 효자 정려문, 옥절려, 도곡리 6.25 전몰장병 위령비, 부창리 유봉수 청원각

서원면: 풍수원성당, 금대리 의병충, 압곡리 왜가리 번식지, 취석정, 옥계리 경주김씨 효열 비각, 창촌리 경주이씨 정려각



횡성문화원 60주년을 축하하며 오랜 세월의 횡성문화원의 방대한 발자취를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한 가지씩 내용과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며 추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긴 세월 횡성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 간직하며 보존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힘썼습니다. 횡성문화원의 국난극복 사적지 탐방에서 애국선열들의 뜨겁고 소중한 피를 후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원의 우리 고장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효열(孝烈) 유적지 답사를 통해 특히 횡성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에게 교훈을 주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 계승하며 조상들의 숭고한 충효에 가르침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횡성 전역에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60년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으나 그 흐름마다 지역의 얼과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횡성문화원은 그 맥을 지켜와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는 단순한 연륜의 축적이 아니라 지역의 혼을 일깨우고 횡성 문화를 세운 유구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종착이 아니요, 다시 출발하는 서광의 자리로서 우리 모두는 옛것을 살피 새로움을 열고(溫故知新), 지역 문화를 더욱 빛내어 백년의 대업을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횡성 문화원은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나날이 새롭게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유명한 횡성한우에 가려져 잘 발견되지 않았던 횡성의 역사와 인물을 포함해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는 다양한 색깔과 겹겹의 시간으로 어우러져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시기에 횡성 각쟁이 정신이 조상의 버팀목이 되어 왔듯이 횡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중단없이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고 횡성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횡성문화원 우광수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료 제43집

횡성문화원 60주년의 숨결

인 쇄 2025년 12월

발 행 2025년 12월

발행인 우광수

저 자 현원명

기 획 민준식

발행처 횡성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T. (033)343-2271

인쇄처 강원도민일보사 출판국